

# 도 입 부

(Nidāna)

Ati gārava ati pājita mahānāyaka theravarena  
아띠 가-라와 아띠 뿌-지따 마하-나-야까 테-라와레-나  
saddhiṣ mahāsaīghena mayhaṣ okāsa.  
삿딩 마하-상게-나 마이항 오-까-사.

**존경하는 상가 대장로께서는 저의 질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Dutiyam-pi ati gārava ati pājita mahānāyaka theravarena  
두띠얌삐 아띠 가-라와 아띠 뿌-지따 마하-나-야까 테-라와레-나  
saddhiṣ mahāsaīghena mayhaṣ okāsa.  
삿딩 마하-상게-나 마이항 오-까-사.

**두 번째로, 존경하는 상가 대장로께서는 저의 질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Tatīyam-pi ati gārava ati pājita mahānāyaka theravarena  
따띠얌-삐 아띠 가-라와 아띠 뿌-지따 마하-나-야까 테-라와레-나  
saddhiṣ mahāsaīghena mayhaṣ okāsa.  
삿딩 마하-상게-나 마이항 오-까-사

**세 번째로, 존경하는 상가 대장로께서는 저의 질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huddhassa (3x)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뵤닷사 (3번)

**세존 아라한 정등각 부처님께 예경 드립니다.**

Q. Sammajjanā padāpo ca, udakaū āsanena ca Uposathassa  
삼맛자니- 빠디-뵤- 짜 우다깁 아-사네-나 짜 우뵤-사땃사  
etāni, pubbakaraḍan-ti vuccati. Okāsa, sammajjanā :  
에-따-니, 뵤바까라난 띠 웃짜띠. 오-까-사, 삼맛자니-:  
sammajjana-karaḍaū kataū kiū?  
삼맛자나 까라낭 까땡 깁?

①청소하고 ②불을 켜고, ③물과 ④앉을 자리를 준비하는 것을 포살의 '사전준비'라고 합니다. 청소를 마쳤습니까?

A. sammajjana-karaḍaū niññitaū.  
삼맛자나 까라낭 닛띠땡  
청소를 마쳤습니다.

## 부록 5. 포살(Uposatha)

Q. Padāpo ca: Padāpujjanānā kataū kiū?  
빠디-뵏- 짜 빠디-뵏잘라낭 까땅 깁?

**불을 밝혀놓았습니까?**

A. Padāpujjanānā niññitā.  
빠디-뵏잘라낭 닛띠땅

**불을 밝혀놓았습니다.**

[Idāni pana suriyā-lokassa atthitā padāpa-kiccaū idha n'aññhi.]

[이다-니 빠나 수리야-로갓사 앓티따- 빠디-빠깃짱 이다 닛티.]

**[지금은 해가 밝아 불을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Q. Udakaū āsanena ca: āsanena saha pānāya-  
우다깡 아-사네-나 짜: 아-사네-나 사하 빠-니-야  
paribhojanāya-udakaññhapanaū kataū kiū?  
빠리보-자니-야 우다갓타빠낭 까땅 깁?

**마실 물과 씻을 물, 그리고 앉을 자리를 준비했습니까?**

A. āsanena saha pānāya-paribhojanāya-udakaññhapanaū niññitā  
아-사네-나 사하 빠-니-야 빠리보-자니-야 우다갓타빠낭 닛띠땅

**마실 물과 씻을 물, 그리고 앉을 자리를 준비해놓았습니다.**

Q. Uposathassa etāni pubbakaraḍan-ti vuccati. kiū?  
우뵏-사타사 에-따-니 뵓바까라난띠 웃짜띠. 깁?

**포살을 위한 '사전준비(뵓바까라나)'란 무엇입니까?**

A. Etāni cattāri vattāni sammajjana-karaḍādāni saḥga-sannipātato  
에-따-니 짖따-리 왓따-니 삼맛자나 까라나-디-니 상가 산니빠-따또-  
pañhamaū kattabbattā uposathassa uposatha-kammassa  
빠타망 깃답뵓따- 우뵏-사타사 우뵏-사타 깃맛사  
pubbakaraḍan-ti vuccati. Pubbakaraḍanā-ti akkhātāni  
뵓바까라난띠 웃짜띠. 뵓바까라나니- 띠 악카-따-니

**상가가 모이기 전, 청소 등 4가지 준비를 하는 것을 포살과 포살의  
식을 위한 사전준비라고 합니다. 사전준비를 선언했습니다.**

Q. Chanda pārisuddhi, utukkhānā, bhikkhu-gaḍanā ca ovādo;  
찬다 빠-리숫디, 우뵓카-낭, 빅쿠 가나나- 짜 오-와-도-;  
Uposathassa etāni, pubbakiccan-ti vuccati. Chanda-pārisuddhi:  
우뵏-사타사 에-따-니, 뵓바깃짱 띠 웃짜띠. 찬다 빠-리숫디:  
Chandārahānā, bhikkhānā chanda-pārisuddi-āharaḍaū kataū kiū?  
찬다-라하-낭 빅쿠-낭 찬다 빠-리숫디 아-하라낭 까땅 깁?

①동의(찬다), ②칭정, ③계절, ④비구 숫자, ⑤후계는 사전 의무 (뽀바깃짜)라고 합니다. 결석한 비구의 동의와 칭정을 전달했습니까?

A. Chanda-pàrisuddi-àharaḍaü niññhitaü  
 찬다 빠-리숫디 아-하라낭 닛티땅  
 [Chanda-pàrisuddi-àharaḍaü idha n'atthi]  
 [찬다 빠-리숫디 아-하라낭 이다 닛티]

동의(찬다)와 칭정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할 동의와 칭정이 없습니다.]

Q. Utukkhànaü: hemantādānaü tiḍḍaü utānaü ettakaü, atikkantaü  
 우뚝카-낭: 헤-만따-디-낭 띤낭 우뚜-낭 옛따깡 앓떡깡땅  
 ettakaṣ avasiññhan'ti. Evaṣ utu-àcikkhanaṣ kataṣ kiṣ?  
 옛따깡 아와싯탄 띤. 에-왕 우뚜 아-찍카낭 까땅 깡?

계절을 선언해 주십시오. 세 계절 중, 예를 들어 저울철 포살이 몇  
 번 지났고 몇 번이 남았는지 선언하여 주시겠습니까?

A. Utānādhā pana sāsane hemanta-gimha-vassānānaṣ vasena tāḍi  
 우뚜-니-다 빠나 사-사네- 헤-만따 김하 왓사-나-낭 와세-나 띤니  
 honti. Ayaṣ hemanta-utu[gimhāna-utu, vassāna-utu]. Asmiṣ  
 utumhi

흔-띠. 아양 헤-만따 우뚜[김하-나 우뚜, 왓사-나 우뚜]. 아스밍 우뚝히  
 añña[dasa] uposathā. Iminā pakkhena eko uposatho sampatto,  
 앓타[다사] 우뽀-사타-. 이미나- 백케-나 에-꼬- 우뽀-사토- 삼뽀또-  
 tayō uposathā atikkantā, cattāro uposathā avasiñña.  
 따요- 우뽀-사타- 아떡깡따-, 짖따-로- 우뽀-사타- 아와싯따-.

저울철, 여름철, 우기 세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울철[여름철,  
 우기]입니다. 이 계절은 8번[10번]의 포살이 있습니다. 이번 포살은  
 개시 중에 있고, 3번의 포살이 지났으며 4번의 포살이 남았습니다.

Q. Bhikkhu-gaḍānā ca: Imasmiṣ uposathagge sannipatitānaṣ  
 빅쿠 가나나- 짜: 이마스밍 우뽀-사탁게- 산니빠띠따-낭  
 Bhikkhānaṣ gaḍānā, kittakā bhikkhā honti?  
 빅쿠-낭 가나나-, 깃따까- 빅쿠- 흔-띠?

비구의 숫자를 선언해 주십시오. 이 포살당에 모인 비구의 숫자를

부록 5. 포살(Uposatha)

선언하여 주시겠습니까?

A. Imasmiṣ uposathagge sannipatitānaṣ bhikkhānaṣ gaḍānā  
이마스밍 우뵤-사탁게- 산니빠띠따-낭 빅쿠-낭 가나나-  
cattāro[paṁca, cha, satta, añña, nava, dasa...] bhikkhā honti  
짖따-로-[뵤짜, 차, 샷따, 앓타, 나와, 다사...] 빅쿠- 혼-띠  
이 포살당에 모인 비구의 숫자는 4[5,6,7,8,9,10...]명입니다.

Q. Ovādo : Bhikkhunānaṣ ovado dātabbo, dinno kiṣ?  
오-와-도-: 빅쿠니-낭 오-와도- 다-땀보- 딘노- 깡?  
혼계를 선언해 주십시오. 비구니가 요청한 혼계가 있습니까?

A. Idāni pana tāsāṣ natthitāya, so ca ovādo idha n'atthi.  
이다-니 빠나 따-상 닛띠따-야, 소- 짜 오-와-도- 이다 닛띠.  
오늘날에는 비구니들이 없기 때문에 요청한 혼계가 없습니다.

Q. Uposathassa etāni pubbakiccan-ti vuccati. kiū?  
우뵤-사탄사 에-따-니 뵤바깃짖띠 웃짜띠. 깡?  
포살의 '사전의무'란 무엇입니까?

A. Etāni paṁca-kammāni chandāharaḍḍāḍāni pātimokkhuddesato  
에-따-니 뵤짜 깡마-니 찬다-하라나-디-니 빠-띠목-쿿데-사토-  
pañhamaū kattabbattā uposathassa, uposatha-kammasa  
빠타망 깃땀뵤따- 우뵤-사탄사 우뵤-사타 깡맛사  
pubba kiccan'ti vuccati. Pubba kiccāñ'ti akkhātāni.  
뵤바 깃짖띠 웃짜띠. 뵤바 깃짜-니-띠 악카-따-니.  
동의(찬다)의 전달 등 5가지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제목 암송 전  
에 포살과 포살의식을 위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사전의무'라고 합  
니다. '사전의무' 선언을 마쳤습니다.

Q. Uposatho yāvaticā ca bhikkhā kammappattā sabhāgāpattiyo ca.  
우뵤-사토- 야-와띠까- 짜 빅쿠- 깡맷뵤따- 사바-가-뵤띠요- 짜.  
Na vijjanti; vajjanāyā ca puggalā tasmiṣ na honti, pattakallan'ti  
나 윗짖띠; 윗자니-야- 짜 뵤갈라- 따스밍 나 혼-띠 뵤따깡란띠  
vuccati. Uposatho: Tāsu uposathadivasesu cātuddasā, paḍḍarasā,  
웃짜띠. 우뵤-사토-: 띠-수 우뵤-사타디와세-수 짜-뿏다시-, 뵤나라시-,  
sāmaggāsu, ajj'uposatho ko uposatho?  
사-막기-수, 앓주뵤-사토- 꼬- 우뵤-사토-?

①포살 날, ②얼마나 많은 비구가 포살에 참석했는가, ③'동분의 범계'를

한 비구들은 없는가, ④피해야 할 사람이 없는가, 이것이 '적당한 시기'입니다. '14일, 15일, 화합일' 이 세 포살일 중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A. Ajj'uposatho paḍḍaraso [cātuddasso]  
앗주뽀-사토- 뽀나라소-[짜-똥닷소-]

오늘은 15일[14일] 포살일입니다.

Q. Yāvatikā ca bhikkhā kammappattā'ti kiṣ?  
야-와띠까- 짜 빅쿠- 깜맘뽀따-띠 깡?

'얼마나 많은 비구가 포살에 참석했는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 Yattakā bhikkhā tassa uposatha-kammaṣṣa, pattā yuttā anurāpā,  
앗따까- 빅쿠- 똥사 우뽀-사타 깜맘사, 뽀따- 윗따- 아누루-뽀-,  
sabbantimena paricchēdena cattāro bhikkhā pakatattā, saṅghena  
삼바니띠메-나 뽀릿체-데-나 째따-로- 빅쿠- 뽀까똥따-, 상게-나  
anukkhiṭṭā, te ca kho hatthapāsaṅgaṅga avijāhitvā eka-sāmaṅgāṅga ṅhiṭā.  
아눅킧따-, 떼- 짜 코- 핫타뽀-상 아위자히뜨와- 에-까 시-마-양 티따-.

많은 비구들이 정식포살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들은 온당하고 적절해야 합니다. 즉, 상가에 정권(권한정지)되지 않은 비구가 4명 이상이어야 하고 핫타빠사(약 120~125cm)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되며, 같은 시마(절의 경계)안에 있어야 합니다.

Q. Sabhāgāpattiyo ca na vijjanti kiṣ?  
사바-가-뽀띠요- 짜 나 윗잔띠 깡?

'동분의 범계를 한 비구는 없는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 Vikāla-bhojanādi vatthu sabhāgāpattiyo ca na vijjanti.  
위갈-라 보-자나-디 왓투 사바-가-뽀띠요- 짜 나 윗잔띠.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음식을 같이 먹는 것' 등 비구들이 같이 범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동분의 범계를 한 비구는 없습니다.

Q. Vajjanāyā ca puṅgalā tasmiṅ na honti kiṣ?  
왓자니-야- 짜 뽀갈라- 따스밍 나 혼-띠 깡?

'피해야 할 사람이 없는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 Gahaṅṅha-paḍḍakādayo, eka-vāsati vajjanāyā puṅgalā  
가핫타 뽀다가-다요-, 에-까 위-사띠 왓자니-야- 뽀갈라-

## 부록 5. 포살(Uposatha)

hatthapàsato bahi-karaḍavasena vajjetabbà, te asmi\$ na honti.

햇타빠-사토- 바히 까라나와세-나 왓제-땀바-, 떼- 아스밍 나 훈-띠.

21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가자, 뺨다까(중성, 내시) 등입니다. 그런 사람은 포살에 햇타빠사(약 120~125cm)이상 떨어져야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Q. Pattakallan'ti vuccati ki\$?

뺨따깔란띠 웃짜띠 깁?

‘적당한 시기’란 무엇입니까?

A. Saighassa uposatha-kamma\$ imehi catāhi lakkhaḍehi

상갓사 우뵤-사타 깁망 이메-히 짜뚜-히 락카네-히

saighahita\$ ‘pattakallan’ti vuccati? Pattakāla vantan'ti akkhāta\$.

상가히땅 뺨따깔란 띠 웃짜띠? 뺨따깔-라 완탄 띠 악카-땅.

상가의 포살의식은 이 4가지 특징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적당한 시기’입니다. 적당한 시기를 선언했습니다.

Pubbakaraḍa-pubbakiccāni samāpetvā desitā-pattikassa

뵤바까라나 뵤바깃짜-니 사마-빠-뜨와- 데시따- 뺨띠갓사

samaggassa bhikkhu-saighassa anumatiyā pātimokkha\$

사막갓사 빅쿠 상갓사 아누마띠야- 빠-띠목캉

uddisitu\$ ārādhana\$ karomi.

웃디시똥 아-라-다낭 까로-미.

사전준비와 사전의무가 완료되었고, 참회하고 화합한 비구상가의 동의 하에 계목을 암송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Sādhu! Sādhu! Sādhu!

사-두 사-두 사-두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 이상은 빨리어 또는 미얀마어(자국어)로 낭송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huddhassa (3x)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뿃닷사 (3번)  
**(앞부분에서 이미 제창 하였을 경우 생략)**

Suḍātu me bhante saïgho, ajj'uposatho  
수나-뚜 메- 반떼- 상고- 앓주뿃-사토-  
paḍḍaraso[cātuddaso], yadi saïghassa pattakallaü, saïgho  
뿃나라소-[짜-뿃다소-] 야디 상갓사 뿃따깔랑, 상고-  
uposathaü kareyya, pàtimokkhaü uddiseyya.  
우뿃-사탕 까레이야, 뿃-띠목캉 웃디세이야.

**상가 스님들께서는 제 말을 경청해주시시오. 오늘은 15일[14일]의 포살 날입니다. 상가를 위해 적절하다면 포살을 시행해야하며 계목을 암송해야 합니다.**

kiü saïghassa pubbakiccaü?  
깁 상갓사 뿃바깃짱?  
pàrisuddhiü àyasmanto àrocetha pàtimokkhaü uddisissàmi.  
뿃-리숫딩 아-야스만또- 아-로-째-타 뿃-띠목캉 웃디싯사-미.  
taü sabbe va santà sàdhukaü suḍoma manasikaroma.  
땅 삽베- 와 산따- 사-두깁 수노-마 마나시까로-마.

**상가가 지켜야할 최초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스님들께서는 자신의 청정함을 고백해주시시오. 저는 계목을 암송하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계목을 잘 경청해야 하며 잘 새겨야 합니다.**

yassa siyà àpatti, so àvākareyya. asantiyà àpattiyà, tuḍhā  
얏사 시야- 아-뿃띠, 소- 아-워-까레이야-. 아산띠야- 아-뿃띠야-, 뿃히-  
bhavitabbaü. tuḍhā bhàvena kho panāyasmante parisuddhāti  
vedissàmi.  
바위땃방. 뿃히- 바-웨-나 코- 뿃나-야스만떼- 뿃리숫다-띠 웨-뿃사-미.

**만약 자신이 범계를 했다면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범계하지 않았다면 침묵하십시오. 침묵하면 스님들이 청정하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yathà kho pana paccekapuññhassa veyyākaraḍaü hoti, evamevaü  
야타- 코- 뿃나 뿃째-까뿃뿃사 웨이야-까라낭 호-띠, 에-와메-왕  
evarāpāya parisāya yāvatatiyaü anusāvitaü hoti. yo pana  
에-와루-뿃-야 뿃리사-야 아-와따띠양 아누사-위땅 호-띠. 요- 뿃나  
bhikkhu yāvatatiyaü anusāviyamāne saramāno santiü

## 부록 5. 포살(Uposatha)

빅쿠 야-와따띠양 아누사-위야마-네- 사라마-노- 산땡  
 àpattiü nàvākareyya, sampajānamusāvādassa hoti.  
 아-뺏땡 나-위-까레이야, 삼빠자-나무사-와-닷사 호-띠.

하나씩 질문 받을 때마다 스님들은 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가 대중에게 세 번 선언할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세 번 선언하는 동  
 안 범제한 사실이 기억나는데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알면  
 서도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sampajānamusāvādo kho panāyasmanto antarāyiko dhammo vutto  
 삼빠자-나무사-와-도- 코- 빠나-야스만또- 안따라-이꼬- 담모- 옷또-  
 bhagavatā. tasmā saramānena bhikkhunā āpannaena visuddhāpekkhena  
 바가와따-. 따스마- 사라마-네-나 빅쿠나- 아-뺏네-나 위숫다-뺏케-나  
 santā àpatti āvākātabbā. āvākata hissa phāsu hoti.  
 산띠- 아-뺏띠 아-위-까-땡바-. 아-위-까따- 히사 파-수 호-띠.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향상’에 장애가 된다고 세존께서 설하  
 셧습니다. 따라서 범제한 사실이 기억난 비구는 청정해지고자 한다면  
 범제한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면 편안할 것입니다.

uddiññhā kho āyasmanto, nidānāü  
 옷딛타- 코- 아-야스만또 니다-냥

스님들이시여, 이제 도입부를 암송했습니다.

tatthāyasmante pucchāmi: kaccittha parisuddhā?  
 땡타-야스만떼- 뺏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āmi: kaccittha parisuddhā?  
 두띠얌삐 뺏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iyam-pi pucchāmi: kaccittha parisuddhā?  
 따띠얌삐 뺏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parisuddhetthāyasmanto, tasmā tuḍhā, evam-etaü dhārayāmi.  
 빠리숫땡타-야스만또-, 따스마- 툃히-, 에-와메-땡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Nidānaü niññhitaü  
니다-냥 닛티땅  
도입부를 마쳤습니다.

# 1. 빠라지까 (Pārājika)

tatrimē cattāro pārājikā dhammā uddesaū āgacchanti.  
따뜨리메- 짗따-로- 빠-라-지까- 담마- 웃데-상 아-갓찬띠.

이제 4가지 ‘빠라지까’ 제목을 암송하겠습니다.

## (1)빠라지까 1. 성행위(메투나담마, Methunadhamm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ānaū sikkhāsājāvasamāpanno sikkhaū  
요- 빠나 빅쿠 빅쿠-낭 식카-사-지-와사마-뵤노- 식캉  
apaccakkhāya dubbalyāū anāvākatvā methunaū dhammaū  
pañiseveyya,  
아뵤작카-야 둑발랑 아나-위-까뜨와- 메-투낭 담망 빠띠세-웨이야,  
antamaso tiracchānagatāya pi - pārājiko hoti, asaūvaso.  
안따마소- 띠랏차-나가따-야 뵤 빠-라-지꼬- 호-띠, 아삼와-소-.

비구의 계율과 생계수단을 지닌 비구가 그 계율을 포기하지도 않고 지킬 수 없음을 알리지도 않은 채 (①입, ②항문, ③성기에) 성행위를 하면, 심지어 암 짐승일지라도 빠라지까가 되어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다.

## (2)빠라지까 2. 절도(아딘나다나, Adinnādā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gāmā vā arāṃṇā vā adinnaū theyyasaīkhātāū  
요- 빠나 빅쿠 가-마- 와- 아란냐- 와- 아딘낭 테이야상카-땡  
ādiyeyya. yathārāpe adinnādāne rājāno coraū gahetvā  
아-디에이야. 야타-루-빠- 아딘나-다-네- 라-자-노- 쯔-랑 가헤-뜨와-  
haneyyuū vā bandheyyuū vā pabbājeyyuū vā:  
하네이윽 와- 반데이윽 와- 뵤바-제이윽 와-:  
Bcorosi, bālosi, māēhosi, thenosā!ū ti, tathārāpaū bhikkhu  
“쯔-로-시, 발-로-시, 물-호-시, 테-노-시-” 띠, 따타-루-뵤 빅쿠  
adinnaū ādiyamāno - ayam-pi pārājiko hoti, asaūvaso.  
아딘낭 아-디야마-노- 아얌뵤 빠-라-지꼬- 호-띠, 아삼와-소-.

어떤 비구가 훔치려는 의도로 마을이나 숲에서, 주지 않은 것을 가지면, 마치 주지 않은 것을 훔친 죄수를 체포한 왕이 “너는 강도, 바보, 천치, 도둑이다.” 라고 하며 매질하고 투옥하고 귀양을 보내듯이 이처럼 주지 않는 것

을 가진 비구는 빠라지까가 되어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다.

**(3)빠라지까 3. 살인**(마눗사윅가하, Manussaviggah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saṃcicca manussaviggahaū jāvitā voropeyya,  
 요- 빠나 빅쿠 산짚짜 마눗사윅가하 지-위따- 위-로-빠이야,  
 satthahārakaū vassa pariyeseyya, maraḍavaḍḍaū vā saūvaḍḍeyya,  
 싯타하-라깡 왓-사 빠리에-세이야, 마라나완냥 와- 상완네이야,  
 maraḍāya vā samādapeyya: Bambho purisa kiū tuyhiminā pāpakena  
 마라나-야 와- 사마-다빠이야: 암보- 뿌리사 깡 뚜히미나- 빠-빠께-나  
 dujjāvitena? matante jāvitā seyyo!ūti, iti cittamano cittasaṅkappo  
 듯지-위떼-나? 마뎡떼- 지-위따- 세이요-!”띠, 이띠 짚따마노- 짚따상깝뵓-  
 anekapariyāyena maraḍavaḍḍaū vā saūvaḍḍeyya, maraḍāya vā  
 아네-까바리아-예-나 마라나완냥 와- 상완네이야, 마라나-야 와-  
 samādapeyya - ayam-pi pārājiko hoti, asaūvāso.  
 사마-다빠이야 아얌빠 빠-라-지꼬- 호-띠, 아삼와-소-.

어떤 비구가 ①의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②암살해 줄 사람을 찾거나, ③죽음의 이점을 찬탄하거나, ④죽음을 부추기면서 “이보게, 불행하고 비참한 삶이 무엇이 좋은가? 당신에게 삶 보다는 죽음이 낫다.”고 한다. 이러한 생각과 목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죽음의 이점을 찬탄하거나, 죽음을 부추겨 (죽으면) 빠라지까가 되어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다.

**(4)빠라지까 4. 조인의 상태**(웃따리마눗사담마)

(Uttarimanussadhamm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anabhijānaū uttarimanussadhammaū attāpanāyikaū  
 요- 빠나 빅쿠 아나비자-냥 웃따리마눗사담망 앗뚜-빠나-이깡  
 alam’ariyaṃāḍadassanaū samudācareyya: Bīti jānāmi, iti  
 알라마리야냐-나닷사냥 사무다-짜레이야: “이띠 자-나-미, 이띠  
 passāmā!ū ti, tato aparena samayena samanuggāhiyamāno  
 뵓사-미-!” 띠, 따또 아빠레-나 사마예-나 사마눅가-히야마-노-  
 vā asamanuggāhiyamāno vā āpanno visuddhāpekkho  
 와- 아사마눅가-히야마-노- 와- 아-뵓노- 위숫다-뵓꼬-  
 evaū vadeyya: Bajānamevāū āvuso avacaū: jānāmi;  
 에-왕 와데이야: “아자-나메-왕 아-우소- 아와짱 ‘자-나-미’  
 apassaū: passāmi; tucchaū musā vilapinū-ti,  
 아뵓상 ‘뵓사-미’, 뜻창 무사- 율라뵓” 띠,  
 aṃātra adhimānā - ayam-pi pārājiko hoti, asaūvāso.

## 부록 5. 포살(Uposatha)

안냐뜨라 아디마-나- 아얌 삐 빠-라-지꼬- 호-띠, 아삼와-소-.

통찰지가 없는 비구가 인간을 넘어선 상태를 떠벌리며 수승한 알고 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중에 (상가에서) 반대심문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관계없이, 자신의 청정함에 대한 후회로 청정하게 되고자 “스님들이시여,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안다’, 보지 못하면서 ‘나는 본다.’라고 허위로, 거짓으로, 허황되게 말했습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자신의 과대평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빠리지까가 되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uddiññhà kho àyasmanto cattàro pàràjika dhammà. yesaü bhikkhu  
웃딛타- 코- 아-야스만또- 짚따-로- 빠-라-지까- 담마-. 예-상 빅쿠  
aṁṁata-raü và aṁṁata-raü và àpajjitvā na labhati bhikkhāhi saddhiü  
안나따랑 와- 안나따랑 와- 아-뵤지뜨와- 나 라바띠 빅쿠-히 샛딩  
saüvāsaü. yathà pure, tathà pacchà, pàràjiko hoti, asaüvāso.  
상와-상. 야타- 뿌레-, 따타- 뵤차-, 빠-라-지꼬- 호-띠, 아삼와-소-.

존경하는 스님들이시여, 4가지 빠리지까를 암송하셨습니다. 이 4가지 범계 중 하나라도 범한 비구는 더 이상 비구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전에 무엇을 했건 이러한 범계를 한 후에는 빠리지까가 되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습니다.

tatthàyasmante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뜨타-야스만떼- 뵤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두띠얌삐 뵤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따띠얌삐 뵤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parisuddhetthàyasmanto, tasmà tuḍḍhā, evam-etaü dhàrayàmi.  
빠리숫딛타-야스만또-, 따스마- 뵤히-, 에-와메-땡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 1. 빠라지까(Pārājika)

빠-라-지강 넋티땅  
빠라지까를 마쳤습니다.

## 2. 상가디세사 (Saṅghādisesa)

ime kho panāyasmanto terasa saīghādisesā dhammā uddesaū āgacchanti.

이메- 코- 빠나-야스만토- 떼-라사 상가-디세-사- 담마- 웃데-상 아-갓찬띠.

스님들이시여,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13가지 ‘상가디세사’ 제목을 암송하겠습니다.

### (5) 상가디세사 1. 사정(숙까위삿티, Sukkavisatṭhi-sikkhāpadam)

saṁcetanikāsukkavisaññhi, aṁṁatra supinantā, saīghādiseso.

산째-따니까-숙까위삿티, 안냐뜨라 수빠난따-, 상가-디세-소-.

꿈속을 제외하고 고의로 정액을 나오게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 (6) 상가디세사 2. 신체접촉(까야상삭가, Kāyasaṁsagg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otiḍḍo vipariḍatena cittena mātugāmena saddhiū

요- 빠나 빅쿠 오-띤노- 위빠리나떼-나 찢떼-나 마-뚜가-메-나 삿딩

kāyasaūsaggaū samāpajjeyya, hatthagāhaū vā veḍḍigāhaū vā

까-야상삭강 사마-뵈제이야, 핫타가-항 와- 웨-니가-항 와-

aṁṁatarassa vā aṁṁatarassa vā aīgassa parāmasanaū, saīghādiseso.

안냐따랏사 와- 안냐따랏사 와- 앙갓사 빠라-마사낭, 상가-디세-소-.

비구가 음욕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여성과 ①몸을 접촉하거나, ②손을 잡거나, ③머리카락을 잡거나, ④팔다리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접촉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 (7) 상가디세사 3. 음란한 말(뫼틀라와짜, Duṭṭhullavācā-sikkhāpadam)

yo pana bhikkhu otiḍḍo vipariḍatena cittena mātugāmaū

요- 빠나 빅쿠 오-띤노- 위빠리나떼-나 찢떼-나 마-뚜가-망

duññhullāhi vācāhi obhāseyya. yathā taū yuvā

뫼틀라-히 와-짜-히 오-바-세이야. 야타- 띠 유와-

yuvatiū methunāpasāhitāhi, saīghādiseso.

유와띤 메-투누-빠상히따-히, 상가-디세-소-.

비구가 음욕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젊은 남자가 젊은 여성에게 성적인 표현’을 하듯이 여성에게 음란한 말을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

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8) 상가디세사 4. 성공양(앗따까마빠릿짜리아, Attakāmapāricariy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otiḍḍo vipariḍatena cittena mātugāmassa santike  
 요- 빠나 빅쿠 오-띤노- 위빠리나떼-나 찢떼-나 마-뚜가-맛사 산띠께-  
 attakāmapāricariyāya vaḍḍau bhāseyya: Betad-aggaū bhagini  
 앗따까-마빠-리짜리아-야 완낭 바-세이야: 에-따닥강 바기니  
 pāricariyānau yā mādīsā sālavantaū kalyāḍadhammā brahmacāriū  
 빠-리짜리아-낭 야- 마-디상 실-라완땅 깔라-나담망 브라흐마짜-링  
 etena dhammena paricareyyāu ti, methunāpasaūhitena, saṅghādiseso.  
 에-떼-나 담메-나 빠리짜레이야-” 띠, 메-투누-빠상히떼-나, 상가-디세-소-.

비구가 음욕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여성의 면전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공양공덕을 찬양하면서 말한다. “자매여 최상의 공양은 나같이 덕이 높고 수  
 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행위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  
 행위를 암시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9) 상가디세사 5. 증매(산짜릿따, Sañcaritt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sañcarittaū samāpajjeyya, itthiyā vā  
 요- 빠나 빅쿠 산짜릿땅 사마-뵤제이야, 잇티야- 와-  
 purisamatiū, purisassa vā itthimatiū, jāyattane vā  
 뿌리사마띤, 뿌리삿사 와- 잇티마띤, 자-앗따네- 와-  
 jārattane vā, antamaso taikhaḍikāya pi, saṅghādiseso.  
 자-랏따네- 와-, 안따마소- 띤카니까-야 빠, 상가-디세-소-.

비구가 ①남자의 의향을 여성에게, 여성의 의향을 남자에게 전하여 ②  
 부부나 애인(정부)의 연을 맺도록 제안하면 단 한 번의 증매역할일지라  
 도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10) 상가디세사 6. 꾸띠 짓기(꾸띠까라, Kuṭikāra-sikkhāpadam)

saññācikāya pana bhikkhunā kuñiū kārāyamānena assāmikāū  
 산냐-찌까-야 빠나 빅쿠나- 꾸띤 까-라야마-네-나 앗사-미깡  
 attuddesaū pamāḍikā karetabbā. tatrīdāū pamāḍāū: dāghaso dvādasā  
 앗뚏데-상 빠마-니까- 까-레-땡바-. 따뜨리당 빠마-낭: 디-가소- 드와-다사  
 vidatthiyo sugatavidatthiyā tiriyaū sattantarā. bhikkhā abhinetabbā  
 위닷티요- 수가따위닷티야- 띠리야 샷땡따라-. 빅쿠- 아비네-땡바-  
 vatthudesanāya, tehi bhikkhāhi vatthuū desetabbāū anārambhāū  
 왓투데-사나-야, 떤-히 빅쿠-히 왓툵 데-세-땡방 아나-람방  
 saparikkamanaū. sārāmbhe ce bhikkhu vatthusmiū aparikkamane  
 사빠릭까마낭. 사-람베- 쩌- 빅쿠 왓투스밍 아빠릭까마네-  
 saññācikāya kuñiū kareyya, bhikkhā vā anabhineyya  
 산냐-찌까-야 꾸띤 까-레이야, 빅쿠- 와- 아나비네이야  
 vatthudesanāya, pamāḍāū vā atikkāmeyya, saṅghādiseso.

## 부록 5. 포살(Uposatha)

왓투데-사나-야, 빠마-낭 와- 아딕까-메이야, 상가-디세-소-.

비구가 자신의 탁발로 얻은 것으로 ‘보시자 없이’ 스스로 꾸띠를 지을 때는 표준치수로 지어야 한다. 그 표준은 부처님의 뺨으로 길이 12뺨(3m/2.7m), 너비 7뺨(1.75m/1.6m)이다. 비구들은 모여서 꾸띠의 위치를 지정해야 한다. 비구들이 지정한 꾸띠의 위치는 장애물이 없고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①장애물이 있고 ②충분한 공간이 없는 장소에 스스로 탁발하여 꾸띠를 짓거나, ③비구들이 모여 꾸띠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④표준치수를 초과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BMC/MB)

### (11) 상가디세사 7. 정사 짓기(위하라까라, Vihārakāra-sikkhāpadam)

mahallakaū pana bhikkhunā vihāraū kārayamānena sassāmikaū  
마할라깡 빠나 빅쿠나- 위하-랑 까-라야마-네-나 샷사-미깡  
attuddesaū bhikkhābhinetabbā vatthudesanāya. tehi bhikkhāhi  
앗뚏데-상 빅쿠-아비네-땀바- 왓투데-사나-야. 떼-히 빅쿠-히  
vatthuū desetabbaū anārambhaū sapaṛikkamanaū. sārambhe ce  
왓툽 데-세-땀방 아나-람방 사빠릭까마낭 사-람베-제-  
bhikkhu vatthusmiū aparikkamane mahallakaū vihāraū kāreyya,  
빅쿠 왓투스밍 아빠릭까마네- 마할라깡 위하-랑 까-레이야,  
bhikkhā vā anabhineyya vatthudesanāya, saīghādiseso.  
빅쿠- 와- 아나비네이야 왓투데-사나-야, 상가-디세-소-.

비구가 ‘보시자의 후원’으로 자신의 계획 하에 정사(위하라)를 지을 때는 비구들이 모여 정사의 위치를 지정해야 한다. 비구들이 지정한 정사의 위치는 장애물이 없고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①장애물이 있고 ②충분한 공간이 없는 장소에 정사를 짓거나, ③비구들이 모여 정사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 (12) 상가디세사 8. 악의·성냄 1(뚫타·도사, Paṭhama-duttṭha-dos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ū duñño doso appatāto amālakena  
요- 빠나 빅쿠 빅쿱 뚫토- 도-소- 압빠띠-뜨- 아물-라께-나  
pārājikena dhammena anuddhaūseyya: Ḷappeva nāma naū  
빠-라-지께-나 담메-나 아눗당세이야: “압빠-와 나-마 낭  
imamhā brahmacariyā cāveyyanū-ti. tato aparena samayena  
이맘하- 브라흐마짜리야- 짜-웨이안” 띠. 따또- 아빠레-나 사마예-나  
samanuggāhiyamāno vā asamanuggāhiyamāno vā, amālakaṃ-ceva  
사마눅가-히야마-노- 와- 아사마눅가-히야마-노- 와-, 아물-라깡제-와

taū adhikaraḍaū hoti, bhikkhu ca dosaū patinñhāti, saīghādiseso.  
 땅 아디까라낭 호-띠, 빅쿠 짜 도-상 빠똥타-띠, 상가-디세-소-

악의와 성냄으로 불만에 찬 비구가 ‘빠리지까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로 “이 일로 그를 성스런 삶으로부터 추락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동료 비구를 고발한다. 그러면 나중에 (상가에서) 반대심문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관계없이 ①그 쟁점이 사실무근이고 ②그 비구가 자신의 악의를 실토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13) 상가디세사 9. 악의·성냄 2(똥타·도사, Dutīya-duṭṭha-dos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ū duñño doso appatāto abhāgiyassa  
 요- 빠나 빅쿠 빅쿱 똥토- 도-소- 압빠띠-뜨- 안나-바-기얏사  
 adhikaraḍassa kiṃci desaū lesamattaū upādāya parājikena  
 아디까라닛사 낀찌 데-상 레-사맛땅 우빠-다-야 빠-라-지께-나  
 dhammena anuddhaūseyya: Bappeva nāma naū imamhā  
 담메-나 아눗담세이야: “압빠-와 나-마 낭 이맘하-  
 brahmacariyā cāveyyanū-ti. tato aparena samayena  
 브라흐마짜리야- 짜-웨이안” 띠. 따또- 아빠레-나 사마에-나  
 samanuggāhiyamāno vā asamanuggāhiyamāno vā,  
 사마눅가-히야마-노- 와- 아사마눅가-히야마-노- 와-,  
 abhāgiya- ceva taū adhikaraḍaū hoti, koci deso  
 안나바-기안제-와 땅 아디까라낭 호-띠, 꼬-찌 데-소-  
 lesamatto upādinno, bhikkhu ca dosaū patinñhāti, saīghādiseso.  
 레-사맛뜨- 우빠-딘노-, 빅쿠 짜 도-상 빠똥타-띠, 상가-디세-소-

악의와 성냄으로 불만에 찬 비구가 “이 일로 그를 성스런 삶으로부터 추락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단순한 상황을 다른 쟁점과 연관시켜 ‘빠리지까와 연루된 사건’으로 동료비구를 고발한다. 그러면 나중에 (상가에서) 반대심문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관계없이 ①그 쟁점이 단순한 상황을 다른 쟁점과 연관시킨 것이고 ②그 비구가 자신의 악의를 실토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14) 상가디세사 10. 상가분열 1(상가베다, Paṭhama-saṅghabhed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samaggassa saīghassa bhedāya parakkameyya  
 요- 빠나 빅쿠 사막갓사 상갓사 베-다-야 빠락까메이야  
 bhedanasaūvattanikaū vā adhikaraḍaū samādāya paggayha tiññheyya.  
 베-다나삼왓타니깁 와- 아디까라낭 사마-다-야 빠가이하 똥테이야.  
 so bhikkhu bhikkhāhi evam-assa vacanāyo: Bmā āyasmā

## 부록 5. 포살(Uposatha)

samaggassa

소- 빅쿠 빅쿠-히 에-와맛사 와짜니-요-: “마- 아-야스마- 사막갓사

saïghassa bhedàya parakkami bhedanasāvattanikaü vā  
 상갓사 베-다-야 빠락까미 베-다나삼왓따니깁 와-  
 adhikaraḍāusamādàya paggayha aññhàsi. sametāyasmà saïghena,  
 아디까라남사마-다-야 빠가이하 앓타-시. 사메-따-야스마- 상게-나,  
 samaggo hi saïgho sammodamāno avivadamāno ekuddeso phāsu  
 사막고- 히 상고- 삼모-다마-노- 아위와다마-노- 에-꿇데-소- 파-수  
 viharatāü ti. evaṁ-ca so bhikkhu bhikkhāhi vuccamāno tatheva  
 위하라띠-” 띠. 에-완짜 소- 빅쿠 빅쿠-히 웃짜마-노- 따테-와  
 paggaḍheyya, so bhikkhu bhikkhāhi yāvattiyāü samanubhāsitabbo  
 빠간헤이야, 소- 빅쿠 빅쿠-히 야-와따띠양 사마누바-시답보-  
 tassa pañinissaggāya. yāvattiyāṁ-ce samanubhāsiyamāno taü  
 땃사 빠띠닛삭가-야. 야-와따띠양제- 사마누바-시아마-노- 땃  
 pañinissajeyya, iccetaü kusalaü. no ce pañinissajeyya, saïghādiseso.  
 빠띠닛사제이야, 잇제-땃 꾸살랑. 노- 제- 빠띠닛사제이야, 상가-디세-소-.

비구가 ①상가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선동하거나 ②분열의 원인이 되는  
 쟁점을 만들려고 고집하면 비구들은 다음과 같이 훈계해야 한다. “스  
 님, 상가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선동하거나 분열의 원인이 되는 쟁점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오. 스님은 상가의 화해와 화합을 위해 격려하고 다  
 톰 없이 합송하면서 평온하게 머물러 주시오.” 그런데 비구들로부터 훈  
 계 받은 비구가 전과같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비구들은 그를 단념시키  
 기 위해서 3번까지 훈계해야 한다. 그가 3번까지 훈계해서 그치면 좋으  
 나 그치지 않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 (15) 상가디세사 11. 상가분열 2(상가베다, Dutiya-saṅghabheda-sikkhāpadam)

tasseva kho pana bhikkhussa bhikkhāhonti anuvattakā vaggavādakā,  
 땃세-와 코- 빠나 빅쿣사 빅쿠-훈-띠 아누왓따까- 왓가와-다까-,  
 eko vā dve vā tayo vā, te evaü vadeyyuü: ßmā āyasmanto  
 에-꼬- 와- 드웨- 와- 따요- 와-, 테- 에-왕 와데이유: “마- 아-야스만또-  
 etaü bhikkhuü kiṁci avacuttha, dhammavādāceso bhikkhu,  
 에-땃 빅쿣 깐찌 아와쫏타, 담마와-디-제-소- 빅쿠,  
 vinayavādā ceso bhikkhu, amhākaṁ-ceso bhikkhu; chandaṁ-ca  
 워나야와-디- 제-소- 빅쿠, 암하-깐 제-소- 빅쿠; 찬단 짜  
 ruciṁ-ca ādāya voharati, jānāti no bhāsati, amhākam-petaü  
 루찐 짜 아-다-야 위하라띠, 자-나-띠 노- 바-사띠, 암하-깐 빠-땃

khamatāu ti. te bhikkhā bhikkhāhi evam—assu vacanāyā:  
카마띠—” 띠. 떼- 빅쿠- 빅쿠-히 에-와맛수 와짜니-야-:

Ḍmā āyasmanto evaūvacuttha. na ceso bhikkhu dhammavādā,  
“마- 아-야스만또- 에-와마와쫓타. 나 쎄-소- 빅쿠 담마와-디-,  
na ceso bhikkhu vinayavādā. mā āyasmantānam—pi saṅghabhedo  
나 쎄-소- 빅쿠 위나야와-디-. 마- 아-야스만따-남 빼 상가베-도-  
ruccittha. sametāyasmantānāu saṅghena, samaggo hi saṅgho  
룻쫓타. 사메-따-야스만따-낭 상게-나, 사막고- 히 상고-  
sammodamāno avivadamāno ekuddeso phāsu viharatāu ti.  
삼모-다마-노- 아위와다마-노- 에-꿇데-소- 파-수 위하라띠—” 띠.  
eva—ca te bhikkhā bhikkhāhi vuccamānā tatheva  
에완짜 떼- 빅쿠- 빅쿠-히 웃짜마-나- 따테-와  
paggaḍheyyuū, te bhikkhā bhikkhāhi yāvattiyāu  
빱간헤이윽, 떼- 빅쿠- 빅쿠-히 야-와따띠양  
samanubhāsītābba tassa paṇinissaggāya. yāvattiyā—ce  
사마누바-시딕바- 땃사 빠띠닛삭가-야. 야-와따띠양 쎄-  
samanubhāsīyamānā taū paṇinissajeyyuū, iccetaū kusalaū.  
사마누바-시아마-나- 땅 빠띠닛사제이윽, 잇쎄-땅 꾸살랑  
no ce paṇinissajeyyuū, saṅghādiseso.  
노- 쎄- 빠디닛사제이윽, 상가-디세-소-.

그 비구의 추종자며 한 패인 한 명이나 두 명, 혹은 세 명의 비구들이 말하길 “스님들, 어떤 식으로든 그 스님을 훈계하지 마시오. 그는 법의 권위자며, 율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승인과 동의하에 행동합니다. 그는 우리를 알고 우리를 위해 말하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비구들은 그들을 이렇게 훈계해야 한다. “스님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그 스님은 법의 권위자도 아니고 율의 권위자도 아니요. 스님들, 상가의 분열에 찬동하지 마시오. 스님들은 상가의 화해와 화합을 위해 격려하고 다툼 없이 함송하면서 평온하게 머물러 주시오.” 그런데 비구들로부터 훈계 받은 비구들이 전과같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비구들은 그들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3번까지 훈계해야 한다. 그들이 3번까지 훈계해서 그치면 좋으나 그치지 않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16) 상가디세사 12. 불복(뉘바짜, *Dubbaca-sikkhāpadam*)

bhikkhu paneva dubbacajātiko hoti. uddesapariyāpannesu  
sikkhāpadesu  
빅쿠 빠네-와 뉘바짜자-띠꼬- 호-띠-. 웃데-사빠리아-뉘네-수 식카-빠데-수

## 부록 5. 포살(Uposatha)

bhikkhāhi sahadhammikaū vuccamāno attānaū avacanāyaū karoti:  
빅쿠-히 사하담미깡 웃짜마-노- 앓따-낭 아와짜니-양 가로-띠:

Ḭmā maū āyasmanto kiṃci avacuttha, kalyāḁaū vā pāpakaū vā.  
“마- 망 아-야스만또- 낀찌 아와쫏타, 깔라-낭 와- 빠-빠깡 와-  
aham-pāyasmante na kiṃci vakkhāmi, kalyāḁaū vā pāpakaū vā.  
아항 빠-야스만떼- 나 낀찌 왓카-미, 깔라-낭 와- 빠-빠깡 와-  
viramathāyasmanto mama vacanāyāu ti. so bhikkhu bhikkhāhi  
위라마타-야스만또- 마마 와짜나-야-” 띠. 소- 빅쿠 빅쿠-히  
evam-assa vacanāyo: Ḭmā āyasmā attānaū avacanāyaū akāsi.  
에-와마사 와짜니-요-: “마- 아-야스마- 앓따-낭 아와짜니-양 아까-시.  
vacanāyam-evāyasmā attānaū karotu. āyasmā pi bhikkhā vadetu  
와짜니-야메-와-야스마- 앓따-낭 가로-뚜. 아-야스마- 빠 빅쿠- 와데-뚜  
sahadhammena, bhikkhā pi āyasmantaūvakkhanti sahadhammena.  
사하담메-나, 빅쿠- 빠 아-야스만땅왓칸띠 사하담메-나.  
evaū saūvaddhā hi tassa bhagavato parisā, yadidaū  
에-왕 상왓다- 히 댗사 바가와또- 빠리사-, 야디당  
aṃam-aṃavacanena aṃam-aṃavuññhāpanenāu ti. evaṃ-ca so  
bhikkhu  
안나만냐와짜네-나 안나만냐웃타-빠네-나- 띠. 에-완 짜 소- 빅쿠  
bhikkhāhi vuccamāno tatheva paggaḁheyya, so bhikkhu bhikkhāhi  
빅쿠-히 웃짜마-노- 띠테-와 빠간헤이야, 소- 빅쿠 빅쿠-히  
yāvatiyaū samanubhāsitaḁbo tassa paṇinissaggāya. yāvatiyaṃ-ce  
야-와따띠양 사마누바-시뵓보- 댗사 빠띠닛삭가-야. 야-와따띠양 제-  
samanubhāsīyamāno taū paṇinissajeyya iccetaū kusalaū.  
사마누바-시야마-노- 땅 빠띠닛사제이야 잇제-땅 꾸살랑  
no ce paṇinissajeyya, saīghādiseso.  
노 제 빠띠닛사제이야, 상가-디세-소-.

비구들이 훈계하기 어려운 성격의 비구를 계목과 관련된 계율을 인용하여 적법하게 훈계하고 있다. 그때 그 비구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스님들, 옳든 그르든 나에게 어떤 훈계도 하지 마시오. 나도 옳든 그르든 스님들에게 어떤 훈계도 하지 않을 것이요. 스님들, 나에게 훈계하지 마시오.”라고 말한다. 그러면 비구들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해야 한다. “스님, 훈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오. 스님은 훈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구들이 바른 법에 입각하여 훈계하도록 해주시오. 비구들은 바른 법에 입각하여 스님에게 훈계할 것이요. 부처님의 제자는

서로간의 훈계와 독려를 통해서 향상할 수 있소.” 그런데 그 비구에게 훈계 받은 비구가 전과같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비구들은 단념시키기 위해서 3번까지 그를 훈계해야 한다. 그가 3번까지 훈계해서 그치면 좋으나 그치지 않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17) 상가디세사 13. 재가자를 타락시키는 자(콜라두사까, Kuladūsaka-sikkhāpadam)

bhikkhu paneva aṃṃataṛau gāmaū vā nigamaū vā upanissāya viharati  
 빅쿠 빠네-와 안냐따랑 가-망 와- 니가망 와- 우빠닛사-야 위하라띠  
 kuladāsako pāpasamācāro. tassa kho pāpakā samācārā dissanti  
 콜라두-사꼬- 빠-빠사마-짜-로-. 땃사 코- 빠-빠까- 사마-짜-라- 딛산띠  
 ceva suyyanti ca. kulāni ca tena duññhāni dissanti ceva suyyanti ca.  
 쎄-와 수이얀띠 짜. 콜라-니 짜 떤-나 뉃타-니 딛산띠 쎄-와 수이얀띠 짜.  
 so bhikkhu bhikkhāhi evam-assa vacanāyo: Bāyasmā kho kuladāsako  
 소- 빅쿠 빅쿠-히 에-와맛사 와짜니-요-: “아-야스마- 코- 콜라두-사꼬-  
 pāpasamācāro. āyasmato kho pāpakā samācārā dissanti ceva  
 빠-빠사마-짜-로-. 아-야스마또- 코- 빠-빠까- 사마-짜-라- 딛산띠 쎄-와  
 suyyanti ca. kulāni cāyasmatā duññhāni dissanti ceva suyyanti ca.  
 수이얀띠 짜. 콜라-니 짜-야스마따- 뉃타-니 딛산띠 쎄-와 수이얀띠 짜.  
 pakkamatāyasmā imamahā āvāsā. alan-te idha vāsenāu ti. evaṃ-ca  
 빠까마따-야스마- 이맘하- 아-와-사-. 알란테- 이다 와-세-나-” 띠. 에-완 짜  
 so bhikkhu bhikkhāhi vuccamāno te bhikkhā evaū vadeyya:  
 소- 빅쿠 빅쿠-히 웃짜마-노- 떤- 빅쿠- 에-왕 와데이야:  
 Bchandagāmino ca bhikkhā, dosagāmino ca bhikkhā, mohagāmino ca  
 “찬다가-미노- 짜 빅쿠-, 도-사가-미노- 짜 빅쿠-, 모-하가-미노- 짜  
 bhikkhā, bhayagāmino ca bhikkhā. tādisikāya āpattiyā ekaccaū  
 빅쿠-, 바야가-미노- 짜 빅쿠-. 따-디시까-야 아-뵤띠야- 에-갓짱  
 pabbājenti, ekaccaū na pabbājentāu ti. so bhikkhu bhikkhāhi  
 evam-assa  
 빠바-젠-띠, 에-갓짱 나 빠바-젠-띠-” 띠. 소- 빅쿠 빅쿠-히 에-와맛사  
 vacanāyo: Bmā āyasmā evaū avaca, na ca bhikkhā chandagāmino, na  
 와짜니-요-: “마- 아-야스마- 에-왕 아와짜, 나 짜 빅쿠- 찬다가-미노-, 나  
 ca bhikkhā dosagāmino, na ca bhikkhā mohagāmino, na ca bhikkhā  
 짜 빅쿠- 도-사가-미노-, 나 짜 빅쿠- 모-하가-미노-, 나 짜 빅쿠-  
 bhayagāmino. āyasmā kho kuladāsako pāpasamācāro. āyasmato  
 바야가-미노-. 아-야스마- 코- 콜라두-사꼬- 빠-빠사마-짜-로-. 아-야스마또-  
 kho pāpakā samācārā dissanti ceva suyyanti ca. kulāni  
 코- 빠-빠까- 사마-짜-라- 딛산띠 쎄-와 수이얀띠 짜. 콜라-니  
 cāyasmatā duññhāni dissanti ceva suyyanti ca. pakkamatāyasmā  
 짜-야스마따- 뉃타-니 딛산띠 쎄-와 수이얀띠 짜. 빠까마따-야스마-

## 부록 5. 포살(Uposatha)

imamhà àvàsà. alan-te idha vāsenāu ti. evaṃ-ca so bhikkhu  
이맘하- 아-와-사-. 알란떼- 이다 와-세-나- 띠. 에-완 짜 소- 빅쿠  
bhikkhāhi vuccamāno tatheva paggaḍḍheyya, so bhikkhu  
빅쿠-히 윗짜마-노- 따테-와 빠간헤이야, 소- 빅쿠

bhikkhāhi yāvattatiyāu samanubhāsitaḥṭṭabbo tassa paṇinissaggāya.  
빅쿠-히 야-와따띠양 사마누바-시답보- 뜻사 빠띠닛사까-야.  
yāvattatiyaṃ-ce samanubhāsīyamāno taṃ paṇinissajeyya  
야-와따띠양 께- 사마누바-시야마-노- 땡 빠띠닛사제이야  
iccetaṃ kusalaṃ. no ce paṇinissajeyya, saṅghādiseso.  
잇째-땡 꾸살랑. 노- 께- 빠띠닛사제이야, 상가-디세-소-.

어떤 마을이나 읍에 의지하여 사는 비구가 재가자를 타락시키고 사된 행  
동을 할 경우 비구들은 다음과 같이 그 비구에게 훈계해야 한다. “스님,  
당신은 재가자들을 타락시키고 사된 행동을 해왔소. 당신의 사된 행동에  
대하여 보고 들어왔고 당신이 타락시킨 재가자들에 대해서도 보고 들어  
왔소. 이 절을 떠나시오. 스님은 이곳에서 충분히 머물렀소.” 그런데 비  
구들에게 훈계 받은 비구가 비구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스님들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두려움 때문에 편애하고 있소. 이런 범제로 누구  
는 추방하고 누구는 추방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비구들은 그에게 다  
음과 같이 훈계해야 한다. “스님,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스님들은 탐  
욕, 성냄, 어리석음, 두려움 때문에 편애하지 않습니다. 스님, 당신은  
재가자들을 타락시키고 사된 행동을 해왔소. 당신의 사된 행동을 보고  
들어왔고 당신이 타락시킨 재가자들에 대해서도 보고 들어왔소. 이 절을  
떠나시오. 스님, 당신은 이곳에 충분히 머물렀소.” 그런데 비구들에게  
훈계 받은 비구가 전과같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비구들은 단념시키기 위  
해서 3번까지 그를 훈계해야 한다. 그가 3번까지 훈계해서 그치면 좋으  
나 그치지 않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uddiññhà kho àyasmanto terasa saṅghādisesà dhammā, nava  
웃딤타- 코- 아-야스만또- 떼-라사 상가-디세-사- 담마-, 나와  
pañhamāpattikā cattāro yāvattatiyākā. yesāu bhikkhu aṃṃataraṃ  
빠타마-뵈띠까- 짗따-로- 야-와따띠야까-. 예-상 빅쿠 안냐따랑  
và aṃṃataraṃ và àpajjitvā, yāvattihaṃ jānāṃ pañicchādeti, tāvatihā  
와- 안냐따랑 와- 아-뵈지뜨와- 야-와띠항 자-낭 빠뵈차-데-띠, 따-와띠항  
tena bhikkhunā akāmaṃ parivatthabbaṃ. parivutthaparivāsena  
떼-나 빅쿠나- 아까-마- 빠리윗탐방. 빠리윗타빠리와-세-나

bhikkhunā uttarichārattaū bhikkhumānattāya pañipajjitabbaū.  
 빅쿠나- 윗따리차-랏땅 빅쿠마-낫따-야 빠띠뻬지뻬방.  
 ciḍḍamānatto bhikkhu: yattha siyā vāsatigaḍḍo bhikkhusaīgho,  
 찐나마-낫또- 빅쿠: 얏타 시야- 위-사띠가노- 빅쿠상고-,  
 tattha so bhikkhu abbhetabbo. ekena pi ce āno vāsatigaḍḍo  
 땃타 소- 빅쿠 압베-뻬보-. 에-께-나 빼 제- 우-노- 위-사띠가노-  
 bhikkhusaīgho taū bhikkhuū abbheyya, so ca bhikkhu anabbhito,  
 빅쿠상고- 땅 빅쿱 압베이야, 소- 짜 빅쿠 아납비또-,  
 te ca bhikkhā gārayhā. ayaū tattha sāmāci.  
 떼- 짜 빅쿠- 가-라이하-. 아얏 땃타 사-미-찌.

스님들이시여, 13가지 상가디세사를 낭송했습니다. 9가지(1~9)는 첫 번째 범계로 바로 적용되며 4가지(10~13)는 세 번 훈계 후 적용됩니다. 상가디세사의 어느 하나라도 범하는 비구는 종건 싫건 고의적으로 숨긴 날 만큼 별거(빠리와사, Parivāsa)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별거를 하고나면 상가의 감독 하에 참회하는 6일 별거(마낫따, Mānatta)에 들어가야 합니다. 참회가 끝나면 20명으로 구성되는 비구 상가에 의해 복권(압바나, Abbhāna)됩니다. 20명 미만의 비구상가가 그 비구를 복권시킨다면 그는 복권되지 않으며 참석한 비구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tatthāyasmante pucchāmi: kaccittha parisuddhā?  
 땃타-야스만떼- 뻬차-미: 갓찐타 빠리숫다-?

스님들에게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āmi: kaccittha parisuddhā?  
 두띠얌빼 뻬차-미: 갓찐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에게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iyam-pi pucchāmi: kaccittha parisuddhā?  
 따띠얌빼 뻬차-미: 갓찐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에게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parisuddhetthāyasmanto, tasmā tuḍḍhā, evam-etaū dhārayāmi.  
 빠리숫땃타-야스만또-, 따스마- 툃히-, 에-와메-뻬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 부록 5. 포살(Uposatha)

Saïghàdiseso niññhito  
상가-디세-소- 닛티또-  
상가디세사를 마쳤습니다.

### 3. 아니야따 (Aniyata)

ime kho paṇāyasmanto dve aniyatā dhammā uddesaū āgacchanti.

이메- 코- 뻘나-야스만토- 드웨- 아니야따- 담마- 웃데상 아-갓찬띠.

스님들이시여, 2가지 확정되지 않은 ‘아니야따’ 계목을 암송하겠습니다.

(18) **아니야따 1.** (Paṭhama-aniyata-sikkhāpadam) : 성행위가 가능한 곳

yo pana bhikkhu mātugāmena saddhiū eko ekāya raho

요- 뻘나 빅쿠 마-뚜가-메-나 샷딩 에-꼬- 에-까-야 라호-

pañicchanne āsane alaīkammaniye nisajjaū kappeyya.

뻘똥찬네- 아-사네- 알랑깜마니예- 니삿장- 깡뻘이야.

tam-enaū saddheyyavacasā upāsikā disvā tiḍḍaū

따메-낭 샷데이야와짜사- 우뻘-시까- 디스와- 띠낭

dhammānaū aṅgatarena vadeyya: pārājikena vā saīghādisesena

담마-낭 안냐다레-나 와데이야: 뻘-라-지께-나 와- 상가-디세-세-나

vā pācittiyena vā. nisajjaū bhikkhu pañijānamāno tiḍḍaū

와- 뻘-짖띠예-나 와-. 니삿장 빅쿠 뻘띠자-나마-노- 띠낭

dhammānaū aṅgatarena kàretabbo: pārājikena vā saīghādisesena

담마-낭 안냐따레-나 까-레-똥보:- 뻘-라-지께-나 와- 상가-디세-세-나

vā pācittiyena vā. yena vā sà saddheyyavacasā upāsikā

와- 뻘-짖띠예-나 와-. 예-나 와- 사- 샷데이야와짜사- 우뻘-시까-

vadeyya, tena so bhikkhu kàretabbo. ayaū dhammo aniyato.

와데이야, 떼-나 소- 빅쿠 까-레-똥보-. 아양 담모- 아니야토-.

비구가 ‘성행위가 가능’할 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홀로 한 여성과 함께 앉아있으면 그들을 목격한 신뢰할 만한 여성 재가 신도가 세 가지 범제 ‘①빠라지까, ②상가디세사, ③뻘똥찌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발한다. 비구도 그곳에 앉아있었음을 인정하면 세 가지 범제 ‘①빠라지까, ②상가디세사, ③뻘똥찌야’ 중 어느 하나로 다루어 질 수 있다. 또는 여성 재가 신도가 묘사하는 어떤 경우로 다루어 질 수 있다. 이 경우 확정되지 않은 아니야따 이다.

(19) **아니야따 2.** (Dutiya-aniyata-sikkhāpadam) : 음란한 대화가 가능한 곳

na heva kho pana pañicchannaū àsanaū hoti nālaīkammaniyaū.  
 나 헤-와 코- 빠나 빠똥찬낭 아-사낭 호-띠 날-랑깜마니양.  
 alaṃ-ca kho hoti mātugāmaū duññhullāhi vācāhi obhāsituū.  
 알란 짜 코- 호-띠 마-뚜가-망 똥틀라-히 와-짜-히 오-바-시똥.  
 yo pana bhikkhu tathārāpe àsane mātugāmena saddhiū eko  
 요- 빠나 빅쿠 따타-루-빠- 아-사네- 마-뚜가-메-나 샷딩 에-꼬-  
 ekāya raho nisajjaū kappeyya. tam-enaū saddheyyavacasā  
 에-까-야 라호- 니샷장 깡빠이야. 따메-낭 샷데이야와짜사-  
 upāsikā disvā dvinnaū dhammānaū aṃṃatarena vadeyya  
 우빠-시까- 디스와- 드원낭 담마-낭 안냐따레-나 와데이야  
 saīghādisesena vā pācittiyena vā. nisajjaū bhikkhu pañijānamāno  
 상가-디세-세-나 와- 빠-짚띠예-나 와-. 니샷장 빅쿠 빠띠자-나마-노-  
 dvinnaū dhammānaū aṃṃatarena kàretabbo saīghādisesena  
 드원낭 담마-낭 안냐따레-나 까-레-똥보- 상가-디세-세-나  
 vā pācittiyena vā. yena vā sà saddheyyavacasā upāsikā  
 와- 빠-짚띠예-나 와-. 예-나 와- 사- 샷데이야와짜사- 우빠-시까-  
 vadeyya, tena so bhikkhu kàretabbo. ayam-pi dhammo aniyato.  
 와데이야, 떼-나 소- 빅쿠 까-레-똥보-. 아얌 빠 담모- 아니야또-.

성행위가 가능 할 만큼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한 ‘여성과 음란한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비구가 여성과 홀로 은밀히 앉아 있다. 그들을 목격한 신뢰할 만한 여성 재가 신도는 두 가지 범제 ‘①상가디세사, ②빠짚띠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발한다. 비구도 그 곳에 앉아있었음을 인정하면 두 가지 범제 ‘①상가디세사, ②빠짚띠야’ 중 어느 하나로 다루어 질 수 있다. 또는 여성 재가 신도가 묘사하는 어떤 경우로 다루어 질 수 있다. 이 경우 확정되지 않은 아니야따 이다.

uddiññhà kho àyasmanto dve aniyatà dhammà.

우딤타- 코- 아-야스만또- 드웨- 아니야따- 담마-

스님들이시여, 두 가지 확정되지 않은 ‘아니야따’ 제목을 낭송했습니다.

tatthàyasmante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따타-야스만떼- 뵈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두띠얌삐 뵈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th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따띠얌삐 뵈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parisuddhetthàyasmanto, tasmà tuḍḍhā, evam-etaü dhàrayàmi.

빠리숫뎃타-야스만또-, 따스마- 똥히-, 에-와메-땡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Aniyato niññhito

아니야또- 닛티또-

아니야따를 마쳤습니다.

## 4. 닛삭기야 빠짚띠야 (Nissaggiya pācittiya)

ime kho panāyasmanto tiüsa nissaggiyā pācittiya  
이메- 코- 빠나-야스만토- 락사 닛삭기야- 빠-짚띠야-  
dhammāuddesaü āgacchanti.  
담마-웃데-상 아-갓찬띠.

스님들이시여, 해당 물건을 포기하고 참회하는 30가지 ‘닛삭기야 빠짚띠야’ 제목을 암송하겠습니다.

### (20) 닛삭기야 1. 까티나 1(Paṭhama-kāṭhina-sikkhāpadam) : 여벌가사

niññhitacāvarasmīü bhikkhunā ubbhatasmīü kañhine, dasāhaparamaü  
닛티따찌-와라스밍 빅쿠나- 읍바따스밍 까티네-, 다사-하빠라망  
atirekacāvaraü dhāretabbaü. taü atikkāmayato, nissaggiyaü pācittiyaü.  
아띠레-까찌-와랑 다-레-땡방. 락 아띡까-마야또-, 닛삭기야 빠-짚띠야.

가사가 완료되었고 비구의 까티나 혜택이 다하였다면 그는 여벌의 가사를 최대 10일 까지 지낼 수 있다. 그 이상 지니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 **까티나 혜택 1** : 안거가 끝난 그 다음날부터 5개월 동안은 가사를 결정하지 않고 보관 가능. 까티나 혜택이 끝나면 여벌의 가사를 10일 안에 결정을 해야지만 계속 지낼 수 있다.

### (21) 닛삭기야 2. 까티나 2(Dutiya-kāṭhina-sikkhāpadam) : 가사삼의

niññhitacāvarasmīü bhikkhunā ubbhatasmīü kañhine,  
닛티따찌-와라스밍 빅쿠나- 읍바따스밍 까티네-,  
ekarattam-pi ce bhikkhu ticāvarena vippavaseyya,  
에-까랏땡 빠 제- 빅쿠 락찌-와레-나 읍빠와세이야,  
accātra bhikkhusammutiya, nissaggiyaü pācittiyaü.  
안냐뜨라 빅쿠삼무띠야-, 닛삭기야 빠-짚띠야.

가사가 완료되었고 비구의 까티나 혜택이 다하였을 때, 상가에 승인을 받지 않고 단 하루 밤이라도 가사 삼의로부터 떨어져 머문다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 **까티나 혜택 2** : 안거가 끝난 그 다음날부터 5개월 동안은 가사 삼의로부터 핫타빠사(hatthapāsa, 120~125cm)이상 떨어져 지낼 수 있다.

(2) 닛삭기야 3. 까티나 3(Tatiya-kaṭhina-sikkhāpadam) : 가사천 보관

niññhitacāvarasmīu bhikkhunā ubbhatasmīu kañhine, bhikkhuno  
 다티따찌-와라스밍 빅쿠나- 움바따스밍 까티네-, 빅쿠노-  
 paneva akālacāvaraū uppajjeyya. ākaīkhamānena bhikkhunā  
 빠네-와 아갈-라찌-와랑 움뻗제이야. 아-깐카마-네-나 빅쿠나-  
 pañiggahettabbāu, pañiggahetvā khippam-eva kāretabbāu. no cassa  
 빠딕가헤-딤방, 빠딕가헤-뜨와- 킵빠메-와 가-레-딤방. 노- 짚사  
 pāripāri, māsaparamaū tena bhikkhunā taū cāvaraū  
 빠-리뿌-리, 마-사빠라망 떼-나 빅쿠나- 띨 짜-와랑  
 nikkhipitabbāu ānassa pāripāriyā, satiyā paccāsāya. tato ce  
 닉키빠딤방 우-낫사 빠-리뿌-리야-, 사띠야- 뻗짜-사-야. 따또- 제-  
 uttariū nikkhipeyya, satiyā pi paccāsāya, nissaggiyaū pācittiyaū.  
 웃따링 닉키빠이야, 사띠야- 빠 뻗짜-사-야, 닛삭기야 빠-짖띠야.

가사가 완료되었고 비구의 까티나 혜택이 다하고 나서 ‘때 아닌 가사 천’이 생겼을 때 원하면 받을 수 있다. 비구가 일단 가사 천을 받으면 즉시 그 가사 천으로 가사를 만들어야 한다. 가사 천이 충분하지 않아 부족한 천을 채우고자 할 경우 최대 1달 동안 보관할 수 있다. 1달 이상 보관하게 되면 그 이상의 가사 천을 모아야만 하더라도 해당 가사를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23) 닛삭기야 4. 사용한 가사(뿌라나 짜와라, Purānacivar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aṁṁatikāya bhikkhuniyā purāḍacāvaraū dhovāpeyya  
 요- 빠나 빅쿠 안냐-띠까-야 빅쿠니야- 뿌라-나찌-와랑 도-와-빠이야  
 vā rajāpeyya vā ākoñāpeyya vā, nissaggiyaū pācittiyaū.  
 와- 라자-빠이야 와- 아-꼬-띠-빠이야 와-, 닛삭기야 빠-짖띠야.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1번 이상) 사용한 가사를 세탁이나 염색, 빨래를 시키면 (세탁 된) 해당 가사를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24) 닛삭기야 5. 가사수취(짜와라 빠딕가하나, Cīvara-paṭiggahaṇ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aṁṁatikāya bhikkhuniyā hatthato cāvaraū  
 요- 빠나 빅쿠 안냐-띠까-야 빅쿠니야- 핫타또- 짜-와랑  
 pañiggaḍheyya, aṁṁatra pārivaññakā, nissaggiyaū pācittiyaū.  
 빠딕간헤이야, 안냐뜨라 빠-리왓따까-, 닛삭기야 빠-짖띠야.

가사를 서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부터 가사를 취하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 부록 5. 포살(Uposatha)

### (25) 닛삭기야 6. 친척 아닌 자에 대한 요구(안냐따까 윈냐띠) (Aññātaka-viññatti-sikkhāpadam)

yo pana bhikkhu aṁṁātakaū gahapatiū vā gahapatāniū vā  
 요- 빠나 빅쿠 안냐-따깁 가하빠띃 와- 가하빠따-닝 와-  
 cāvaraū viṁṁāpeyya, aṁṁatra samayā, nissaggiyaū pācittiyaū.  
 짜-와랑 윈냐-빠ैया, 안냐뜨라 사마야-, 닛삭기야 썩-짚띠야.  
 tatthāyaū samayo: acchinnacāvaro vā hoti bhikkhu  
 띃따-양 사마요-: 앓친나짜-와로- 와- 호-띠 빅쿠  
 naññhacāvaro vā - ayaū tattha samayo.  
 나타짜-와로- 와- 아양 띃따 사마요-.

비구가 친척이 아닌 남자나 여성 재가자로부터 가사 천을 요구하여 (받으면)  
 적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천을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적법한 경우는 비  
 구의 가사가 ①도둑맞았거나 ②손상되었을 때이다. 이것이 적법한 경우이다.

### (26) 닛삭기야 7. 보시여분(따똥따리, Tatuttari-sikkhāpadam)

tā-ce aṁṁātako gahapati vā gahapatānā vā bahāhi  
 띃 ce- 안냐-따꼬- 가하빠띠 와- 가하빠따-니- 와- 바후-히  
 cāvarehi abhihaññhuū pavāreyya, santaruttaraparamaū tena  
 짜-와레-히 아비ħ툉 빠와-레이야, 산따룻따라빠라망 떤-나  
 bhikkhunā tato cāvaraū sādītabbāū. tato ce uttariū  
 빅쿠나- 띃또- 짜-와랑 사-디똥방. 띃또- 썰- 웃따링  
 sādīyeyya, nissaggiyaū pācittiyaū.  
 사-디ैया, 닛삭기야 썩-짚띠야.

(가사가 도둑맞았거나 손상되었을 때 가사를 요구해서) 친척이 아닌 남  
 자나 여성 재가자가 비구에게 많은 가사를 보시해도 그는 많아야 위가사  
 와 아래가사만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받으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 (27) 닛삭기야 8. 준비 1(우똥카따, Paṭhama-upakkhaṭa-sikkhāpadam)

bhikkhuū paneva uddissa aṁṁātakassa gahapatissa vā  
 빅쿱 빠네-와 웃딛사 안냐-따갓사 가하빠딛사 와-  
 gahapatāniyā vā cāvaracetāpannaū upakkhaṇāū hoti:  
 가하빠따-니야- 와- 짜-와라썰-따-똥낭 우똥카똥 호-띠:  
 Biminā cāvaracetāpannena cāvaraū cetāpetvā Itthannāmaū  
 “이미나- 짜-와라썰-따-똥네-나 짜-와랑 썰-따-빠-뜨와- 잇탄나-망  
 bhikkhuū cāvarena acchādessāmāū ti. tatra ce so bhikkhu  
 빅쿱 짜-와레-나 앓차-딛사-미-” 띃. 띃뜨라 썰- 소- 빅쿠

#### 4. 닛삭기야 빠짖띠야(Nissaggiya pācittiya)

pubbe appavārito upasaṅkamtivā cāvare vikappaū āpajjeyya:

뽕베- 압빠와-리또- 우빠상까미뜨와- 짜-와레- 위깁빵 아-뽕제이야:

Ṭsādhu vata maū āyasmā iminā cāvaracetāpanna evarāpaū

“사-두 와따 망 아-야스마- 이미나- 짜-와라제-따-빠네-나 에-와루-빵

vā evarāpaū vā cāvaraū cetāpetvā acchādehāū ti.

와- 에-와루-빵 와- 짜-와랑 제-따-빠-뜨와- 앓차-데-히-” 띠.

kalyāṅkamyatāū upādāya, nissaggiyāū pācittiyaū.

갈라-나까야땅 우빠-다-야, 닛삭기야 빠-짖띠야.

‘한명’의 남자나 여성 재가자가 친척이 아닌 비구를 위하여 가사자금을 준비하며 “이 가사자금으로 가사를 구매해서 ‘아무개 비구에게 이 가사를 보시해 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전에 초청 받지 않은 ‘아무개 비구’가 ‘질 좋은 가사’를 바라며 재가자에게 다가가서 “이보오, 당신이 이 가사자금으로 ‘이러 이러한 가사’를 구입해서 나에게 보시하면 정말 좋겠소.”라고 가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여 (받으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28) 닛삭기야 9. 준비 2 (우뽕카따, Dutīya-upakkhaṭa-sikkhāpadam) :

bhikkhū paneva uddissa ubhinnaū aṅṅātakānaū gahapatānaū

빅쿱 빠네-와 웃딛사 우빈낭 안냐-따까-낭 가하빠띠-낭

vā gahapatānānaū vā paccekacāvaracetāpannā upakkhaṇā honti:

와- 가하빠띠-니-낭 와- 뽕제-까찌-와라제-따빠나- 우뽕카따- 혼-띠 :

Ṭimehi mayāū paccekacāvaracetāpannehi paccekacāvarāni

“이메-히 마야 뽕제-까찌-와라제-따-빠네-히 뽕제-까찌-와라-니

cetāpetvā itthannāmaū bhikkhū cāvarehi acchādessāmāū ti.

제-따-빠-뜨와- 잇탄나-망 빅쿱 짜-와레-히 앓차-딛사-마-” 띠.

tatra ce so bhikkhu pubbe appavārito upasaṅkamtivā cāvare

따뜨라 제- 소- 빅쿱 뽕베- 압빠와-리또- 우빠상까미뜨와- 짜-와레-

vikappaū āpajjeyya: Ṭsādhu vata maū āyasmanto imehi

위깁빵 아-뽕제이야: “사두 와따 망 아-야스만토- 이메-히

paccekacāvaracetāpannehi evarāpaū vā evarāpaū vā cāvaraū

뽕제-까찌-와라제-따-빠네-히 에-와루-빵 와- 에-와루-빵 와- 짜-와랑

cetāpetvā acchādeṭha ubho va santā ekenāū ti.

제-따-빠-뜨와- 앓차-데-타 우보- 와 산따- 에-께-나-” 띠.

kalyāṅkamyatāū upādāya, nissaggiyāū pācittiyaū.

갈라-나까야땅 우빠-다-야, 닛삭기야 빠-짖띠야.

부록 5. 포살(Uposatha)

‘두 명’의 남자나 여성 재가자가 친척이 아닌 비구를 위하여 가사자금을 준비하며 “우리 각자의 가사자금으로 각각 가사를 구매해서 ‘아무개 비구’에게 보시하자”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전에 초청 받지 않은 ‘아무개 비구’가 ‘질 좋은 가사’를 바라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여보시오들, 각자의 두 개 가사자금을 합하여 ‘이러 이러한 한 벌의 가사’를 구입하여 나에게 가사를 보시하면 정말 좋겠소.”라고 가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여 (받으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29) **닛삭기야 10. 왕**(라자, Rāja-sikkhāpadam) : 돈 보시

bhikkhuū paneva uddissa rājā vā rājabhoggo vā brāhmaḍo  
빅쿱 빠네-와 웃딧사 라-자- 와- 라-자복-고- 와- 브라-흐마노-  
vā gahapatiko vā dātena cāvaracetāpannāū pahīḍeyya:  
와- 가하빠띠꼬- 와- 두-떼-나 짜-와라제-따-뻥낭 빠히네이야:  
Biminā cāvaracetāpanena cāvarāū cetāpetvā itthannāmaū  
“이미나- 짜-와라제-따-빠네-나 짜-와랑 제-따-빠-뜨와- 잇탄나-망  
bhikkhuū cāvarena acchādehāū ti. so ce dāto taū bhikkhuū  
빅쿱 짜-와레-나 앗차-데-히-” 띠. 소- 제- 두-뜨- 땅 빅쿱  
upasaīkamtivā evāū vadeyya: Bidaū kho bhante āyasmantaū  
우빠상까미뜨와- 에-왕 와데이야: “이당 코- 반떼- 아-야스만땅  
uddissa cāvaracetāpannāū ābhataū, pañiggaḍhātu āyasmā  
웃딧사 짜-와라제-따-뻥낭 아-바땅, 빠딧간하-뚜 아-야스마-  
cāvaracetāpannanū-ti. tena bhikkhunā so dāto evam-assa  
짜-와라제-따-뻥낭” 띠. 떼-나 빅쿠나- 소- 두-뜨- 에-와맛사  
vacanāyo: Bna kho mayaū āvuso cāvaracetāpannāū pañiggaḍhāma  
와짜니-요-: “나 코- 마양 아-우소- 짜-와라제-따-뻥낭 빠딧간하-마  
cāvaraḍ-ca kho mayaū pañiggaḍhāma kālena kappiyanū-ti.  
짜-와란 짜 코- 마양 빠딧간하-마 깔-레-나 깡빠얀” 띠.  
so ce dāto taū bhikkhuū evāū vadeyya: Batthi panāyasmato  
소- 제- 두-뜨- 땅 빅쿱 에-왕 와데이야: “앗티 빠나-야스마또  
koci veyyāvaccakaroū ti. cāvaratthikena bhikkhave bhikkhunā  
꼬-짜 웨이야-왓짜까로-” 띠. 짜-와랏티께-나 빅카웨- 빅쿠나-  
veyyāvaccakaro niddisitabbo ārāmiko vā upāsako vā:  
웨이야-왓짜까로- 닛디시 tappo- 아-라-미꼬- 와- 우빠-사꼬- 와-:  
Beso kho āvuso bhikkhānāū veyyāvaccakaroū ti.  
에-소- 코- 아-우소- 빅쿠-낭 웨이야-왓짜까로-” 띠.  
so ce dāto taū veyyāvaccakaraū saḍḍāpetvā taū bhikkhuū  
소- 제- 두-뜨- 땅 웨이야-왓짜까랑 산나-빠-뜨와- 땅 빅쿱

#### 4. 닛삭기야 빠짖띠야(Nissaggiya pācittiya)

upasaṅkamtivā evaü vadeyya: Byaü kho bhante āyasmā  
우빠상까미뜨와- 에-왕 와데이야: “양 코- 반테- 아-야스마-  
veyyāvaccakaraü niddisi, saṁatto so mayā. upasaṅkamatu  
웨이야-왓짜까랑 닛디시, 산낫또- 소- 마야-. 우빠상까마뚜  
āyasmā kàlena, cāvarena taü acchādessatāü ti. cāvaratthikena  
아-야스마- 깔-레-나, 짜-와레-나 땅 앓차-뎛사띠-” 띠. 짜-와랏띠께-나  
bhikkhave bhikkhunā veyyāvaccakaro upasaṅkamtivā dvattikkhattuü  
빅카웨- 빅쿠나- 웨이야-왓짜까로- 우빠상까미뜨와- 드왓딕캇똥  
codetabbo sàretabbo: Battho me āvuso cāvarenāü ti.  
쫘-데-뎛보- 사-레-뎛보-: “앗토- 메- 아-우소- 짜-와레-나-” 띠.  
dvattikkhattuü codayamāno sàrayamāno taü cāvaraü  
드왓딕캇똥 쫘-다야마-노- 사-라야마-노- 땅 짜-와랑  
abhinipphādeyya, iccetaü kusalaü. no ce abhinipphādeyya,  
아비닙파-데이야, 잇째-땅 꾸살랑. 노- 제- 아비닙파-데이야,  
catukkhattuü paṁcakkhattuü chakkhattuparamaü  
짜똥캇똥 뽀짜캇똥 착캇뚜빠라망  
tuḍhābhātena uddissa ñhàtabbaü. catukkhattuü paṁcakkhattuü  
똥히-부-떼-나 웃딛사 타-뎛방. 짜똥캇똥 뽀짜캇똥  
chakkhattuparamaü tuḍhābhāto uddissa tiññhamāno taü  
착캇뚜빠라망 똥히-부-또- 웃딛사 띠타마-노- 땅  
cāvaraü abhinipphādeyya, iccetaü kusalaü. tato ce uttariü  
짜-와랑 아비닙파-데이야, 잇째-땅 꾸살랑. 따또- 제- 웃따링  
vāyamamāno taü cāvaraü abhinipphādeyya, nissaggiyaü  
와-야마마-노- 땅 짜-와랑 아비닙파-데이야, 닛삭기야  
pācittiyaü. no ce abhinipphādeyya, yatassa cāvaracetāpannaü  
빠-짖띠양. 노- 제- 아비닙파-데이야, 야뎛사 짜-와라째-따뽀냥  
ābhataü tattha sāmāü vā gantabbaü dāto vā pāhetabbo:  
아-바땅 뎛타 사-망 와- 간뎛방 두-또- 와- 빠-헤-뎛보-:  
Byaü kho tumhe āyasmanto bhikkhuü uddissa  
“양 코- 똥헤- 아-야스만또- 빅쿱 웃딛사  
cāvaracetāpannaü pahiṭṭha, na taü tassa bhikkhuno  
짜-와라째-따-뽀냥 빠히닛타, 나 땅 뎛사 빅쿠노-  
kiñci atthaü anubhoti, yuṁjantāyasmanto sakaü,  
끼찌 앓탕 아누보-띠, 윤잔따-야스만또- 사깡,  
mā vo sakaü vinassāü ti. ayaü tattha sāmāci.  
마- 워- 사깡 워닛사-” 띠. 아양 뎛타 사-미-찌.

왕, 왕실 관리, 브라만이나 재가자가 전달자를 통해서 비구에게 가사자금(돈)을 보내며 말한다. “이 가사자금(돈)으로 가사(필수품)를 구입해서 아무개 비구에게 가사(필수품)를 보시해라.” 전달자가 아무개 비구에게 다가가서 “이것은 스님에게 보시된 가사자금(돈)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가사자금(돈)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러면 비구는 전달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여보시오, 비구는 가사자금(돈)은 받지 않습니다. 적절할 시기에 가사(필수품)를 받습니다.” 전달자가 비구에게 “스님은 캄삐야가 있습니까?”라고 묻는 경우 가사(필수품)를 원한다면 “여보시오, 아무개가 나의 캄삐야입니다.”라고 ‘절에서 시중드는 사람이나 재가신도’를 캄삐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달자가 캄삐야에게 지시하고 비구에게 가서 “제가 스님이 지정해준 캄삐야에게 지시해 놓았습니다. 스님께서 캄삐야에게 가시면 적절한 시기에 가사(필수품)를 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가사(필수품)가 필요하면 비구는 캄삐야에게 가서 2번이나 3번까지 “나는 가사(필수품)가 필요하다.” 라며 재촉하고 일깨워줄 수 있다. 2번이나 3번까지 재촉하고 일깨워 준 후 캄삐야가 가사(필수품)를 주면 좋지만 가사(필수품)를 주지 않으면 비구는 최대 4번, 5번, 6번까지 일깨워 줄 목적으로 침묵하며 그 앞에 서있을 수 있다. 비구가 최대 4번, 5번, 6번까지 일깨워 줄 목적으로 침묵하며 그 앞에 서있고 나서 캄삐야가 가사(필수품)를 준다면 좋지만 가사(필수품)를 주지 않아서 그 이상 시도한 후에 가사(필수품)를 받으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캄삐야가 가사(필수품)를 주지 않는다면 비구는 가사 자금(돈)을 보시했거나 전달자를 보냈던 곳에 직접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께서 저를 위해 보낸 가사 자금(돈)이 아직까지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보시한 것을 가져가십시오. 당신께서 보시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적법한 절차이다.

Cāvaravaggo pañhamo  
 씨-와라왓고- 빠타모-  
 첫 번째 가사 품

(30) **닛삭기야 11. 비단**(꼬시야, Kosiya-sikkhāpadam) : 비단 섞인 응단

yo pana bhikkhu kosiyaṃmissakaū santhataū kārāpeyya,  
 요- 빠나 빅쿠 꼬-시야밋사깁 산타땅 까-라-삐이야,  
 nissaggiyaū pācittiyāū.  
 닷삭기야 양 빠-짚띠야 양.

비구가 비단이 섞인 혼합물로 만든 응단(산타따, santhata)을 받으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31) 닛삭기야 12. 순혹색(숫다갈라까, Suddhakāḷaka-sikkhāpadam) :** 용단 색

yo pana bhikkhu suddhakāḷakānaū eēakalomānaū  
 요- 빠나 빅쿠 숫다갈-라까-낭 엘-라갈로-마-낭  
 santhataū kārāpeyya, nissaggiyaū pācittiyaū.  
 산타땅 까-라-빼이야 닛삭기야 빠-짚띠야

비구가 순 혹색의 양모로 된 용단(산타땅)을 받으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32) 닛삭기야 13. 2분의 1(드웨바가, Dvebhāga-sikkhāpadam) :** 용단 비을

navaū pana bhikkhunā santhataū kārāyamānena dve bhāgā  
 나왕 빠나 빅쿠나- 산타땅 까-라야마-네-나 드웨- 바-가-  
 suddhakāḷakānaū eēakalomānaū ādātābbā, tatiyaū odātānaū  
 숫다갈-라까-낭 엘-라갈로-마-낭 아-다-땀바-, 띠띠야 오-다-띠-낭  
 catutthaū gocariyānaū. anāda ce bhikkhu dve bhāge  
 짜뚫탕 고-짜리아-낭. 아나-다- 째- 빅쿠 드웨- 바-게-  
 suddhakāḷakānaū eēakalomānaū tatiyaū odātānaūcatutthaū  
 숫다갈-라까-낭 엘-라갈로-마-낭 띠띠야 오-다-띠-낭 짜뚫탕  
 gocariyānaū navaū santhataū kārāpeyya, nissaggiyaū pācittiyaū.  
 고-짜리아-낭 나왕 산타땅 까-라-빼이야, 닛삭기야 빠-짚띠야.

비구가 새로운 용단(산타땅)을 만들 때 순 혹색 양모의 절반은 흰색 1/3, 갈색 1/4 을 혼합해야 한다. 비구가 순혹색 양모의 절반을 흰색 1/3, 갈색 1/4 을 혼합하지 않고 새로운 용단을 지니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33) 닛삭기야 14. 6년(잡밧사, Chabbassa sikkhāpadam) :** 용단 사용연수

navaū pana bhikkhunā santhataū kārāpetvā chabbassāni  
 나왕 빠나 빅쿠나- 산타땅 까-라-빼-뜨와- 잡밧사-니  
 dhāretābbāū. orena ce channaū vassānaū taū santhataū  
 다-레-땀방. 오-레-나 째- 찬낭 왓사-낭 땅 산타땅  
 vissajjetvā vā avissajjetvā vā aṁṁaū navaū santhataū  
 윗삿제-뜨와- 와- 아윗삿제-뜨와- 와- 안낭 나왕 산타땅  
 kārāpeyya, aṁṁatra bhikkhusammutiyā, nissaggiyaū pācittiyaū.  
 까-라-빼이야, 안냐뜨라 빅쿠삼무띠야-, 닛삭기야 빠-짚띠야.

비구가 새로 용단(산타땅)을 만들었다면 최소 6년간 지니야 한다. ‘상가에 승인을 받지 않고’ 6년이 안되어 다른 새로운 용단을 만들면 처음 것을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지 않았거나 관계없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부록 5. 포살(Uposatha)**

**(34) 닛삭기야 15. 깔개용 융단(니시다나 산타따, Nisidana-santhata-sikkhāpadam)**

nisādanasanthataūpana bhikkhunà kàrayamānena purāḍasanthatassa  
니시-다나산타땅빠나 빅쿠나- 까-라야마-네-나 뿌라-나산타땃사  
sāmantā sugatavidatthā ādatabbā dubbaḍḍakaraḍḍaya, anāḍā  
사-만따- 수가따위땃티- 아-다-땃바- 둑반나까라나-야, 아나-다-  
ce bhikkhu purāḍasanthatassa sāmantā sugatavidatthiū navau  
제- 빅쿠 뿌라-나산타땃사 사-만따- 수가따위땃팅 나왕  
nisādanasanthataū kārāpeyya, nissaggiyaū pācittiyaū.  
니시-다나산타땅 까-라-빠이야, 닛삭기야 빠-짚띠양.

비구가 '깔개로 사용할 융단(산타따)'을 만들 때 각 면에 부처님 손 뺨 (25cm/60cm)만큼 넓은 융단조각을 색깔이 바래도록 덧대어야 한다. 만약 각 면에 부처님 손 뺨만큼 넓은 융단조각을 덧대지 않고 깔개로 사용할 새로운 융단을 만들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BMC/MB)

**(35) 닛삭기야 16. 양모(엘라갈로마, Eḷaka-loma-sikkhāpadam)**

bhikkhuno pana addhānamaggappañipannassa eēakalomāni  
빅쿠노- 빠네-와 앓다-나막갑빠띠뻥낫사 엘-라갈로-마-니  
uppajjeyyū. ākaikhamānena bhikkhunā pañiggahetabbāni.  
웁뻥제이웁. 아-깡카마-네-나 빅쿠나- 빠땃가헤-땃바-니.  
pañiggahetvā tiyojanaparamaū sahatthā haritabbāni, asante hārake.  
빠땃가헤-뜨와- 띠요-자나빠라망 사חת타- 하리땃바-니, 아산떼- 하-라께-  
tato ce uttariū hareyya asante pi hārake, nissaggiyaū pācittiyaū.  
따또- 제- 웃따링 하레이야 아산떼- 빠 하-라께-, 닛삭기야 빠-짚띠양.

여행하는 중에 비구에게 양모가 생기면 원한다면 받을 수 있다. 일단 받으면, 양모를 운반해 줄 사람이 없을 경우 최대 3 요자나(48 km/걸어서 3일)까지 손수 지니고 다닐 수 있다. 운반해 주는 사람도 없이 그 보다 멀리 양모를 지니고 다닌다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BMC/MB)

**(36) 닛삭기야 17. 양모 세탁(엘라갈로마 도와빠나, Eḷakaloma-dhovāpa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aṅṅatikāya bhikkhuniyā eēakalomāni dhovāpeyya  
요- 빠나 빅쿠 안냐-띠까-야 빅쿠니야- 엘-라갈로-마-니 도-와-빠이야  
vā rajāpeyya vā vijañāpeyya vā, nissaggiyaū pācittiyaū.  
와- 라자-빠이야 와- 위자따-빠이야 와-, 닛삭기야 빠-짚띠양.

비구는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양모를 세탁, 염색, 빗질을 시키면 해당 양모를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37) 닛삭기야 18. 금전(루삐야, Rūpiy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jātarāparajataū uggaḍheyya vā uggaḍhāpeyya  
요- 빠나 빅쿠 자-따루-빠라자따 옥간헤이야 와- 옥간하-삐이야  
vā upanikkhittaū vā sādīyeyya, nissaggiyaū pācittiyaū.  
와- 우빠닉킷따 와- 사-디에이야, 닛삭기야 빠-짖띠야.

비구가 금전을 지니거나 받거나 가까이에 두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38) 닛삭기야 19. 금전 거래(루삐야 삼위하라, Rūpiya-saṃvohār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nānappakārakaū rāpiyasaūvohāraū  
요- 빠나 빅쿠 나-납빠까-라강 루-삐야삼위-하-랑  
samāpajjeyya, nissaggiyaū pācittiyaū.  
사마-삐제이야, 닛삭기야 빠짖띠야.

비구가 여러 가지 금전 거래에 관제하면 해당 이익을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39) 닛삭기야 20. 물물거래(까야웁까야, Kayavikkay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nānappakārakaū kayavikkayaū  
요- 빠나 빅쿠 나-납빠까-라강 까야웁까야  
samāpajjeyya, nissaggiyaū pācittiyaū.  
사마-삐제이야, 닛삭기야 빠-짖띠야.

비구가 여러 가지 물물거래에 관제하면 해당 물건을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Kosiyavaggo dutiyo  
꼬-시야웁고- 두띠요-  
두 번째 비단 품

(40) 닛삭기야 21. 발우(삐따, Patta-sikkhāpadam)

dasāhaparamaū atirekapatto dhāretabbo. taū atikkāmayato,  
다사-하빠라망 아띠레-까삐또- 다-레-따보-. 띠 아띠까-마야또-,  
nissaggiyaū pācittiyaū.  
닛삭기야 빠-짖띠야.

여벌의 발우는 최대 10일까지 지닐 수 있고 그 이상 지니면 해당 발우를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부록 5. 포살(Uposatha)**

**(41) 닛삭기야 22. 최소 5군데 수선(우나 뽀짜 반다나)**  
(ūna-pañca-bandha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ānapaṇṇacabandhanena pattena aṇṇaū  
 요- 빠나 빅쿠 우-나뽀짜반다네-나 뽀떼-나 안냥  
 navaū pattaū cetāpeyya, nissaggiyaū pācittiyaū.  
 나왕 뽀땅 째-따뽀ैया, 닛삭기야 뽀짚띠야.  
 tena bhikkhunā so patto bhikkhuparisāya nissajitabbo.  
 떼-나 빅쿠나- 소- 뽀또- 빅쿠빠리사-야 닛사지뽀보-.  
 yo ca tassā bhikkhuparisāya pattapariyanto, so tassa  
 요- 짜 뽀사- 빅쿠빠리사-야 뽀따빠리안또-, 소- 뽀사  
 bhikkhuno padātabbo: Bayaū te bhikkhu patto, yava  
 빅쿠노- 빠다-뽀보-: “아양 떼- 빅쿠 뽀또-, 야-와  
 bhedanāya dhāretabboū ti. ayaū tattha sāmāci.  
 베-다나-야 다-레-뽀보-” 띠. 아양 뽀타 사-미-찌.

최소 5군데 수선하지 않은 발우를 가진 비구가 다른 새로운 발우를 요구하면 해당 발우를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비구는 그 발우를 상가 대중에게 포기해야 한다. 상가 대중은 마지막 발우를 그 비구에게 주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비구여 이것이 당신의 발우이다. 이 발우가 깨질 때까지 지녀야 한다.” 이것이 적법한 절차이다.

**(42) 닛삭기야 23. 강장약(베삿자, Bhesajja sikkhāpadam : 7일 보관 가능)**

yāni kho pana tāni gilānānaū bhikkhānaū pañisāyanāyāni  
 야-니 코- 빠나 따-니 길라-나-냥 빅쿠-냥 빠띠사-야니-야-니  
 bhesajjāni, seyyathādaū: sappi, navanātaū, telaū, madhu,  
 베-삿자-니, 세이야티-당: 삼삐, 나와니-땅, 띠-랑, 마두,  
 phāḍitaū tāni pañiggahetvā sattāhaparamaū sannidhikārakaū  
 파-니땅 따-니 빠딕가헤-뜨와- 삿타-하빠라망 산니디까-라깡  
 paribhuḍḍitabbāni. taū atikkāmayato, nissaggiyaū pācittiyaū.  
 빠리분지뽀바-니. 땅 아딕까-마야또- 닛삭기야 뽀-짚띠야.

아픈 비구가 복용할 수 있는 강장약들은 다음과 같다. ①기(우유기름), ②생 버터, ③기름, ④꿀, ⑤설랑(당밀). 이 강장약들은 받아서 최대 7일간 보관 하며 사용할 수 있다. 7일을 넘으면 해당 물건을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43) 닛삭기야 24. 목욕가사(왓시까사띠까, Vassikasāṭhika-sikkhāpadam)

Ḭmāso seso gimhānanū-ti: bhikkhunā vassikasāṭhikacāvaraū  
 “마-소- 세-소- 김하-난” 띠: 빅쿠나- 왓시까사-띠까찌-와랑  
 pariyesitabbaū. Ḭaddhamāso seso gimhānanū-ti: katvā  
 빠리에-시답방. “앗다마-소- 세-소- 김하-난” 띠: 까뜨와-  
 nivāsetabbaū. Ḭorena ce māsō seso gimhānanū-ti:  
 니와-세-답방. “오-레-나 쩌- 마-소- 세-소- 김하-난” 띠:  
 vassikasāṭhikacāvaraū pariyeseyya. Ḭorenaddhamāso seso  
 왓시까사-띠까찌-와랑 빠리에세이야. 오-레-낫다마-소- 세-소-  
 gimhānanū-ti: katvā nivāseyya, nissaggiyaū pācittiyaū.  
 김하-난” 띠: 까뜨와- 니와-세이야, 닛삭기야 빠-짖띠야.

여름철이 1달 남았을 때 비구는 목욕가사를 구해도 되고 여름철이 반달 남았을 때 목욕가사를 만들어서 입을 수 있다. 여름철이 1달 더 남았는데 목욕가사를 구하거나 여름철이 반달 더 남았는데 목욕가사를 만들어서 입었다면 해당 가사를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44) 닛삭기야 25.가사첼희(찌와라 앓친다나, Cīvara-acchinda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ssa sāmāū cāvaraū datvā kupito anattamano  
 요- 빠나 빅쿠 빅쿣사 사-망 찌-와랑 다뜨와- 꾸빠또- 야낫따마노-  
 acchindeyya vā acchindāpeyya vā, nissaggiyaū pācittiyaū.  
 앓친데이야 와- 앓친다-빠이야 와-, 닛삭기야 빠-짖띠야.

어떤 비구가 스스로 다른 비구에게 가사를 주고 나서 화가 나고 기분이 언짢아져서 가사를 다시 빼앗거나 빼앗도록 시키면 해당 가사를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45) 닛삭기야 26. 실 요청(숫따 윈낫띠, Sutta-viññatti-sikkhāpadam)

yo pana bhikkhu sāmāū suttaū viññāpetvā tantavāyehi  
 요- 빠나 빅쿠 사-망 숫땅 윈냐-빠-뜨와- 띤따와-예-히  
 cāvaraū vāyāpeyya, nissaggiyaū pācittiyaū.  
 찌-와랑 와-야-빠이야, 닛삭기야 빠-짖띠야.

비구가 ①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실을 요청하여 ②(얼은 실로) 직조공에게 가사를 짜도록 시키면 해당 물건을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46) **닛삭기야 27. 직조공**(마하빠사까라, Mahāpesakāra-sikkhāpadam)

bhikkhuū paneva uddissa aṃṃātako gahapati vā gahapatānā  
 빅쿱      빠네-와 웃딛사 안냐-따꼬- 가하빠띠 와- 가하빠따-니-  
 vā tantavāyehi cāvaraū vāyāpeyya. tatra ce so bhikkhu  
 와- 탄따와-에-히 짜-와랑 와-야-빠이야. 따뜨라 쩌- 소- 빅쿠  
 pubbe appavārito tantavāye upasaṃkamtivā cāvare vikappaū  
 뽕베- 압빠와-리또- 탄따와-에- 우빠상까미뜨와- 짜-와레- 위깁뽕  
 āpajjeyya: Bidaū kho āvuso cāvaraū maū uddissa viyyati  
 아-뽕제이야: “이당 코- 아-우소- 짜-와랑 망 웃딛사 위이야띠  
 āyataṃ-ca karotha, vitthataṃ-ca, appitaṃ-ca, suvātaṃ-ca,  
 아-야탄 짜 까로-타, 윗타탄 짜, 압빠탄 짜, 수위-탄 짜,  
 supavāyitaṃ-ca, suvilekhitaṃ-ca, suvitacchitaṃ-ca karotha;  
 슝빠와-이탄 짜, 수월레-기탄 짜, 수위땃치탄 짜 까로-타;  
 appeva nāma mayam-pi āyasmantānaū kiṃcimattaū  
 압빠와 나-마 마얌 뽕 아-야스만따-냥 낀찌맛땃  
 anupadajjeyyāmāu ti. evaṃ-ca so bhikkhu vatvā kiṃcimattaū  
 아누빠땃제이야-마-” 띠. 에-완 짜 소- 빅쿠 와뜨와- 낀찌맛땃  
 anupadajjeyya antamaso piṭṭhāpātamattam-pi, nissaggiyaū pācittiyaū.  
 아누빠땃제이야 안따마소- 뽕다빠-따맛땃 뽕, 닛삭기야 뽕-짖띠얌.

친척이 아닌 남자나 여성 재가자가 직조공에게 한 비구를 위해 가사를 짜도록 시켰는데 재가자에게 사전 초청을 받지 않은 그 비구가 (이를 알고) 직조공에게 다가가 가사에 관하여 요구사항을 말한다. “여보시오, 이 가사는 나를 위해 짜는 것이요. 이 가사는 길고 넓고 촘촘하게 만들어 잘 짜고 펴고 문질러서 부드럽고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내가 조금이나마 당신에게 사례하겠소.” 그리고 나서 그 비구가 비록 탁발 음식이라도 조금이나마 직조공에게 사례하여 (나중에 그 가사를 받게 되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47) **닛삭기야 28. 급히 보시되는 가사**(앗째까 짜와라, Acceka-cīvara-sikkhāpadam)

dasāhānāgataū kattikatemāsikapuṭṭhamaū, bhikkhuno paneva  
 다사-하-나-가땃 갓띠까떼-마-시까뿐나망, 빅쿠노- 빠네-와  
 accekacāvaraūppajjeyya, accekaū maṃṃamānena bhikkhunā  
 앗째-까짜-와라뽕뽕제이야, 앗째-깡 만나마-네-나 빅쿠나-  
 paṇiggahettabbāū. paṇiggahetvā yāva cāvarakālasamayaū  
 빠딛가헤-땃방. 빠딛가헤-뜨와- 야-와 짜-와라깁-라사마얌  
 nikkhipitabbāū. tato ce uttariū nikkhipeyya, nissaggiyaū pācittiyaū.  
 닛키빠땃방. 따또- 쩌- 웃따링 닛키빠이야, 닛삭기야 뽕-짖띠얌.

#### 4. 닛삭기야 빠짚띠야(Nissaggiya pācittiya)

우기 3개월 찻띠까(10월) 보름이 끝나기 10일 전에 가사가 비구에게 급히 보시되어 생긴다면 급히 보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가사를 받아야 한다. 일단 그 가사를 받았다면 그는 가사 철(안거 후 1달, 까티나 혜택이 있으면 안거 후 5달) 동안 계속 그것을 보관할 수 있다. 그 이상 보관하면 해당 가사를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 (48) 닛삭기야 29. 위험한 곳(사상카, Sāsaṅkha-sikkhāpadam) : 마을에 가사 보관

upavassaū kho pana kattikapuḍḍamaū yaṇi kho pana tāni  
 우빠와상 코- 빠나 깃띠까뽀나망 야-니 코- 빠나 띠-니  
 āraṁṁakāni senāsanāni sāsaṅkasammatāni sappañibhayāni,  
 아-란냐까-니 세-나-사나-니 사-상까삼마띠-니 삼빠띠바야-니,  
 tathārāpesu bhikkhu senānesu viharanto ākaikhamāno  
 띠타-루-빠-수 빅쿠 세-나-사네-수 위하란또- 아-간카마-노-  
 tiḍḍaū cāvaraṇaū aṁṁataraū cāvaraū antaraghare nikkhipeyya.  
 띠ṇṇ 짜-와라-낭 안냐따랑 짜-와랑 안따라가레- 닉키빠이야.  
 siyā ca tassa bhikkhuno kocid-eva paccayo tena cāvarena  
 시야- 짜 땃사 빅쿠노- 꼬-찌데-와 뽃짜요- 떼-나 짜-와레-나  
 vippavāsāya, chārataparamaū tena bhikkhunā tena  
 윽빠와-사-야, 차-랏따빠라망 떼-나 빅쿠나- 떼-나  
 cāvarena vippavasitabbaū. tato ce uttariū vippavaseyya,  
 짜-와레-나 윽빠와시땃방 따또- 째- 윽따링 윽빠와세이야,  
 aṁṁatra bhikkhusammutiyā, nissaggiyaū pācittiyaū.  
 안나뜨라 빅쿠삼무띠야-, 닛삭기야 빠-짚띠야.

불안하고 위험하게 여겨지는 숲속 거처가 있다. 그런 거처에 살고 있는 비구가 찻띠까 보름이 지난 후(까티나 기간 : 안거 후 약 1달)에 원한다면 마을에 가사 삼의 중 하나를 보관 할 수 있다. 그 가사로부터 떨어져 지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면 최대 6일 밤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다. 상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보다 오래 가사와 떨어져 지내면 해당 가사를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 (49) 닛삭기야 30. 전용(빠리나따, Pariṇata-sikkhāpadam) : 이익을 자신에게 전환

yo pana bhikkhu jānaū saṅghikaū lābhaū pariḍataū  
 요- 빠나 빅쿠 자-낭 상기깡 라-방 빠리나따  
 attano pariḍāmeyya, nissaggiyaū pācittiyaū.  
 앗따노- 빠리나-메이야, 닛삭기야 빠-짚띠야.

비구가 상가에 보시될 예정이었던 이익을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돌리면 해당 이익을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부록 5. 포살(Uposatha)**

Pattavaggo tatiyo

빳따왝고- 따띠요-

세 번째 발우 품

uddiññhà kho àyasmanto tiüsa nissaggiyà pàcittiyà dhammà.

웃딛타- 코- 아-야스만또- 띠사 닛삭기야- 빠-짚띠야- 담마-

스님들이시여, 30가지 ‘닛삭기야 빠짚띠야’ 제목을 낭송했습니다.

tatthàyasmante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따타-야스만떼- 뵗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두띠얌삐 뵗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th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따띠얌삐 뵗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parisuddhetthàyasmanto, tasmà tuõhã, evam-etaü dhàrayàmi.

빠리숫딛타-야스만또-, 따스마- 툄히-, 에-와메-땡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Nissaggiyapàcittiyà niññhità

닛삭기야빠-짚띠야- 닛띠따-

닛삭기야 빠짚띠야를 마쳤습니다.

## 5. 슷다 빠짚띠야 (Suddha pācittiya)

ime kho panāyasmanto dvenavuti pācittiyā dhammā uddesaū āgacchanti.

이메- 코- 빠나-야스만토- 드웨-나우띠 빠-짚띠야- 담마- 윗데-상 아-갓찬띠.

스님들이시여, 92가지 참회해야 하는 ‘빠짚띠야’ 제목을 암송하겠습니다.

### (50) 빠짚띠야 1. 거짓말(무사와다, Musāvāda-sikkhāpadam)

sampajānamusāvāde, pācittiyā.

삼빠자-나무사-와-데-, 빠-짚띠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참회해야 한다.

### (51) 빠짚띠야 2. 모욕(오마사와다, Omasavāda-sikkhāpadam)

omasavāde, pācittiyā.

오-마사와-데-, 빠-짚띠야.

모욕하면 참회해야 한다.

### (52) 빠짚띠야 3. 이간질(삐순나, Pesuñña-sikkhāpadam)

bhikkhupesunnā, pācittiyā.

빅쿠삐-순네-, 빠-짚띠야.

비구들 사이에 악의적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참회해야 한다.

### (53) 빠짚띠야 4. 담마 암송(빠다소담마, Padasodhamm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anupasampannā padaso

요- 빠나 빅쿠 아누빠삼판낭 빠다소-

dhammā vāceyya, pācittiyā.

담망 와-제이야, 빠-짚띠야.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사미, 재가자 등)과 함께 한 줄 한 줄

## 부록 5. 포살(Uposatha)

담마를 암송하면 참회해야 한다.

### (54) 빠젓띠야 5. 동속 1(사하세이야, Sahaseyy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anupasampanna uttariü  
요- 빠나 빅쿠 아누빠삼빠넨-나 웃따링  
dirattatirattaü saha seyyaü kappeyya, pàcittiyaü.  
디랏따띠랏따 샤후 세이양 깎빠이야, 빠-찢띠양.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거처에서 2일이나 3일 밤 이상 계속해서 누우면 참회해야 한다.

### (55) 빠젓띠야 6. 동속 2(사하세이야, Dutiya-sahaseyy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mātugāmena saha seyyaü kappeyya, pàcittiyaü.  
요- 빠나 빅쿠 마-뚜가-메-나 샤후 세이양 깎빠이야, 빠-찢띠양

비구가 여성과 같은 거처에서 누우면 참회해야 한다.

### (56) 빠젓띠야 7. 설법(담마테사나, Dhammadesanā-sikkhāpadam)

yo pana bhikkhu mātugāmassa uttariü chappaccavācāhi  
요- 빠나 빅쿠 마-뚜가-맛사 웃따링 찡빠짜와-짜-히  
dhammaü deseyya, accātra viāunā purisaviggahena, pàcittiyaü.  
담맘 데-세이야, 안냐뜨라 윈뉴나- 뿌리사웁가헤-나, 빠-찢띠양.

비구가 여성에게 (빨리어를) 이해하는 남자가 함께 있지 않은데 (빨리어로 된) 담마를 5 또는 6구절 이상 가르치면 참회해야 한다.

### (57) 빠젓띠야 8. 실제 성취 알림(부따 로짜나, Bhūtā-roca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anupasampanna uttarimanussadhammaü  
요- 빠나 빅쿠 아누빠삼빠넨사 웃따리마눗사담맘  
āroceyya bhātsmiü, pàcittiyaü.  
아-로-쩌이야 부-따스밍, 빠-찢띠양.

비구가 실제로 얻은 초인의 상태를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알리면 참회해야 한다.

### (58) 빠젓띠야 9. 중범계 알림(두툴라 로짜나, Dutṭhullā-roca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ssa duññhullaü āpattiü anupasampanna  
요- 빠나 빅쿠 빅쿿사 두툴랑 아-뵤땡 아누빠삼빠넨사  
āroceyya, accātra bhikkhusammutiyā, pàcittiyaü.  
아-로-쩌이야, 안냐뜨라, 빅쿠삼무띠야-, 빠-찢띠양.

비구가 다른 비구의 중대한 범계(상가디세사)를 상가의 승인 없이 구족

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알리면 참회해야 한다.

**(50) 빠짖띠야 10. 땅 파기**(빠타위 카나나, Pathavi-khaṇa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pañhaviü khaḍeyya vā khaḍāpeyya vā, pācittiyāü.

요- 빠나 빅쿠 빠타윙 카네이야 와- 카나-빠이야 와- 빠-짖띠양

비구가 흙을 파거나 (직접) 파내도록 시키면 참회해야 한다.

Musāvādavaggo pañhamo

무사-와-다-왓고- 빠타모-

첫 번째 거짓말 품

**(60) 빠짖띠야 11. 식물**(부따가마, Bhūtagāma-sikkhāpadam)

bhātagāmapātavyatāya, pācittiyāü.

부-따가-마빠-따위야따-야, 빠-짖띠양.

살아있는 식물을 손상시키면 참회해야 한다.

**(61) 빠짖띠야 12. 다른 담변**(안나와다가, Aññavādaka-sikkhāpadam)

amāvādake vihesake, pācittiyāü.

안나와-다께- 위헤-사께-, 빠-짖띠양.

(상가에서) 담변을 회피하거나 비협조적이면 참회해야 한다.

**(62) 빠짖띠야 13. 불평**(웃자야나, Ujjhāyana-sikkhāpadam)

ujjhāpanake khāyanake, pācittiyāü.

웃자-빠나께 키-야나께-, 빠-짖띠양.

(상가의 소임 비구를) 비난하거나 불평하면 참회해야 한다.

**(63) 빠짖띠야 14. 작구 1**(세나사나, Pathama-senāsana-sikkhāpadam) : 바깥에 방치

yo pana bhikkhu saṅghikaü maṅcaü vā pāñhaü vā bhisiü

요- 빠나 빅쿠 상기깡 만짱 와- 빠-탕 와- 비싱

vā kocchāü vā ajjhokāse santharivā vā santharāpetvā vā,

와- 쾃창 와- 앓조-까-세- 산타리뜨와- 와- 산타라-빠-뜨와- 와-,

taūpakkamanto neva uddhareyya na uddharāpeyya,

땅뻑까만또- 네-와 웃다레이야 나 웃다라-빠이야,

anāpucchāü vā gaccheyya, pācittiyāü.

아나-뵗창 와- 갓체이야, 빠-짖띠양.

## 부록 5. 포살(Uposatha)

비구가 침대, 의자, 매트리스, 걸상 등 상가 소유물을 바깥에 방치하고 나서 제자리에 갖다 놓거나 갖다 놓도록 시키지 않은 채 떠나거나 기별 없이 가버리면 참회해야 한다.

### (64) **빠졌띠야 15. 좌구 2**(세나사나, Dutiya-senāsana-sikkhāpadam) : 안에 방치

yo pana bhikkhu saṅghike vihāre seyyaū santharivā vā  
요- 빠나 빅쿠 상기께- 위하-레- 세이양 산타리뜨와- 와-  
santharāpetvā vā, taūpakkamanto neva uddhareyya na  
산타라-빠-뜨와- 와-, 땀뻑까만또- 네-와 웃다레이야 나  
uddharāpeyya, anāpucchāū vā gaccheyya, pācittiyāū.  
웃다라-빠이야, 아나-뵈창 와- 갓체이야, 빠-짚띠양.

비구가 상가 소유의 정사(위하라) 안에 침구류를 방치하고 나서 제자리에 갖다 놓거나 갖다 놓도록 시키지 않은 채 떠나거나 기별 없이 가버리면 참회해야 한다.

### (65) **빠졌띠야 16. 짐입**(아누빠캇자, Anupakhajj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saṅghike vihāre jānaū pubbāpagataū bhikkhuū  
요- 빠나 빅쿠 상기께- 위하-레- 자-냥 뵈부-빠가땀 빅쿱  
anupakhajja seyyaū kappeyya: Byassa sambādhō bhavissati,  
아누빠캇자 세이양 깎빠이야: “얏사 삼바-도- 바윗사띠,  
so pakkamissatāū ti. etad-eva paccayaū karitvā anāpucchāū, pācittiyāū.  
소- 뻑까밋사띠-” 띠. 에-따데-와 뵈짜양 가리뜨와- 아냥냥, 빠-짚띠양.

비구가 상가 소유의 정사 안에 먼저 도착한 비구를 내쫓을 목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떠나겠지.” 라고 생각하며 의도적으로 (잠자리에) 끼어들어 드러눕는다. 이런 이유 등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참회해야 한다.

### (66) **빠졌띠야 17. 쫓아냄**(닉갓다나, Nikkaḍḍha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ū kupito anattamano saṅghikā  
요- 빠나 빅쿠 빅쿱 꾸빠또- 안낫따마노- 상기까-  
vihārā nikkaóóheyya vā nikkaóóhāpeyya vā, pācittiyāū.  
위하-라- 닉갓데이야 와- 닉갓다-빠이야 와-, 빠-짚띠양.

비구가 화가 나있고 불만에 차서 상가 소유의 정사에서 다른 비구를 쫓아내거나 쫓아내도록 시키면 참회해야 한다.

**(67) 빠찌띠야 18. 위층 방**(웨하사꾸띠, Vehāsakūṭi-sikkhāpaḍaṃ)

yo pana bhikkhu saṅghike vihāre uparivehāsakuṇṇiyā āhaccapāḍakaū  
 요- 빠나 빅쿠 상기께- 위하-레- 우빠리웨-하-사꾸띠야- 아-핫짜빠-다강  
 maṃcaū vā pāṇhaū vā abhinisādeyya vā abhinipajjeyya vā, pācittiyaū.  
 만짱 와- 빠-탕 와- 아비니시-데이야 와- 아비니뻗제이야 와-, 빠-찌띠양.

비구가 합판바닥이 완성되지 않은 상가소유 정사의 위층 방에 고정되지 않은 침상이나 의자 위에 앉거나 누우면 참회해야 한다.

**(68) 빠찌띠야 19. 큰 정사**(마할라까 위하라, Mahallaka-vihāra-sikkhāpaḍaṃ)

mahallakaū pana bhikkhunā vihāraū kārāyamānena, yāva  
 마할라강 빠나 빅쿠나- 위하-랑 까-라야마-네-나, 야-와  
 dvārakosā aggalaññhapanāya ālokasandhiparikammāya  
 드와-라꼬-사- 악갈랏타빠나-야 알-로-까산디빠리깜마-야  
 dvatticchadanassa pariyāyaū, appaharite ñhitena adhiññhātappaū.  
 드왓똥차다낫사 빠리야-양, 압빠하리떼- 티떼-나 아딛타-똥방  
 tato ce uttariū appaharite pi ñhito adhiññhaheyya, pācittiyaū.  
 따또- 쨌- 웃따링 압빠하리떼- 빠 티또- 아딛타헤이야, 빠-찌띠양

비구가 주변에 ‘농작물이 없는 장소’에 큰 정사를 지을 때 창틀 주변(지붕)을 회반죽으로 2겹이나 3겹 씩어서 여닫는 문의 틀 주변을 강화할 수 있다. 3겹 넘게 지붕을 씌우면 농작물이 없는 장소에 지었더라도 참회해야 한다.

**(69) 빠찌띠야 20. 생물이 있는 물**(삽빠나, Sappāṇa sikkhāpaḍaṃ)

yo pana bhikkhu jānaū sappāḍakaū udakaū tiḍḍaū vā  
 요- 빠나 빅쿠 자-냥 삽빠-나강 우다강 띠냥 와-  
 mattikaū vā siṃceyya vā siṃcāpeyya vā, pācittiyaū.  
 맛띠강 와- 신제이야 와- 신짜-빠이야 와-, 빠-찌띠양.

비구가 의도적으로 잔디나 흙 위에 (수중)생물이 들어있는 물을 붓거나 붓도록 시키면 참회해야 한다.

Bhātagāmaṃvaggo dutiyo  
 부-따가-마왝고- 두띠요-  
 두 번째 식물 품

## 부록 5. 포살(Uposatha)

### (70) 빠짚띠야 21. 혼계(오와다, Ovād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asammato bhikkhuniyo ovadeyya, pàcittiyāü.  
요- 빠나 빅쿠 아삼마또- 빅쿠니요- 오-와데이야, 빠-짚띠야.

승인을 받지 않고 비구니를 혼계하면 참회해야 한다.

### (71) 빠짚띠야 22. 일물(앗탕가따, Atthaṅgata-sikkhāpadam)

sammato pi ce bhikkhu atthaṅgate suriye  
삼만또- 빠 제- 빅쿠 앗탕가떼- 수리에-  
bhikkhuniyo ovadeyya, pàcittiyāü.  
빅쿠니요- 오-와데-야, 빠-짚띠야.

승인을 받았더라도 비구가 해가 진 후 비구니를 혼계하면 참회해야 한다.

### (72) 빠짚띠야 23. 비구니 처소로 갈

(빅쿠누삐사야, Bhikkhunūpassay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nāpassayaü upsaikamitvā  
요- 빠나 빅쿠 빅쿠누-삐사야 우빠상까미뜨와-  
bhikkhuniyo ovadeyya, aṅṅatra samayā, pàcittiyāü.  
빅쿠니요- 오-와데이야, 안냐뜨라 사마야-, 빠-짚띠야.  
tatthāyāü samayo: gilāna hoti bhikkhunā - ayaü tattha samayo.  
따타-야 사마요-: 길라-나- 호-띠 빅쿠니- 아야 따타 사마요-.

적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구가 비구니의 처소에 가서 비구니를 혼계하면 참회해야 한다. 적법한 경우는 ‘비구니가 아플 때’이다. 이것이 적법한 경우이다.

### (73) 빠짚띠야 24. 이익(아미사, Āmis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evaü vadeyya: Bāmisahetu bhikkhā  
요- 빠나 빅쿠 에-왕 와데이야: “아-미사헤-뚜 빅쿠-  
bhikkhuniyo ovađantāü ti, pàcittiyāü.  
빅쿠니요- 오-와단띠-” 띠, 빠-짚띠야.

비구가 ‘그 비구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비구니를 혼계한다.’ 라고 무고하면 참회해야 한다.

**(74) 빠짚띠야 25. 가사 보시**(찌와라 다나, Cīvara-dā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aṅṅatikāya bhikkhuniyā cāvaraū dadeyya,  
 요- 빠나 빅쿠 안냐-띠까-야 빅쿠니야- 찌-와랑 다데이야,  
 aṅṅatra pārivaññakā, pācittiyāū.  
 안냐-뜨라 빠-리왓따까-, 빠-짚띠야.

서로 교환하는 것을 제외하고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가사를 주면 참회해야 한다.

**(75) 빠짚띠야 26. 가사 재능**(찌와라 십바나, Cīvarasibba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aṅṅatikāya bhikkhuniyā cāvaraū  
 요- 빠나 빅쿠 안냐-띠까-야 빅쿠니야- 찌-와랑  
 sibbeyya vā sibbāpeyya vā, pācittiyāū.  
 십베이야 와- 십바-빼이야 와-, 빠-짚띠야.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위해 가사를 께매주거나 께매주도록 시키면 참회해야 한다.

**(76) 빠짚띠야 27. 계획**(삼위다나, Saṃvidhā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niyā saddhiū saūvidhāya  
 요- 빠나 빅쿠 빅쿠니야- 샷딩 삼위다-야  
 ekaddhānamaggaū pañipajjeyya antamaso gāmantaram-pi,  
 에-갓다-나막강 빠띠뵤제이야 안따마소- 가-만따람 빠,  
 aṅṅatra samayā, pācittiyāū. tatthāyaū samayo: satthagamanāyo hoti  
 안냐뜨라 사마야-, 빠-짚띠야. 땃타-양 사마요-: 샷타가마니-요- 호-띠  
 maggo sāsāikasammato sappañbhayo - ayaū tattha samayo.  
 막고- 사-상까삼마또- 삽빠띠바요- 아양 땃타 사마요-.

적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구가 비구니와 함께 미리 계획을 하고 여행을 한다면 비록 이웃 마을을 가더라도 참회해야 한다. 적법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길을 대상들과 이동해야 하고, ②길이 불안하고 위험스럽게 여겨진다. 이것이 적법한 경우이다.

**부록 5. 포살(Uposatha)**

**(77) 빠짚띠야 28. 승선(나와비루하따, Nāvābhirūhat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niyā saddhiū saūvidhāya ekaū  
요- 빠나 빅쿠 빅쿠니야- 샷딩 삼위다-야 에-깡  
nāvāū abhirāheyya uddhagāminiū vā adhogāminiū vā,  
나-왕 아비루-헤이야 웃다가-미닝 와- 아도-가-미닝 와- ,  
aṁṁatra tiriyaū taraḍāya, pācittiyaū.  
안냐뜨라 띠리양 따라나-야, 빠-짚띠양.

강을 건너는 것을 제외하고 비구가 미리 계획을 하여 비구니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강을 오르내리면 참회해야 한다.

**(78) 빠짚띠야 29. 비구니 알선(빅쿠니 빠리빠짚따, Paripācit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jānaū bhikkhunāparipācitaū piḍōapātaū  
요- 빠나 빅쿠 자-냥 빅쿠니-빠리빠-찌땅 뵤다빠-땅  
bhujeyya, aṁṁatra pubbe gihāsamārambhā, pācittiyaū.  
분제이야, 안냐뜨라 뵤베- 기히-사마-람바-, 빠-짚띠양.

(비구니가 재가자에게 어느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라고) 독촉하기 전에 이미 마련된 음식을 제외하고 비구가 비구니의 독촉으로 보시 받은 공양 음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먹으면 참회해야 한다.

**(79) 빠짚띠야 30. 홀로 앉음(라호니삿자, Rahonisajj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niyā saddhiū eko ekāya  
요- 빠나 빅쿠 빅쿠니야- 샷딩 에-꼬- 에-까-야  
raho nisajjaū kappeyya, pācittiyaū.  
라호- 니삿장 깎삐이야, 빠-짚띠양.

비구가 홀로 비구니와 함께 앉아 있으면 참회해야 한다.

Bhikkhunovādavaggo tatiyo  
빅쿠노-와-다왓고- 따띠요-  
세 번째 비구니훈제 품

**(80) 빠짚띠야 31. 공용휴게소 음식**(아와사타 뻠다, Āvasatha-piṇḍa-sikkhāpadam)

agilānena bhikkhunā eko āvasathapiṭṭho bhujjitaḅbo.  
 아길-라-네-나 빅쿠나- 에-꼬- 아-와사타뻠도- 분지땃보-.  
 tato ce uttariū bhujjeyya, pācittiyā.  
 따또- 쩌- 웃따링 분제이야, 빠-짚띠양.

아프지 않는 비구는 (유행하는 사문을 위해 마련된) 공용휴게소의 음식을 한 끼분만 먹을 수 있다. 그 이상 먹으면 참회해야 한다.

**(81) 빠짚띠야 32. 대중공양**(가나보자나, Gaṇabhojana-sikkhāpadam)

gaḅabhojane, aḅḅatra samayā, pācittiyā. tatthāyā samayo:  
 가나보-자네-, 안냐-뜨라 사마야-, 빠-짚띠양. 땃타-양 사마요-:  
 gilānasamayo, cāvaradānasamayo, cāvarakārasamayo,  
 길라-나사마요-, 쩌-와라다-나사마요-, 쩌-와라까-라사마요-,  
 addhānagamanasamayo, nāvābhirāhanasamayo, mahāsamayo,  
 아다-나가마나사마요-, 나-와-비루-하나사마요-, 마하-사마요-,  
 samaḅabhattasamayo - ayā tāttha samayo.  
 사마나뵓따사마요- 아양 땃타 사마요-.

적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밥, 떡 등 구체적인 음식명을 말하며 초청했을 때) 대중(4명 이상의 비구) 공양을 가게 되면 참회해야 한다. 적법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아플 때, ②가사를 보시하는 시기, ③가사를 만드는 시기, ④여행을 할 때, ⑤배를 뺐을 때, ⑥특별한 경우(보시자에 비해 비구가 너무 많은 경우) ⑦사문(스님 및 다른 종교의 출가자)이 보시했을 때, 이것이 적법한 경우이다.

**(82) 빠짚띠야 33. 재공양**(빠람빠라 보자나, Parampara-bhojana-sikkhāpadam)

paramparabhojane, aḅḅatra samayā, pācittiyā.  
 빠람빠라보-자네-, 안냐뜨라 사마야-, 빠-짚띠양.  
 tatthāyā samayo: gilānasamayo, cāvaradānasamayo,  
 땃타-양 사마요-: 길라-나사마요, 쩌-와라다-나사마요-,  
 cāvarakārasamayo - ayā tāttha samayo.  
 쩌-와라까-라사마요- 아양 땃타 사마요-.

적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양청을 받아 공양한 후 다른 곳에서) 다시 공양을 하면 참회해야 한다. 적법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아플 때, ②가사를 보시하는 시기, ③가사를 만드는 시기. 이것이 적법한 경우이다.

**부록 5. 포살(Uposatha)**

**(83) 빠짚띠야 34. 까나니 어머니(까나마뚜, Kānamātu-sikkhāpadam) : 재가자의 여행음식**

bhikkhuū paneva kulaū upagataū pāvehi vā manthehi vā  
빅쿱      빠네-와      꿀랑 우빠가땅      뷔-웨-히 와-      만테-히 와-  
abhihaññhuū pavāreyya. ākaikhamānena bhikkhunā  
아비합툽      빠와-레이야. 아-간카마-네-나 빅쿠나-  
dvattipattapārā pañiggahetabbā. tato ce uttariū pañiggāḍheyya,  
드왓띠뻬따부-라-      빠딕가헤-땨바-.      따또-      제-      웃따링      빠딕간헤이야,  
pācittiyāū. dvattipattapāre pañiggahetvā tato nāharitvā  
빠-짚띠양.      드왓띠뻬따부-레-      빠딕가헤-뜨와-      따또-      니-하리뜨와-  
bhikkhāhi saddhiū saūvibhajitabbāū. ayaūtattha sāmāci.  
빅쿠-히      샷딩      삼위바지땨방.      아양      땨타      사-미-찌.

비구가 재가자의 집에 가서 (재가자가 여행 중에 먹기 위해 만든) 빵(떡)이나 과자를 받는다면 원한다면 두 발우나 세 발우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받으면 참회해야 한다. 두 발우나 세 발우를 받아서 가지고 오면 그 음식을 다른 비구와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 이것이 적법한 처신이다.

**(84) 빠짚띠야 35. 음식거절 1(빠와라나, Paṭhama-pavāraṇ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uttāvā pavārito anatirittaū, khādanāyaū vā  
요-      빠나      빅쿠      붓따-워-      빠와-리또-      아나띠릿땅,      카-다니-양 와-  
bhojanāyaū vā khādeyya vā bhucceyya vā, pācittiyāū.  
보-자니-양 와-      카-데이야 와-      분제이야 와-,      빠-짚띠양.

비구가 공양을 마치고 더 이상 음식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서, 남겨진 음식 이외의 주식(①밥, ②빵, ③국수, ④생선, ⑤고기)이나 부식(주식과 약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씹거나 삼키면 참회해야 한다.

**(85) 빠짚띠야 36. 음식거절 2(빠와라나, Dutiya-pavāraṇ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ū bhuttaviū pavāritaū anatirittena  
요-      빠나      빅쿠      빅쿱      붓따-웁      빠와-리땅      아나띠릿떼-나  
khādanāyena vā bhojanāyena vā abhihaññhuū pavāreyya:  
카-다니-예-나 와-      보-자니-예-나 와-      아비합툽      빠와-레이야:  
Bhanda bhikkhu khāda vā bhucceya vāu ti,  
“한다      빅쿠      카-다 와-      분자 와-”      띠,  
jānaū āsādanāpekkho, bhuttasmiū, pācittiyāū.  
자-낭      아-사-다나-뻬코-,      붓따스밍,      빠-짚띠양.

비구가 의도적으로 허물을 찾고자 공양을 마치고 더 이상 음식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 비구에게 주식이나 부식을 주며 “스님, 이 음식을 더 드십시오.” 라고 권하여 그 비구가 음식을 먹으면 참회해야 한다.

**(86) 빠졌띠야 37. 오후 공양**(위칼라 보자나, Vikāla-bhoja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vikāle khādanāyaū vā bhojanāyaū vā  
 요- 빠나 빅쿠 위갈-레- 카-다니-양 와- 보-자니-양 와-  
 khādeyya vā bhujeyya vā, pācittiyā.  
 카-데이야 와- 분제이야 와-, 빠-짚띠양.

비구가 때 아닌 때 주식이나 부식을 씹거나 삼키면 참회해야 한다.

**(87) 빠졌띠야 38. 보관**(산니디까라, Sannidhikār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sannidhikāraḥ khādanāyaū vā  
 요- 빠나 빅쿠 산니디까-라깡 카-다니-양 와-  
 bhojanāyaū vā khādeyya vā bhujeyya vā, pācittiyā.  
 보-자니-양 와- 카-데이야 와- 분제이야 와-, 빠-짚띠양.

비구가 보관한 주식이나 부식을 씹거나 삼키면 참회해야 한다.

**(88) 빠졌띠야 39. 좋은 음식**(판니따 보자나, Paṇīta-bhojana-sikkhāpadam)

yāni kho pana tāni paḍātabhojanāni, seyyathādaū: sappi,  
 야-니 코- 빠나 따-니 빠니-따보-자나-니, 세이야티-당: 삽빠,  
 navaṇātaū, telaū, madhu, phāḍitaū, maccho, maṁsāū,  
 나와니-땅, 떡-랑, 마두, 파-니땅, 맛초-, 망상,  
 khāraū, dadhi. yo pana bhikkhu evarāpāni paḍātabhojanāni  
 키-랑, 다디. 요- 빠나 빅쿠 에-와루-빠-니 빠니-따보-자나-니  
 agilāno attano atthāya viḥāpetvā bhujeyya, pācittiyā.  
 아길라-노- 앓따노- 앓타-야 윈냐-빠-뜨와- 분제이야, 빠-짚띠양.

질 좋은 음식 즉 ①기(우유기름), ②생버터, ③기름, ④꿀, ⑤설탕(당밀), ⑥생선, ⑦고기, ⑧우유, ⑨응유가 있다. 아프지 않은 비구가 자신을 위해 이와 같이 질 좋은 음식을 요구해서 먹으면 참회해야 한다.

**(89) 빠졌띠야 40. 이쑤시개**(단따쁘나, Dantapo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adinnaū mukhadvāraū āhāraū āhareyya,  
 요- 빠나 빅쿠 아딘낭 목카드와-랑 아-하-랑 아-하레이야,  
 aḥātra udakadantaponā, pācittiyā.  
 안냐뜨라 우다까단따쁘-나-, 빠-짚띠양.

비구가 물이나 이쑤시개를 제외하고 (직접 건네)주지 않은 음식을 입에 넣으면 참회해야 한다.

Bhojanavaggo catuttho

보-자나왓고- 짜똣토-

네 번째 공양 품

(90) **빠짖띠야 41. 나제외도**(아짤라까, Acelak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acelakassa vā paribbājakassa vā paribbājikāya  
요- 빠나 빅쿠 아짤-라갓사 와- 빠립바-자갓사 와- 빠립바-지까-야  
vā sahatthā khādanāyaū vā bhojanāyaū vā dadeyya, pācittiyaū.  
와- 사합타- 카-다니-양 와- 보-자니-양 와- 다데이야, 빠-짖띠양.

비구가 자신의 손으로 나체 외도, 남자 유행자 혹은 여자 유행자 등  
(이교 성직자 : 신부, 목사, 람비, 물라, 다른 전통의 수행승)에게 주  
식이나 부식을 주면 참회해야 한다.

(91) **빠짖띠야 42. 쫓아냄**(우이요자나, Uyyoja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ū: Behāvuso gāmaū vā nigamaū vā  
요- 빠나 빅쿠 빅쿱: “에-하-우소- 가-망 와- 니가망 와-  
piḍḍāya pavisissāmāū ti. tassa dāpetvā vā adāpetvā vā  
뵤다-야 빠위싯사-마-” 띠. 땃사 다-뵤-뜨와- 와- 아다-뵤-뜨와- 와-  
uyyojeyya: Bgacchāvuso na me tayā saddhiū kathā vā nisajjā  
우이요-제이야: “갓차-우소- 나 메- 따야- 샷딩 까타- 와- 니샷자-  
vā phāsu hoti, ekakassa me kathā vā nisajjā vā phāsu  
와- 파-수 호-띠, 에-까갓사 메- 까타- 와- 니샷자- 와- 파-수  
hotāū ti. etad-eva paccayaū karitvā anaṃṃāū, pācittiyaū.  
호-띠-” 띠. 에-따데-와 뵤짜양 까리뜨와- 아난냥, 빠-짖띠양.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스님, 마을이나 도시로 탁발하러 가세.” 라고 하고서는  
탁발 음식을 받았거나 받지 못했거나 “가버리게, 스님과 같이 앉고 말하기 싫  
네. 나는 홀로 앉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네.” 라며 (함께 탁발나간) 비구를 쫓  
아낸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함께 탁발나간) 비구를 쫓아내면 참회해야 한다.

(92) **빠짖띠야 43. 함께 식사** (사보자나, Sabhoja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sabhojane kule anupakhajja  
요- 빠나 빅쿠사보-자네- 꼴레- 아누빠캇자  
nisajjaū kappeyya, pācittiyaū.  
니샷장 깎뵤이야, 빠-짖띠양.

(초청받지 않은) 비구가 부부가 함께 식사 중인(부부가 같이 있는) 재  
가자 집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참회해야 한다.

**(93) 빠짖띠야 44. 홀로 앉음 1**(라호 니삿자, Paṭhama-rahonisajj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mātugāmena saddhiū raho pañicchanne  
 요- 빠나 빅쿠 마-뚜가-메-나 삿딩 라호- 빠똥찬네-  
 āsane nisajjaū kappeyya, pācittiyā.  
 아-사네- 니삿장 깎삐이야, 빠-짖띠양.

비구는 (보이지 않는) 외진 곳에 사적으로 여성과 함께 앉으면 참회해야 한다.

**(94) 빠짖띠야 45. 홀로 앉음 2**(라호니삿자, Dutiya-rahonisajj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mātugāmena saddhiū eko ekāya  
 요- 빠나 빅쿠 마-뚜가-메-나 삿딩 에-꼬- 에-까-야  
 raho nisajjaū kappeyya, pācittiyā.  
 라호- 니삿장 깎삐이야, 빠-짖띠양.

비구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사적으로 한 여성과 함께 앉으면 참회해야 한다.

**(95) 빠짖띠야 46. 방문**(짜릿따, Cāritt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nimantito sabhatto samāno santaū bhikkhuū  
 요- 빠나 빅쿠 니만띠또- 사뻑또- 사마-노- 산땡 빅쿱  
 anāpucchā purebhattaū vā pacchābhattaū vā kulesu cārittaū  
 아나-뻑차- 뿌레-뻑땡 와- 뻑차-뻑땡 와- 꼴레-수 짜-릿땡  
 āpajjeyya, aṅṅātra samayā, pācittiyā. tatthāyaū samayo:  
 아-뻑제이야, 안냐뜨라 사마야-, 빠-짖띠양. 땡타-양 사마요-:  
 cāvaradānasamayo, cāvarakārasamayo - ayaū tattha samayo.  
 짜-와라다-나사마요-, 짜-와라까-라사마요- 아양 땡타 사마요-.

공양에 초청받은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간다는 말도 없이 탁발 전이나 후에 재가자들을 방문하러 가면 적법한 시기를 제외하고 참회해야 한다. 적법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가사를 보시하는 시기, ②가사를 만드는 시기. 이것이 적법한 시기이다.

**(96) 빠짖띠야 47. 마하나마(의 공양정)**(Mahānāma-sikkhāpadam)

agilānena bhikkhunā cātumāsappaccayapavāraḍā sādītabbā,  
 아길라-네-나 빅쿠나- 짜-뚜마-삼뻑짜야빠와-라나- 사-디땡바-,  
 aṅṅātra punapavāraḍāya, aṅṅātra niccapavāraḍāya.  
 안냐뜨라 뿌나빠와-라나-야, 안냐뜨라 닛짜빠와-라나-야.  
 tato ce uttariū sādīyeyya, pācittiyā.  
 따또- 제- 윗따링 사-디에이야, 빠-짖띠양.

**부록 5. 포살(Uposatha)**

아프지 않은 비구가 '4달(일정 기간) 동안 필수품을 요청할 수 있는 초청'을 받을 수 있다. 재 초청이나 영구적인 초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초청기간보다 오래 필수품을 요청하면 참회해야 한다.

**(97) 빠짚띠야 48. 중군 군대(우이웃따 세나, Uyyutta-senā-sikkhāpadam)**

yo pana bhikkhu uyyuttaü senaü dattanāya gaccheyya,  
요- 빠나 빅쿠 우이웃따 세-낭 닷사나-야 갓체이야,  
accatra tathārāpappaccayā, pācittiyaü.  
안나트라 따타-루-뵘뵘짜야-, 빠-짚띠야.

비구가 적법한 이유 없이 중군 중인 군대를 보러 가면 참회해야 한다.

**(98) 빠짚띠야 49. 병영(세나와사, Senāvāsa-sikkhāpadam)**

siyāca tassa bhikkhuno kocid-eva paccayo senaü gamanāya,  
시아-짜 닷사 빅쿠노- 꼬-찌데-와 뵘짜요- 세-낭 가마나-야,  
dirattatirattaü tena bhikkhunā senāya vasitabbaü.  
디랏따띠랏땅 떼-나 빅쿠나- 세-나-야 와시뵘방.  
tato ce uttariü vaseyya, pācittiyaü.  
따또- 쩌- 윗따링 와세이야, 빠-짚띠야.

비구가 어떤 이유로 병영에 가면 2일이나 3일 밤 (계속해서) 병영에 묵을 수 있다. 만약 그 이상 머물면 참회해야 한다.

**(99) 빠짚띠야 50. 군사훈련(우이요디까, Uyyodhika-sikkhāpadam)**

dirattatirattaü ce bhikkhu senāya vasamāno uyyodhikaü vā balaggāü  
디랏따띠랏땅 쩌- 빅쿠 세-나-야 와사마-노- 우이요-디깡 와- 발락강  
vā senābyāhaü vā anākadassanaü vā gaccheyya, pācittiyaü.  
와- 세-나-뷰-항 와- 아니-까닷사낭 와- 갓체이야, 빠-짚띠야.

2일이나 3일 밤을 병영에서 지내는 비구가 군사훈련, 점호, 전투대형, 군대 열병식을 보러 가면 참회해야 한다.

Acelakavaggo paṁcama  
아쩨-라카와고- 뵘짜모-  
다섯 번째 나형의도 품

**(100) 빠짚띠야 51. 술**(수라빠나, Surāpāna sikkhāpadam)

surāmerayapāne, pācittiyāü.  
수라-메-라야빠-네-, 빠-짚띠양.

알코올이나 발효된 술을 마시면 참회해야 한다.

**(101) 빠짚띠야 52. 간질이기**(앙굴리 빠또다까, Aṅguli-patodaka-sikkhāpadam)

aṅgulipatodake, pācittiyāü.  
앙굴리빠또-다께- 빠-짚띠양.

손가락으로 간질이면 참회해야 한다.

**(102) 빠짚띠야 53. 유희**(햏사담마, Hassadhamma-sikkhāpadam)

udake hassadhamme, pācittiyāü.  
우다께- 햏사담메-, 빠짚띠양.

물에서 놀면 참회해야 한다.

**(103) 빠짚띠야 54. 경시**(아나다리아, Anādariya-sikkhāpadam)

anādariye, pācittiyāü.  
아나-다리에-, 빠-짚띠양.

(울에 대한 훈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참회해야 한다.

**(104) 빠짚띠야 55. 놀라게 함**(빔사빠나까, Bhimsāpanak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ü bhiūsāpeyya, pācittiyāü.  
요- 빠나 빅쿠 빅쿱 빔사-빠이야, 빠-짚띠양.

다른 비구를 놀라게 하면 참회해야 한다.

**(105) 빠짚띠야 56. 불**(조띠, Joti-sikkhāpadam)

yo pana bhikkhu agilāno visibbanāpekkho jotiü samādaheyya vā  
요- 빠나 빅쿠 아길라-노- 위십바나-뽁코- 조-땡 사마-다헤이야 와-  
samādahāpeyya vā, aññatra tathārāpappaccayā, pācittiyāü.  
사마-다하-빠이야 와-, 안냐뜨라 따타-루-뽁뽁짜야-, 빠-짚띠양.

아프지 않은 비구가 몸을 따듯하게 하기위해서 적법한 이유 없이 불을 지피거나 지피도록 시키면 참회해야 한다.

## 부록 5. 포살(Uposatha)

### (106) 빠짚띠야 57. 목욕(나하나, Nahā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orenaddhamāsāu nahāyeyya, aṁṁatra samayā,  
요- 빠나 빅쿠 오-레-낫다마-상 나하-예이야, 안냐뜨라 사마야-,  
pācittiyāū. tatthāyāū samayo: diyaóóho māsó seso gimhānan-ti,  
빠-짚띠야. 띃타-양 사마요-: 디얏도- 마-소- 세-소- 김하-난띠,  
vassānassa pañhamo māsó, iccete aóóhateyyamāsà, uḥhasamayo,  
왓사-낫사 빠타모- 마-소-, 잇제-떼- 앓다떼이야마-사-, 운하사마요-,  
pariēahasamayo, gilānasamayo, kammamayo,  
빠릴라-하사마요-, 길라-나사마요-, 깎마사마요-,  
addhānagamānasamayo, vātavuññhisamayo - ayaū tattha samayo.  
앗다-나가마나사마요-, 와-따웃티사마요- 아양 띃타 사마요-.

적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갠지스 유역에 사는) 비구가 보름(15일)도 안 되어 목욕을 하면 참회해야 한다. 적법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여름철 마지막 1달 반, 우기의 첫 1달, 즉 덥고 무더운 시기의 2달 반, ②아플 때, ③일을 했을 때, ④여행 중일 때, ⑤비바람이 칠 때. 이것이 적법한 시기이다.

### (107) 빠짚띠야 58. 점찍기(뚝반나 까라, Dubbaṇṇa-kara-sikkhāpadam)

navaū pana bhikkhunā cāvaralābhena tiḍḍaū dubbaḍḍakaraḍḍanaū  
나왕 빠나 빅쿠나- 짜-와랄라-베-나 띃닝 뚝반나까라나-낭  
aṁṁata-raū dubbaḍḍakaraḍḍaū ādātābaū, nālaū vā kaddamaū vā  
안냐따랑 뚝반나까라낭 아-다-답방, 닐-랑 와- 깃다망 와-  
kāēasāmaū vā. anādāce bhikkhu tiḍḍaū dubbaḍḍakaraḍḍanaū  
깎-라사-망 와-. 아나-다-제- 빅쿠 띃닝 뚝반나까라나-낭  
aṁṁata-raū dubbaḍḍakaraḍḍaū navaū cāvaraū paribhuṁjeyya, pācittiyāū.  
안냐따랑 뚝반나까라낭 나왕 짜-와랑 빠리분제이야, 빠-짚띠야.

비구가 새 가사를 받았을 때 ①초록색, ②갈색, 또는 ③검정색, 세 가지 색깔의 점 중에 하나를 가사에 찍어야 한다. 비구가 새 가사를 사용 전에 세 가지 색깔의 점 중에 하나를 가사에 찍지 않으면 참회해야 한다.

### (108) 빠짚띠야 59. 공동소유(위깎빠나, Vikappana 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ssa vā bhikkhuniyā vā sikkhamānāya  
요- 빠나 빅쿠 빅쿣사 와- 빅쿠니야- 와- 식카마-나-야  
vā sāmāḍerassa vā sāmāḍeriyā vā sāmā cāvaraū vikappetvā  
와- 사-마네-랏사 와- 사-마네-리야- 와- 사-망 짜-와랑 위깎빠뜨와-  
apaccuddhāra-kāū paribhuṁjeyya, pācittiyāū.  
아빳쫏다-라깁 빠리분제이야, 빠-짚띠야.

비구가 비구, 비구니, 식차마나, 사미, 사미니와 가사를 공동소유로 놓은 채 공동소유를 취소하지 않고 가사를 사용하면 참회해야 한다.

**(109) 빠짚띠야 60. 가사 은닉**(찌와라 빠니다나, Cīvarāpanidhā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ssa pattaū vā cāvaraū vā  
 요- 빠나 빅쿠 빅쿠타 삿땅 와- 찌-와랑 와-  
 nisādanaū vā saccigharaū vā kāyabandhanaū vā apanidheyya vā  
 니시-다낭 와- 수-찌가랑 와- 까-야반다낭 와- 아빠니데이야 와-  
 apanidhāpeyya vā antamaso hassāpekkho pi, pācittiyāū.  
 아빠니다-삐이야 와- 안따마소- 핫사-뵁코- 삐, 빠-짚띠양.

비구가 다른 비구의 ①발우 ②가사 ③짚개 ④바늘상자 ⑤허리띠를 숨기거나 숨기도록 시키면 비록 장난이라 할지라도 참회해야 한다.

Surāpānavaggo chañño  
 수라-빠-나왓고- 찻토-  
 여섯 번째 슬 품

**(110) 빠짚띠야 61. 의도적 살생**(산짚 짜빠나, Sañciccapāṇ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saṅcicca pāḍaū jāvitā voropeyya, pācittiyāū.  
 요- 빠나 빅쿠 산짚짜 빠-낭 지-위따- 위-로-삐이야, 빠-짚띠양.

비구가 의도적으로 생물의 생명을 빼앗으면 참회해야 한다.

**(111) 빠짚띠야 62. 생물이 있는 물**(Sappāṇak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jānaū sappāḍakaū udakaū paribhuṅgeyya, pācittiyāū.  
 요- 빠나 빅쿠 자-낭 삽빠-나깡 우다깡 빠리분제이야, 빠-짚띠양.

비구가 의도적으로 생명체가 들어 있는 물을 사용하면 참회해야 한다.

**(112) 빠짚띠야 63. 결정번복**(욱꼬따나, Ukkoṭṭa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jānaū yathādhammaū nihatādhikaraḍaū  
 요- 빠나 빅쿠 자-낭 야타-담망 니하따-디까라낭  
 punakammāya ukkoṅeyya, pācittiyāū.  
 뿌나깡마-야 욱꼬-떼이야, 빠-짚띠양.

비구가 이미 공식적으로 결정된 쟁점을 번복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동하면 참회해야 한다.

## 부록 5. 포살(Uposatha)

### (113) 빠짚띠야 64. 중한 범계(뚝틀라, Duṭṭhull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ssa jānaü duññhullāü

요- 빠나 빅쿠 빅쿠타 자-낭 뚝틀랑

àpattiü pañicchādeyya, pācittiyaü.

아-뺏땅 빠뚝차-데이야, 빠-짚띠야.

비구가 다른 비구의 중한 범계(빠라지까, 상가디세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기면 참회해야 한다.

### (114) 빠짚띠야 65. 20세 미만(우나위사띠왓사, Ūnavāsativass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jānaü ānavāsativassaü puggalāü upasampādeyya, so ca

요- 빠나 빅쿠 자-낭 우-나위-사띠왓상 뽉갈랑 우빠삼빠-데이야, 소- 짜 puggalo anupasampanno, te ca bhikkhā gārayhā. idaü tasmīü pācittiyaü.

뽉갈로- 아누빠삼판노-, 떼- 짜 빅쿠- 가-라이하-. 이당 따스밍 빠-짚띠야.

비구가 20살이 안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구족계를 주면 그 사람의 수계는 성립되지 않으며 참석한 비구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계사는 참회해야 한다.

### (115) 빠짚띠야 66. 도둑떼(테이야삿타, Theyya-satth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jānaü theyyasatthena saddhiü saüvidhāya

요- 빠나 빅쿠 자-낭 테이야삿테-나 삿딩 삼위다-야

ekaddhānamaggaü pañipajjeyya antamaso gāmantaram-pi, pācittiyaü

에-갓다-나막강 빠띠뺏제이야 안따마소- 가-만따람 빠, 빠-짚띠야.

비구가 도둑떼와 의도적으로 미리 계획하고 함께 여행하면 비록 이웃마을이라 할지라도 참회해야 한다.

### (116) 빠짚띠야 67. 계곡(삼위다나, Saṃvidhā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mātugāmena saddhiü saüvidhāya ekaddhānamaggaü

요- 빠나 빅쿠 마-뚜가-메-나 삿딩 삼위다-야 에-갓다-나막강

pañipajjeyya antamaso gāmantaram-pi, pācittiyaü.

빠띠뺏제이야 안따마소- 가-만따람 빠, 빠-짚띠야.

비구가 미리 계획하고 여성과 함께 여행하면 비록 이웃마을이라 할지라도 참회해야 한다.

**(117)빠찌띠야 68. 아릿타 비구**(Ariṭṭha-sikkhāpadam) : 법을 매도한 비구

yo pana bhikkhu evaü vadeyya: ßathāhau bhagavatā dhammaü  
 요- 빠나 빅쿠 에-왕 와데이야: “따타-항 바가와따- 담망  
 desitaü añānāmi. yathā yeme antarāyikā dhammā vuttā bhagavatā,  
 데-시땅 아-자-나-미. 야타- 예-메- 안따라-이까- 담마- 윗따- 바가와따-,  
 te pañisevato nālaü antarāyāyāü ti. so bhikkhu bhikkhāhi evam-assa  
 떼- 빠띠세-와또- 날-랑 안따라-야-야-” 띠. 소- 빅쿠 빅쿠-히 에-와맛사  
 vacanāyo: ßmā āyasmā evaü avaca. mā bhagavantaü abbhācikkhi,  
 와짜니-요-: “마- 아-야스마- 에-왕 아와짜. 마- 바가완땅 압바-찍키,  
 na hi sādhu bhagavato abbhakkhānaü, na hi bhagavā evaü vadeyya.  
 나 히 사-두 바가와또- 압박카-낭, 나 히 바가와- 에-왕 와데이야.  
 anekapariyāyena āvuso antarāyikā dhammā antarāyikā vuttā  
 아네-까빠리야-예-나 아-우소- 안따라-이까- 담마- 안따라-이까- 윗따-  
 bhagavatā, alaᄁ-ca pana te pañisevato antarāyāyāü ti. evaᄁ-ca  
 바가와따-, 알란짜 빠나 떼- 빠띠세-와또- 안따라-야-야-” 띠. 에-완짜  
 pana so bhikkhu bhikkhāhi vuccamāno tatheva paggaᄁheyya,  
 빠나 소- 빅쿠 빅쿠-히 윗짜마-노- 따테-와 빠간헤이야,  
 so bhikkhu bhikkhāhi yāvatatiyāü samanubhāsitaᄁbo tassa  
 소- 빅쿠 빅쿠-히 야-와따띠양 사마누바-시답보- 락사  
 pañinissaggāya. yāvatatiyāü ce samanubhāsīyamāno  
 tam-pañinissajjeyya  
 빠띠닛삭가-야. 야-와따띠양 쎄- 사마누바-시야마-노- 락 빠띠닛삭제이야  
 iccetaü kusalaü. no ce pañinissajjeyya, pācittiyāü.  
 잇쎄-락 구살랑. 노- 쎄- 빠띠닛삭제이야, 빠-락띠양.

어떤 비구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존에 의해 설해진 법을 나는 이렇  
 게 이해한다. 세존께서 어떤 행동에 탐착했을 때 장애가 된다고 한 것  
 은 실은 장애가 아니다.” 그러면 비구들은 다음과 같이 훈계해야 한다.  
 “스님,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에 대해 부적절하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에 대해 부적절하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 다양한 방식으로 세존께서는 장애  
 가 되는 행동에 대해 설하셨고 그것에 탐착할 때 참으로 장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훈계 받은 비구가 전처럼 고집을 피우면 비구들은

부록 5. 포살(Uposatha)

그가 그치도록 세 번까지 경책해야 한다. 세 번 까지 경책해서 그치면 좋지만 그치지 않으면 참회해야 한다.

(118) **빠짚띠야 69. 정권된 자와 거주**(Ukkhitta-sambhog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jānaū tathāvādinā bhikkhunā akañānudhammena  
요- 빠나 빅쿠 자-낭 따타-와-디나- 빅쿠나- 악까따-누담메-나  
taū diññhiū appaṇinissaññhena saddhiū sambhuṃjeyya vā saūvaseyya  
và  
땅 딛팅 압빠띠닛삿테-나 삿딩 삼분제이야 와- 삼와세이야 와-  
saha vā seyyaū kappeyya, pācittiyaū.  
사하- 와- 세이양 깎빼이야, 빠-짚띠양.

어떤 비구가 율을 따르지 않겠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그러한 견해를 버리지 않아서 (정권된) 비구와 의도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거나 같은 거처에 누우면 참회해야 한다.

(119) **빠짚띠야 70. 관따까 사미**(Kaṇṭaka-sikkhāpadam) : 범을 매도한 사미

samaḍuddeso pi ce evaū vadeyya: Btathāhaū bhagavatā dhammaū  
사마ḍ데-소- 빠 제- 에-왕 와데이야: “따타-항 바가와따- 담망  
desitaū ājanāmi. yathā yeme antarāyikā dhammā vuttā bhagavatā,  
데-시땅 아-자-나-미. 야타- 예-메- 안따라-이까- 담마- 웃따- 바가와따-,  
te pañisevato nālaū antarāyāyāū ti. so samaḍuddeso bhikkhāhi  
떼- 빠띠세-와또- 날-랑 안따라-야-야-” 띠. 소- 사마ḍ데-소- 빅쿠-히  
evam-assa vacanāyo: Bmā āvuso samaḍuddesa evaū avaca.  
에-와맛사 와짜니-요-: “마- 아-우소- 사마ḍ데-사 에-왕 아와짜.  
mā bhagavantaū abbhācikkhi, na hi sādhu bhagavato abbhakkhānaū,  
마- 바가완땅 압바-찍키, 나 히 사-두 바가와또- 압박카-낭,  
na hi bhagavā evaū vadeyya. anekapariyāyena āvuso samaḍuddesa  
나 히 바가와- 에-왕 와데이야. 아네-까빠리야-예-나 아-우소- 사마ḍ데-사  
antarāyikā dhammā antarāyikā vuttā bhagavatā, alaṃ-ca pana te  
안따라-이까- 담마- 안따라-이까- 웃따- 바가와따-, 알란 짜 빠나 떼-  
pañisevato antarāyāyāū ti. evaṃ-ca pana so samaḍuddeso bhikkhāhi  
빠띠세-와또- 안따라-야-야-” 띠. 에-완 짜 빠나 소- 사마ḍ데-소- 빅쿠-히  
vuccamāno tatheva paggaḍheyya, so samaḍuddeso bhikkhāhi  
웃짜마-노- 따테-와 빠간헤이야, 소- 사마ḍ데-소- 빅쿠-히  
evam-assa vacanāyo: Bājattagge te āvuso samaḍuddesa na ceva  
에-와맛사 와짜니-요-: “앗자떡게- 떼- 아-우소- 사마ḍ데-사 나 제-와  
so bhagavā satthā apadisitabbo, yam-pi caṃce samaḍuddesa  
소- 바가와- 삿타- 아빠디시땨보-, 암배 짬네- 사마ḍ데-사-

labhanti bhikkhāhi saddhiū dirattatirattaū saha seyyaū, sàpi te natthi,  
 라반띠 빅쿠-히 샷딩 디랏따띠랏땅 사하 세이양, 사-빠 떼- 낫티,  
 cara pare vinassāu ti. yo pana bhikkhu jānaū tathānāsitaū  
 짜라 빠레- 워낫사-” 띠. 요- 빠나 빅쿠 자-냥 따타-나-시땅

samañuddesaū upalāpeyya vā upaññhāpeyya vā sambhucceyya vā  
 사마눗데-상 우빨라-빠이야 와- 우뵤타-빠이야 와- 삼분제이야 와-  
 saha vā seyyaūkappeyya, pācittiyā.  
 사하 와- 세이얌깜빠이야, 빠-짚띠양.

사미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존에 의해 설해진 법을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세존께서 어떤 행동에 탐착했을 때 장애가 된다고 한 것은 실은 장애가 아니다.” 그러면 비구들은 이와 같이 훈계해야 한다. “사미여, 그렇게 말하지 마라. 세존에 대해 부적절하게 말하지 마라. 세존에 대해 부적절하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존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양한 방식으로 세존께서는 장애가 되는 행동에 대해 설하셨고 그것에 탐착할 때 참으로 장애가 된다고 하셨다.” 그런데 훈계 받은 사미가 전처럼 고집을 피우면 그 비구는 사미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해야 한다. “사미여, 이날 이후로 세존을 스승이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사미들처럼 비구들과 함께 2일이나 3일 밤조차 같은 거처에서 함께 머물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한다. 나가라!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라!” 어떤 비구가 이렇게 쫓겨난 사미를 의도적으로 도와주고 시봉을 받거나 함께 교제하고 같은 거처에 누우면 참회해야 한다.

Sappāḍakavaggo sattamo  
 삽빠-나까왓고- 샷따모-  
 일곱 번째 생명의 품

(120) **빠짚띠야 71. 여범**(사하담미까, Sahadhammik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āhi sahadhammikaū vuccamāno evaū  
 요- 빠나 빅쿠 빅쿠-히 사하담미깡 웃짜마-노- 에-왕  
 vadeyya: ñna tāvāhaū āvuso etasmīū sikkhāpade sikkhissāmi,  
 와데이야: “나 따-와-항 아-우소- 에-따스밍 식카-빠데- 식킷사-미,  
 yāva na aṁṁāū bhikkhuū vyattaū vinayadharaū paripucchāmāū ti,  
 야-와 나 안냥 빅쿱 워얏땅 위나야다랑 빠리뵤차-미-” 띠,  
 pācittiyā. sikkhamānena bhikkhave bhikkhunā aṁṁātabbaū  
 빠-짚띠양. 식카마-네-나 빅카웨- 빅쿠나- 안냐-땨방  
 paripucchitabbaū paripaṁhitabbaū. ayaū tattha sāmāci.  
 빠리뵤치땨방 빠리뵤히땨방. 아양 땨타 사-미-찌.

**부록 5. 포살(Uposatha)**

어떤 비구가 율에 의거해 비구들에게 훈계 받을 때 “스님, 나는 계율에 경험이 많고 많이 배운 다른 비구에게 알아볼 때까지 이 계율을 따를 수 없소.” 라고 하면 참회해야 한다. 비구는 계율을 숙지해야 하고 (의심나는 것은) 물어야 하고 숙고해야 한다. 이것이 적법한 절차이다.

**(121) 빠짚띠야 72. 폰란(율레카나, Vilekhana-sikkhāpadam) : 계율비판**

yo pana bhikkhu pātimokkhe uddissamāne evaü vadeyya: ßkiü panimehi

요- 빠나 빅쿠 빠-띠목케- 율딛사마-네- 에-왕 와데이야: “깁 빠니메-히 khuddānukhuddakehi sikkhāpadehi uddiññehi, yāvad-eva kukkuccāya,

쿣다-누쿣다께-히 식카-빠데-히 율딛테-히, 야-와데-와 꼭곳짜-야, vihesāya, vilekhāya saüvattantāü ti. sikkhāpadavivaððake, pācittiyaü. 위헤-사-야, 율레-카-야 삼왓딛딛-” 띠. 식카-빠다위완나께-, 빠-짚띠야.

제목이 암송될 때 비구가 “이런 사소한 계율은 왜 암송하는가? 이런 계율들은 불안하게하고, 성가시게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계율을 비판하면 참회해야 한다.

**(122) 빠짚띠야 73. 이애 뭇함(모하나, Moha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anvaddhamāsāü pātimokkhe uddissamāne evaü

요- 빠나 빅쿠 안왓다마-상 빠-띠목케- 율딛사마-네- 에-왕 vadeyya: ßidāneva kho ahaü jānāmi, ayam-pi kira dhammo 와데이야: 이다-네-와 코- 아함 자-나-미, 아얌 빠 끼라 담모-

suttāgato suttapariyāpanno anvaddhamāsāü uddesaü āgacchatāü ti. 슛따-가토- 슛따빠리아-뻥노- 안왓담마-상 율데-상 아-갓차띠-” 띠.

taᄁ-ce bhikkhuü aᄁᄁe bhikkhā jāneyyüü: ßnisinnapubbaü iminā

딛 째- 빅쿱 안네- 빅쿠- 자-네이유: “니신나뻥방 이미나- bhikkhunā dvattikkhattuü pātimokkhe uddissamāne. ko pana vādo 빅쿠나- 드왓딛캇똥 빠-띠목케- 율딛사마-네-. 꼬- 빠나 와-도-

bhiyyo.ü na ca tassa bhikkhuno aᄁᄁāðakena mutti atthi. yaᄁ-ca 비이요-.” 나 짜 땃사 빅쿠노- 안냐-나께-나 뭇띠 앗티. 안짜

tattha āpattiü āpanno, taᄁ-ca yathādhammo kāretabbo, uttariü cassa 땃타 아뻥딛 아-뻥노-, 딛 짜 야타-담모- 까-레-뻥보-, 율따링 짃사 moho āropetabbo: ßtassa te āvuso alābhā, tassa te dulladdhaü.

모-호- 아-로-빠-뻥보-: “땃사 떼- 아-우소- 알라-바-, 땃사 떼- 둘랏당. yaü tvaü pātimokkhe uddissamāne, na sādhuakāü aññhikatvā

얌 뜨왕 빠-띠목케- 율딛사마-네-, 나 사-두깡 앗티까뜨와-

manasikarosāū ti. idaū tasmīu mohanake, pācittiyāu.  
 마나시카로-시-” 띠. 이당 따스밍 모-하나께-, 빠-짚띠양.

어떤 비구가 계목이 반달마다 암송될 때, “지금까지 나는 반달마다 계목을 들었고 포살에 참석했고 암송을 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른 비구들도 “그 비구는 계목을 암송할 때 이미 2·3번 참석했다.”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비구는 ‘아직 계목을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가 범계를 할 때마다, 계율에 의거해 다루어야 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훈계해 주어야 한다. “도반이여, 계목이 암송될 때 주의를 바르게 기울이지 않고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당신에게 이롭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살에 3번 이상 참석한 비구가 계율을 모르거나) 모르는 척 하면 참회해야 한다.

**(123) 빠짚띠야 74. 구타**(빠하라, Pahār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ssa kupito anattamano  
 요- 빠나 빅쿠 빅쿣사 구빠또- 아낫따마노-  
 pahāraū dadeyya, pācittiyāu.  
 빠하-랑 다데이야, 빠-짚띠양.

비구가 화가 나고 불만에 차서 다른 비구를 때리면 참회해야 한다.

**(124) 빠짚띠야 75. 손 올림**(탈라삿띠까, Talasattik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ssa kupito anattamano  
 요- 빠나 빅쿠 빅쿣사 구빠또- 아낫따마노-  
 talasattikaū uggireyya, pācittiyāu.  
 탈라삿띠깡 옥기레이야, 빠-짚띠양.

비구가 화가 나고 불만에 차서 다른 비구를 향해 (위협하기 위해) 손을 올리면 참회해야 한다.

**(125) 빠짚띠야 76. 근거 없음**(아물라까, Amūlak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ū amālakena saīghādisesena  
 요- 빠나 빅쿠 빅쿣 아물-라께-나 상가-디세-세-나  
 anuddhāuseyya, pācittiyāu.  
 아낫당세이야, 빠-짚띠양.

비구가 근거 없이 다른 비구를 상가디세사로 무고하면 참회해야 한다.

**(126) 빠짚띠야 77. 고의**(산짚짜, Sañcicc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ussa saṅcicca kukkuccaū upadaheyya:  
 요- 빠나 빅쿠 빅쿣사 산짚짜 꼭곳짱 우빠다헤이야:

## 부록 5. 포살(Uposatha)

Bitissa muhuttam-pi aphāsu bhavissatāū ti. etad-eva paccayaū  
이뜻사 무햇땀 빠 아파-수 바윗사띠- 띠. 에-따데-와 빠짜양  
karitvā anaṁṁāū, pācittiyaū.  
까릿뜨와- 아난냥, 빠-짚띠양.

비구가 “이렇게 하면 그는 잠시도 평온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이런 이유 등으로 다른 스님을 고의로 걱정하게 만들면 참회해야 한다.

### (127) 빠짚띠야 78. 엇들기(우뺏수띠, Upassuti-sikkhāpadam)

yo pana bhikkhu bhikkhānaū bhaḍḍānanajātānaū kalahajātānaū  
요- 빠나 빅쿠 빅쿠-냥 반다나자-따-냥 깔라하자-따-냥  
vivādāpannānaū upassutiū tiṅṅheyya: byaū ime bhaḍḍanti,  
위와-다-뻘나-냥 우뺏수띵 띠테이야: “양 이메- 바닛산띠,  
taūsossāmāū ti. etad-eva paccayaū karitvā anaṁṁāū, pācittiyaū.  
땀숫사-미-” 띠. 에-따데-와 빠짜양 까리뜨와- 아난냥, 빠-짚띠양.

어떤 비구가 비구들이 논쟁하고 싸우고 말다툼할 때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엇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단지 이런 이유 등으로 엇들면 참회해야 한다.

### (128) 빠짚띠야 79. 깜마 거부(깜마 빠띠바하나, Kamma-paṭibāha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dhammikānaū kammānaū chandaū datvā  
요- 빠나 빅쿠 담미까-냥 깜마-냥 찬당 다뜨와-  
pacchā khāyanadhammāū āpajjeyya, pācittiyaū.  
뺏차- 키-야나담망 아-뺏제이야, 빠-짚띠양.

법에 입각해서 타결된 깜마에 동의하고 나서 나중에 그 결정에 대해 불평하면 참회해야 한다.

### (129) 빠짚띠야 80. 심의 중 자리이탈(찬다마다뜨와 가마나) (Chandaṁadatvā-gama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saṅghe vinicchayakathāya vattamānāya chandaū  
요- 빠나 빅쿠 상게- 위닛차야까타-야 윗따마-나-야 찬당  
adatvā uññhāyāsanāpakkameyya, pācittiyaū.  
아다뜨와- 윗타-야-사나-뺏까메이야, 빠-짚띠양.

상가에서 심의 중에 있을 때 동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면 참회해야 한다.

### (130) 빠짚띠야 81. 답바 비구(Dabba-sikkhāpadam): 상가동의로 가사 받은 스님

yo pana bhikkhu samaggena saṅghena cāvaraū datvā pacchā  
요- 빠나 빅쿠 사막게-나 상게-나 찌-와랑 다뜨와- 뺏차-

khāyanadhammaū āpajjeyya: Byathāsanthutaū bhikkhā saṅghikaū  
 키-야나담망 아-뺏제이야: “야타-산투땅 빅쿠- 상기깡  
 lābhaū pariḍāmentāū ti, pācittiyāū.  
 라-방 빠리나-멘-띠-” 띠, 빠-짚띠양.

어떤 비구가 상가가 동의하여 특정 비구에게 가사를 주었는데, 나중에 “비구들이 편애하여 상가 소유물을 나누었다.”라고 불평하면 참회해야 한다.

**(131) 빠짚띠야 82. 전용**(빠리나마나, Parīnāmana-sikkhāpadam): 타인에게 전환

yo pana bhikkhu jānaū saṅghikaū lābhaū pariḍātaū  
 요- 빠나 빅쿠 자-냥 상기깡 라-방 빠리나땅  
 puggalassa pariḍāmeyya, pācittiyāū.  
 뽕갈랏사 빠리나-메이야, 빠-짚띠양.

상가에 할당된 보시물을 특정인에게 의도적으로 돌리면 참회해야 한다.

Sahadhammikavaggo aññhamo  
 사하담미까웍고- 앗타모-  
 여덟 번째 여법 품

**(132) 빠짚띠야 83. 왕 침실 넘음**(라잔따라뿌라, Rājantarapur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raṃṃṃ khattiyassa muddhāvasittassa  
 요- 빠나 빅쿠 란뇨- 캣띠얏사 뭇다-와싯뺏사  
 anikkhantarājake añbhattaratanake pubbe appañisaūvidito  
 아늑칸따라-자께- 아니-뺏따라따나께- 뽕베- 앞빠띠삼위디또-  
 indakhālaū atikkāmeyya, pācittiyāū.  
 인다키-랑 아딕까-메이야, 빠-짚띠양.

사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①침실에서 왕이 떠나지 않았거나 ②여왕이 아직 물러나지 않았는데 왕의 침실 문지방을 넘어가면 참회해야 한다.

**(133) 빠짚띠야 84. 귀중품**(라타나, Rata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ratanaū vā ratanasammataū vā, aṃṃṃatra  
 요- 빠나 빅쿠 라타냥 와- 라타나삼마땅 와-, 안나뜨라  
 ajjhārāmā vā ajjhāvasathā vā uggaḍḍheyya vā uggaḍḍhāpeyya vā,  
 앗자-라-마- 와- 앗자-와사타- 와- 옥간헤이야 와- 옥간하-빼이야 와-,  
 pācittiyāū. ratanaū vāpana bhikkhunā ratanasammataū vā ajjhārāme  
 vā  
 빠-짚띠양. 라타냥 와-빠나 빅쿠나- 라타나삼마땅 와- 앗자-라-메- 와-  
 ajjhāvasathe vā uggahetvā vā uggahāpetvā vā nikkhipitabbaū:  
 앗자-와사테- 와- 옥가헤-뜨와- 와- 옥가하-빼-뜨와- 와- 닉키빼뺏방:  
 Byassa bhavissati, so harissatāū ti. ayaū tattha sāmāci.

## 부록 5. 포살(Uposatha)

“앗사 바웃사띠, 소- 하릿사띠-” 띠. 아양 땃타 사-미-찌.

어떤 비구가 절 안이나 거처 이외의 장소에서 귀중품이나 값비싸게 보이는 것을 줌거나 줌도록 시키면 참회해야 한다. 절 안이나 거처 안에 놓인 귀중품이나 값비싸게 보이는 것을 줌거나 줌도록 시켰을 때는 “물건 주인이 와서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보관해야 한다. 이것이 적법한 처신이다.

### (134) 빠짚띠야 85. 오후에 마을 방문(위갈라 가맘빠웨사나) (Vikāla-gāmapavesan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santaū bhikkhuū anāpucchā vikāle gāmaū  
요- 빠나 빅쿠 산땅 빅쿱 아나-뵗차- 위갈-레- 가-맘  
paviseyya, aṃṃatra tathārāpā accāyikā karaḍāyā, pācittiyāū.  
빠위세이야, 안냐뜨라 따타-루-빠- 앓짜-이까- 까라니-야-, 빠-짚띠야.

적법한 비상시를 제외하고 다른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 적절하지 못한 시간에 마을에 들어가면 참회해야 한다.

### (135) 빠짚띠야 86. 바늘통(수찌가라, Sūcighar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aññhimayaū vā dantamayaū vā visāḍamayaū vā  
요- 빠나 빅쿠 앓티마양 와- 단따마양 와- 위사-나마양 와-  
sācigharaū kārāpeyya, bhedanakaū, pācittiyāū.  
수-찌가랑 까-라-빠이야, 베-다나깡, 빠-짚띠야.

비구가 ①뼈, ②상아, ③빨로 만들어진 바늘통을 지니면 부수어 버린 다음 참회해야 한다.

### (136) 빠짚띠야 87. 짐상(만짜, Mañca-sikkhāpadam)

navaū pana bhikkhunā maṃcaū vā pāñhaū vā kārayamānena  
나왕 빠나 빅쿠나- 만짱 와- 빠-탕 와- 까-라야마-네-나  
aññhaīgulapādakaū kàretabbaū sugataīgulena, aṃṃatra heññhimāya  
앗탕굴라빠-다깡 까-레-땃방 수가땅굴레-나, 안냐뜨라 헛티마-야  
aññaniyā. taū atikkāmayato, chedanakaū, pācittiyāū.  
아따니야-. 땃 아땃까-마야또-, 체-다나깡 빠-짚띠야.

비구가 새 침대나 의자를 만들 때 다리의 길이는 널판 두께의 치수를 제외하고 부처님 손가락 폭으로 최대 8폭(16.7cm/65cm)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길이를 넘으면 잘라낸 다음 참회해야 한다.(BMC/MB)

**(137) 빠짚띠야 88. 슝 재음**(똥로낫다, Tūlonaddh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maṅcaū vā pāñhaū vā tālonaddhaū  
 요- 빠나 빅쿠 만짱 와- 빠-탕 와- 똥-로-낫당  
 kàrāpeyya, uddālanakaū, pācittiyāū.  
 까-라-빠이야, 웃달-라나깡, 빠-짚띠양.

비구가 침대나 의자에 (천연)숨을 채우면 속을 뜯어내 버리고 참회해야 한다.

**(138) 빠짚띠야 89. 깔개**(니시다나, Nisīdana-sikkhāpadam)

nisādanaū pana bhikkhunā kārāyamānena pamāḍikaū kàretabbā.  
 니시-다낭 빠나 빅쿠나- 까-라야마-네-나 빠마-니깡 까-레-답방.  
 tatrīdāū pamāḍāū: dāghaso dve vidatthiyo sugatavidatthiyā, tiriyaū  
 따뜨리당 빠마-낭: 디-가소- 드웨- 위닷티요- 수가따위닷티야-, 띠리양  
 diyaóóhaū, dasā vidatthi. taū atikkāmayato, chedanakaū, pācittiyāū.  
 디앗당, 다사- 위닷티. 땅 아떡까-마야또-, 체-다나깡, 빠-짚띠양.

비구가 깔개를 만들 때는 표준치수로 만들어야 한다. 표준치수는 다음과 같다. 부처님 뺨으로 길이 2뺨(50cm/2.2m), 너비 1뺨 반(37.5cm/1.72m), 테두리 1뺨(25cm/1.15m). 이 치수를 넘으면 잘라내고 참회해야 한다. (BMC/MB)

**(139) 빠짚띠야 90. 붕대가사**(깐두 빠똥차디, Kaṇḍu-pāṭicchādi-sikkhāpadam)

kaḍóupañicchādiū pana bhikkhunā kārāyamānena pamāḍikā kàretabbā.  
 깐두빠똥차-딩 빠나 빅쿠나- 까-라야마-네-나 빠마-니까- 까-레-답바-.  
 tatrīdāū pamāḍāū: dāghaso catasso vidatthiyo sugatavidatthiyā,  
 tiriyaū  
 따뜨리당 빠마-낭: 디-가소- 짜똥소- 위닷티요- 수가따위닷티야-, 띠리양  
 dve vidatthiyo. taū atikkāmayato, chedanakaū, pācittiyāū.  
 드웨- 위닷티요-. 땅 아떡까-마야또-, 체-다나깡, 빠-짚띠양.

비구가 피부의 상처를 가리는 가사를 만들 때는 표준치수로 만들어야 한다. 표준치수는 다음과 같다. 부처님 뺨으로 길이 4뺨(1m/4.5m), 너비 2뺨(50cm/2.2m). 이 치수를 넘으면 잘라내고 참회해야 한다. (BMC/MB)

**(140) 빠짚띠야 91. 욱욕가사**(왓시까사띠까, Vassikasāṭhika-sikkhāpadam)

vassikasāñhikaū pana bhikkhunā kārāyamānena pamāḍikā kàretabbā.  
 왓시까사-띠깡 빠나 빅쿠나- 까-라야마-네-나 빠마-니까- 까-레-답바-.  
 tatrīdāū pamāḍāū: dāghaso cha vidatthiyo sugatavidatthiyā, tiriyaū

## 부록 5. 포살(Uposatha)

따뜨리당 빠마-냥: 디-가소- 차 위닷티요- 수가따위닷티야-, 띠리양  
aóhateyyà. taü atikkàmayato, chedanakaü, pàcittiyäü.  
안다떼이야-. 땅 아딕까-마야또-, 체-다나깡, 빠-짚띠양.

비구가 목욕가사를 만들 때는 표준치수로 만들어야 한다. 표준치수는 다음과 같다. 부처님 뺨으로 길이 6뺨(1.5m/6.5m), 너비 2뺨 반(62.5cm/2.7m). 이 치수를 넘으면 잘라내고 참회해야 한다. (BMC/MB)

### (141) **빠짚띠야 92. 난다장로의 가사**(난다테라, Nandatther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sugatacāvarappamāḍaü cāvarau kārāpeyya  
요- 빠나 빅쿠 수가따찌-와랍빠마-냥 짜-와랑 까-라-빼이야  
atirekaü vā, chedanakaü, pàcittiyäü. tatrídaü sugatassa  
아띠레-깡 와-, 체-다나깡, 빠-짚띠양. 따뜨리당 수가닷사  
sugatacāvarappamāḍaü: dāghaso nava vidatthiyo sugatavidatthiyā,  
수가따찌-와랍빠마-냥: 디-가소- 나와 위닷티요- 수가따위닷티야-,  
tiriyaü cha vidatthiyo. idaü sugatassa sugatacāvarappamāḍaü.  
띠리양 차 위닷티요-. 이당 수가닷사 수가따찌-와랍빠마-냥.

비구는 부처님의 가사 보다 큰 가사를 지니면 잘라내고 참회해야 한다. 부처님 가사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부처님 뺨으로 길이 9뺨(2.25m/10m), 너비 6뺨 반(1.5m/6.5m). 이것이 부처님 가사의 크기이다. (BMC/MB)

Ratanavaggo navamo  
라따나왓고- 나와모-  
아홉 번째 귀중품 품

uddiññhà kho àyasmanto dvenavuti pàcittiyà dhammà.  
우딕타- 코- 아-야스만또- 드웨-나웃띠 빠-짚띠야- 담마-  
스님들이시여, 92가지 ‘빠짚띠야’ 제목을 낭송했습니다.

tatthàyasmante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탓타-야스만떼- 뵈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두띠얌빼 뵈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따띠얌빼 뵈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 5. **숫다 빠짚띠야**(Suddha pācittiyā)

parisuddhetthāyasmanto, tasmā tuḍhā, evam-etaü dhàrayāmi.  
빠리숫뎡타-야스만또-, 따스마- 똥히-, 에-와메-똥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Pācittiyā niññhitā  
빠짚띠야 닛티따  
빠짚띠야를 마쳤습니다.

## 6. 빠띠데사니야 (Pāṭidesanīyā)

ime kho panāyasmanto cattāro pañidesanāyā  
이메-코-빠나-야스만토-짚따-로-빠-띠데-사니-야-  
dhammā uddesāū āgacchanti.  
담마-웃데-상 아-갓찬띠.

스님들이시여, 4가지 자백해야하는 ‘빠띠데사니야’ 제목을 암송하겠습니다.

### (142) 빠띠데사니야 1 (Paṭhama-pāṭidesanīya-sikkhāpadam)

yo pana bhikkhu aṅṅatikāya bhikkhuniyā antaragharāū pavīññhāya  
요-빠나 빅쿠 안냐-띠까-야 빅쿠니야-안따라가랑 빠윳타-야  
hatthato khādanāyāū vā bhojanāyāū vā sahatthā pañiggahetvā  
khādeyya  
햇타또-카-다니-양 와-보-자니-양 와-사חת타-빠떡가헤-뜨와-카-데이야  
vā bhūṃjeyya vā. pañidesetabbaū tena bhikkhunā: ḅgārayhaū āvuso  
와-분제이야 와-. 빠띠데-세-땡방 떼-나 빅쿠나-: “가-라이항 아-우소-  
dhammā āpajjiū, asappāyāū, pañidesanāyāū, taū pañidesemāū ti.  
담망 아-뽕징, 아삼빠-양, 빠-띠데-사니-양, 땡 빠띠데-세-미” 띠.

비구가 마을에서 친척이 아닌 비구니의 손으로부터 직접 음식을 받아  
주식이나 부식을 씹거나 삼키면 이렇게 자백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나는 자백해야만 하는 비난받을 만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백합니다.”

### (143) 빠띠데사니야 2 (Dutiya-pāṭidesanīya-sikkhāpadam)

bhikkhā paneva kulesu nimantitā bhūṃjanti. tatra ce sà bhikkhunā  
빅쿠-빠네-와 꿀레-수 니만띠따-분잔띠. 따뜨라 쩌-샤-빅쿠니-  
vosāsamānarāpā ṅhitā hoti: Bidha sāpāū detha, idha odanaū dethāū  
ti.  
워사-사마-나루-빠-티따-호-띠: “이다 수뽕 데-타, 이다 오-다낭 데-타” 띠.  
tehi bhikkhāhi sà bhikkhunā apasādetabbā: ḅapasakka tāva bhagini,  
떼-히 빅쿠-히 샤-빅쿠니-아빠사-데-땡바-: “아빠삭까 따-와 바기니,  
yāva bhikkhā bhūṃjanti.ū ekassa pi ce bhikkhuno nappañibhāseyya  
야-와 빅쿠-분잔띠.” 에-갓사 쩌 쩌-빅쿠노-납빠띠바-세이야  
taū bhikkhuniū apasādetuū: ḅapasakka tāva bhagini, yāva bhikkhā  
땡 빅쿠닝 아빠사-데-땡: “아빠삭까 따-와 바기니, 야-와 빅쿠-  
bhūṃjantāū ti. pañidesetabbaū tehi bhikkhāhi: ḅgārayhaū āvuso  
분잔띠-” 띠. 빠띠데-세-땡방 떼-히 빅쿠-히: “가-라이항 아-우소-  
dhammā āpajjimhā, asappāyāū, pañidesanāyāū, taū pañidesemāū ti.

담망 아-뵤짐하-, 아삼빠-양, 빠-띠데-사니-양, 땅 빠띠데-세-마-” 띠.  
 초청받은 비구들이 재가자의 집에서 공양하는데 비구니가 그곳에 서서  
 (자신이 공경하는 비구만을 위해) 마치 지시하듯이 “여기 카레 주시오,  
 여기 밥 주시오.” 라고 하면 비구들은 비구니를 이렇게 내보내야 한다.  
 “자매여, 비구들이 공양하고 있는 동안 나가 있으시오.” 비구들 중 어느  
 누구도 “자매여, 비구들이 공양하고 있는 동안 나가 있으시오.” 라고 말  
 하지 않고 (주식(①밥, ②빵, ③국수, ④생선, ⑤고기)을 먹으면) 비구들은  
 이렇게 자백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우리는 자백해야만 하는 비난받을  
 만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백합니다.”

#### (144) 빠띠데사니야 3(Tatiya-pāṭidesanīya-sikkhāpadam)

yàni kho pana tàni sekhasammatàni kulàni. yo pana bhikkhu  
 야-니 코- 빠나 따-니 세-카삼마따-니 꼴라-니. 요- 빠나 빅쿠  
 tathârâpesu sekhasammatesu kulesu pubbe animantito agilàno  
 따타-루-빠-수 세-카삼마떼-수 꼴레-수 뽕베- 아니만띠또- 아길라-노-  
 khàdanāyaū vā bhojanāyaū vā sahatthā pañiggahetvā khādeyya vā  
 카-다니-양 와- 보-자니-양 와- 사합타- 빠떡가헤-뜨와 카-데이야 와-  
 bhujeyya vā. pañidesetabbāū tena bhikkhunā: ßgarayhaū àvuso  
 분제이야 와-. 빠띠데-세-땀방 떤-나 빅쿠나-: “가-라이항 아-우소-  
 dhammā àpajjiū, asappāyaū, pañidesanāyaū, taū pañidesemāū ti.  
 담망 아-뵤짐, 아삼빠-양, 빠-띠데-사니-양, 땅 빠띠데-세-미” 띠.

유학(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재가신도가 있는데 아프지 않은 비구가  
 사전에 초청받지 않고 유학의 재가신도 집에서 직접 음식을 받아 주식  
 이나 부식을 씹거나 삼키면 그는 이렇게 자백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나는 자백해야만 하는 비난받을 만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백합니다.”

#### (145) 빠띠데사니야 4(Catuttha-pāṭidesanīya-sikkhāpadam)

yàni kho pana tàni àraakkàni senàsanàni sàsāikasammatàni  
 야-니 코- 빠나 따-니 아-란냐까-니 세-나-사나-니 사-상까삼마따-니  
 sappañibhayàni. yo pana bhikkhu tathârâpesu senàsanesu viharanto  
 삼빠띠바야-니. 요- 빠나 빅쿠 따타-루-빠-수 세-나-사네-수 위하란또-  
 pubbe appañisaūviditaū khàdanāyaū vā bhojanāyaū vā ajjhàrāme

## 부록 5. 포살(Uposatha)

뵽베- 압빠띠상위디땅 카-다니-양 와- 보-자니-양 와- 앓자-라-메-  
sahatthà paṇiggahetvā agilāno khādeyya vā bhurūjeyya vā.  
사חת타- 빠떡가해-뜨와- 아길라-노- 카-데이야 와- 분제이야 와-  
pañidesetabbaū tena bhikkhunā: ßgārayhaū àvuso dhammaū  
빠띠데-세-땀방 떼-나 빅쿠나: “가-라이항 아-우소- 담망  
àpajjiū, asappāyāū, pañidesanāyāū, taū pañidesemāū ti.  
아-뽀징, 아삼빠-양, 빠-띠데-사니-양, 땀 빠띠데-세-미” 띠.

불안하고 위험한 숲속의 거처가 있다. 그런 거처에서 살고 있는 아프지 않은 비구가 (위험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직접 보시 된 음식을 받아 주식이나 부식을 씹거나 삼키면 그는 이렇게 참회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나는 자백해야만 하는 비난받을 만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백합니다.”

uddiññhā kho àyasmanto cattāro pañidesanāyā dhammā.  
우딤타- 코- 아-야스만또- 짚따-로- 빠-띠데-사니-야- 담마-  
스님들이시여, 4가지 ‘빠띠데사니야’ 제목을 낭송했습니다.

tatthāyasmante pucchāmi: kaccittha parisuddhā?  
땃타-야스만떼- 뽀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āmi: kaccittha parisuddhā?  
두띠얌삐 뽀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thāyasmante pucchāmi: kaccittha parisuddhā?  
따띠얌삐 뽀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parisuddhetthāyasmanto, tasmā tuōhā, evam-etaū dhārayāmi.  
빠리숫땃타-야스만또-, 따스마- 툃히-, 에-와메-땀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Pañidesanāyā niññhitā  
빠-띠데-사니-야- 닛띠따-

## 6. 빠띠데사니야(Pāṭidesanīyā)

빠띠데사니야를 마쳤습니다.

## 7. 세키야 (Sekhiyā)

ime kho panāyasmanto sekhiyā dhammā uddesaū āgacchanti.  
이메 코 빠나-야스만또- 세-키야- 담마- 웃데-상 아-갓찬띠.

스님들이시여, 75가지 공부지어야 할 ‘세키야’ 제목을 암송하겠습니다.

### (146)세키야 1. 잘 두름(빠리만달라, Parimaṇḍala-sikkhāpadam)

parimaḍōalaū nivāsessamā ti, sikkhā karaḍāyā.

빠리만달랑 니와-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아래가사를 잘 들러 입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 (147)세키야 2. 잘 두름(빠리만달라, Parimaṇḍala-sikkhāpadam)

parimaḍōalaū pārupissamā ti, sikkhā karaḍāyā.

빠리만달랑 빠-루뻬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위가사를 잘 들러 입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 (148)세키야 3. 잘 가림(수빠똥찬노, Supaṭichanna-sikkhāpadam)

supaṭicchanno antaraghare gamissamā ti, sikkhā karaḍāyā.

수빠똥찬노-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몸을 잘 가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 (149)세키야 4. 잘 가림(수빠똥찬노, Supaṭichanna-sikkhāpadam)

supaṭicchanno antaraghare nisāḍissamā ti, sikkhā karaḍāyā.

수빠똥찬노- 안따라가레- 니시-뎃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몸을 잘 가리고 앉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 (150)세키야 5. 잘 단속(수삼우따, Susaṃvuta-sikkhāpadam)

susaūvuto antaraghare gamissamā ti, sikkhā karaḍāyā.

수삼우또-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몸을 잘 단속하며 갈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51)세키야 6. 잘 단속(수삼우따, Susaṃvuta-sikkhāpadam)**

susaṃvuto antaraghare nisāḍ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수삼우또- 안따라가레- 니시-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몸을 잘 단속하며 앓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52)세키야 7. 눈을 아래로 향함(옥킷따짜쿠, Okkhittacakkhu-sikkhāpadam)**

okkhittacakkhu antaraghare gam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오킷따짜쿠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갈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53)세키야 8. 눈을 아래로 향함(옥킷따짜쿠, Okkhittacakkhu-sikkhāpadam)**

okkhittacakkhu antaraghare nisāḍ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오킷따짜쿠 안따라가레- 니시-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앓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54)세키야 9. 추켜올림(옥킷따까, Ukkhittaka-sikkhāpadam)**

na ukkhittakāya antaraghare gam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옥킷따까-야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가사를 추켜올리고 가지 앓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55)세키야 10. 추켜올림(옥킷따까, Ukkhittaka-sikkhāpadam)**

na ukkhittakāya antaraghare nisāḍ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옥킷따까-야 안따라가레- 니시-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가사를 추켜올리고 앓지 앓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Parimaḍóalavaggo pañhamo

빠리만달라왓고- 빠타모-

첫 번째 두름 품

**(156)세키야 11. 큰 웃음(웃작기까, Ujjhaghghika-sikkhāpadam)**

na ujjagghikāya antaraghare gam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웃작기까-야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크게 웃으면서 가지 앓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부록 5. 포살(Uposatha)**

**(157)세키야 12. 큰 웃음(웃작기까, Ujjhagghika-sikkhāpadam)**

na ujjagghikāya antaraghare nisādissāmā ti, sikkhā karaḍḍāyā.  
나 웃작기까-야 안따라가레- 니시-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크게 웃으면서 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58)세키야 13. 낮은 소리(압빠삐따, Appasadda-sikkhāpadam)**

appasaddo antaraghare gamissāmā ti, sikkhā karaḍḍāyā.  
압빠삐따도-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낮은 소리로 (말하며) 갈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59)세키야 14. 낮은 소리(압빠삐따, Appasadda-sikkhāpadam)**

appasaddo antaraghare nisādissāmā ti, sikkhā karaḍḍāyā.  
압빠삐따도- 안따라가레- 니시-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낮은 소리로 (말하며) 앉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60)세키야 15. 몸을 흔들(까야빠찰라까디, Kāyappacālakādi-sikkhāpadam)**

na kāyappacālakāū antaraghare gamissāmā ti, sikkhā karaḍḍāyā.  
나 까-야빠찰-라강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몸을 흔들면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61)세키야 16. 몸을 흔들(까야빠찰라까디, Kāyappacālakādi-sikkhāpadam)**

na kāyappacālakāū antaraghare nisādissāmā ti, sikkhā karaḍḍāyā.  
나 까-야빠찰-라강 안따라가레- 니시-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몸을 흔들면서 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62)세키야 17. 팔을 흔들(바후빠찰라까, Bāhuppacālaka-sikkhāpadam)**

na bāhuppacālakāū antaraghare gamissāmā ti, sikkhā karaḍḍāyā.  
나 바-후빠찰-라강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팔을 흔들면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63)세키야 18. 팔을 흔들(바후빠찰라까, Bāhuppacālaka-sikkhāpadam)**

na bāhuppacālakāū antaraghare nisādissāmā ti, sikkhā karaḍḍāyā.  
나 바-후빠찰-라강 안따라가레- 니시-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팔을 흔들면서 앉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64)세키야 19. 머리를 흔들**(시삽빠잘라까, Sīsappacālaka-sikkhāpadam)

na sāsappacālakaū antaraghare gam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시-삽빠잘-라깁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머리를 흔들면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65)세키야 20. 머리를 흔들**(시삽빠잘라까, Sīsappacālaka-sikkhāpadam)

na sāsappacālakaū antaraghare nisād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시-삽빠잘-라깁 안따라가레- 니시-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머리를 흔들면서 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Ujjagghikavaggo dutiyo

웃작기까왓고- 두띠요-

두 번째 대소(大笑) 품

**(166)세키야 21. 손을 허리에 올림**(캄바까따, Khambhakata-sikkhāpadam)

na khambhakato antaraghare gam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캄바까또-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손을 허리에 대고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67)세키야 22. 손을 허리에 올림**(캄바까따, Khambhakata-sikkhāpadam)

na khambhakato antaraghare nisād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캄바까또- 안따라가레- 니시-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손을 허리에 대고 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68)세키야 23. 머리를 가림**(오군티따, Oguṇṭhita-sikkhāpadam)

na uguṇṭhito antaraghare gam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오-군티또-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머리를 가리고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69)세키야 24. 머리를 가림**(오군티따, Oguṇṭhita-sikkhāpadam)

na uguṇṭhito antaraghare nisād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오-군티또- 안따라가레- 니시-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머리를 가리고 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부록 5. 포살(Uposatha)**

**(170)세키야 25. 깨금밭(옥꾸띠까, Ukkuṭṭika-sikkhāpadam)**

na ukkuṇīkàya antaraghare gamissāmā ti, sikkhà karaḍāyā.  
나 옥꾸띠까-야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발끝이나 발뒤꿈치로 걸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71)세키야 26. 옹크리고 앉음(빨랏티까, Pallatthika-sikkhāpadam)**

na pallatthikàya antaraghare nisādissāmā ti, sikkhà karaḍāyā.  
나 빨랏티까-야 안따라가레- 니시-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무릎을 감싸고 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72)세키야 27. 공경하며 받음(삭갓짜 빠떡가하나, Sakkacca-ṭaṭṭigahaṇa-sikkhāpadam)**

sakkaccaū piḍḍāpātaū paṇiggahessāmā ti, sikkhà karaḍāyā.  
삭갓짱 뽀다빠-땅 빠떡가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탁발음식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73)세키야 28. 발우에 주목하며 받음(뽀따산니 빠떡가하나)**

(Patta-saññi-ṭaṭṭigahaṇa-sikkhāpadam)

pattasāṇṇā piḍḍāpātaū paṇiggahessāmā ti, sikkhà karaḍāyā.  
뽀따산니- 뽀다빠-땅 빠떡가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발우에 주목하면서 탁발음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74)세키야 29. 적당한 비율로 받음(사마수빠까 빠떡가하나)**

(Samasūpaka-ṭaṭṭigahaṇa-sikkhāpadam)

samasūpakaū piḍḍāpātaū paṇiggahessāmā ti, sikkhà karaḍāyā.  
사마수-빠강 뽀다빠-땅 빠떡가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콩 카레를 적당한 비율(밥:카레=4:1)로 탁발음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75)세키야 30. 넘침(사마뽀띠까, Samatittika-sikkhāpadam)**

samatittikaū piḍḍāpātaū paṇiggahessāmā ti, sikkhà karaḍāyā.  
사마뽀띠강 뽀다빠-땅 빠떡가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발우의 가장자리가 넘치지 않게 탁발음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Khambhakavaggo tatiyo  
깜바까왓고 따띠요  
세 번째 손을 허리에 올림 품

**(176) 세키야 31. 공경하며 공양**(**śakkaṅga-bhūñjana-sikkhāpadaṃ**)

sakkaccaū piḍḍāpātaū bhūñjissamā ti, sikkhā karaḍḍāyā.

śakkaṅga bhūñjana-paṇḍita-bhikkhū-sāmaṅgī, śakkaṅga-bhikkhū-sāmaṅgī-

타발음식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77) 세키야 32. 발우에 주목하며 공양**(**paṭṭasaṅgī-bhūñjana-sikkhāpadaṃ**)

(**paṭṭasaṅgī-bhūñjana-sikkhāpadaṃ**)

paṭṭasaṅgā piḍḍāpātaū bhūñjissamā ti, sikkhā karaḍḍāyā.

paṭṭasaṅgī-bhūñjana-paṇḍita-bhikkhū-sāmaṅgī, śakkaṅga-bhikkhū-sāmaṅgī-

발우에 주목하면서 공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78) 세키야 33. 순자 공양**(**sapadāna-bhūñjana-sikkhāpadaṃ**)

sapadānaū piḍḍāpātaū bhūñjissamā ti, sikkhā karaḍḍāyā.

sapadāna-bhūñjana-paṇḍita-bhikkhū-sāmaṅgī, śakkaṅga-bhikkhū-sāmaṅgī-

타발음식을 (한쪽부터) 순차적으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79) 세키야 34. 적당 비율의 카레**(**samasūpaka-bhūñjana-sikkhāpadaṃ**)

(**samasūpaka-bhūñjana-sikkhāpadaṃ**)

samasūpakaū piḍḍāpātaū bhūñjissamā ti, sikkhā karaḍḍāyā.

samasūpaka-bhūñjana-paṇḍita-bhikkhū-sāmaṅgī, śakkaṅga-bhikkhū-sāmaṅgī-

콩 카레를 적당한 비율(밥:카레=4:1)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80) 세키야 35. 더미부터 먹지 않음**(**thūpakata-sikkhāpadaṃ**)

na thāpato omadditvā piḍḍāpātaū bhūñjissamāti, sikkhā karaḍḍāyā.

na thūpakata-bhūñjana-paṇḍita-bhikkhū-sāmaṅgī, śakkaṅga-bhikkhū-sāmaṅgī-

음식더미 가운데부터 타발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81) 세키야 36. 밥으로 숨김**(**odanappaticchādana-sikkhāpadaṃ**)

na sāpaū vā byājanaū vā odanena pañicchādessāmi

na sūpa vā byājana vā odanena pañicchādessāmi

bhāyokamyatāū upādāyāti, sikkhā karaḍḍāyā.

bhāyokamyatāū upādāyāti, sikkhā karaḍḍāyā.

더 얻은 욕심으로 콩 카레와 음식을 밥으로 숨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부록 5. 포살(Uposatha)**

**(182)세키야 37. 카레·밥 요구(수쁘다나 윈냐띠, Sūpodana-viññatti-sikkhāpadam)**

na sāpaū vā odanaū vā agilāno attano atthāya viṭṭāpetvā  
나 수-빵 와- 오-다낭 와- 아길라-노- 앓따노- 앓타-야 윈냐-빠-뜨와-  
bhucj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친척이나 공양초청 시를 제외하고) 아프지 않으면 자신을 위해서 밥이  
나 콩 카레를 더 요구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83)세키야 38. 허물을 찾음(웃자나산니, Ujjhānasaññi-sikkhāpadam)**

na ujjhānasaṅgā paresaū pattaū oloke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웃자-나산니- 빠레-상 뺏땅 올-로-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허물을 찾기 위하여 다른 비구의 발우를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  
게 공부짓는다.

**(184)세키야 39. 음식덩이(까발라, Kabaḷa-sikkhāpadam)**

nātimahantaū kabaḷaū kar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띠마한땅 까발랑 까릿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음식덩이를 너무 크게 만들어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85)세키야 40. 한입 분량(알로빠, Ālopa-sikkhāpadam)**

parimaḍālaū ālopaū kar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빠리만달랑 알-로-빵 까릿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한 입에 맞게 등글게 만들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Sakkaccavaggo catuttho  
삭갯짜웍고- 짜똥토-  
네 번째 공경 품

**(186)세키야 41. 가져오지 않음(아나하따, Anāhaṭa-sikkhāpadam)**

na anāhaṇe kabaḷe mukhadvāraū vivar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아나-하떼- 까발레- 무카드와-랑 위와릿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음식을 입에 가져오기도 전에 입을 벌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87)세키야 42. 식사 중**(분자마나, Bhuñjamāna-sikkhāpadam)

na bhujamāno sabbaū hatthaū mukhe pakkhip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분자마-노- 삼방 핫탕 목케- 빠키뵈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먹고 있는 동안에 손을 입 속에 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88)세키야 43. 입 안 가득**(사까발라, Sakabaḷa-sikkhāpadam)

na sakabaēena mukhena byāhar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사까발레-나 목케-나 바-하릿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음식을 입에 가득 넣고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89)세키야 44. 던져 먹음**(뵈독케 빠까, Piṇḍukkhepaka-sikkhāpadam)

na piḍóukkhepakaū bhuj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뵈독케-빠깁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음식을 (입 안으로) 던져 넣으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90)세키야 45. 베어 먹음**(까발라왓체다까, Kabaḷavacchedaka-sikkhāpadam)

na kabaēāvacchedakaū bhuj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까발라-왓체-다깁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음식(주식)을 입으로 베어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91)세키야 46. 양 볼 가득**(아와간다까라까, Avagaṇḍakāraka-sikkhāpadam)

na avagaḍóakārakaū bhuj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아와간다까-라깁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음식을 양 볼에 가득 넣어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92)세키야 47. 손을 흔들**(핫타닛두나까, Hatthaniddhunaka-sikkhāpadam)

na hatthaniddhunakaū bhuj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핫타닛두나깁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손을 흔들면서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93)세키야 48. 밥알을 흘림**(싯타와까라까, Sitthāvakāraka-sikkhāpadam)

na sitthāvakārakaū bhuj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싯타-와까-라깁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밥알을 흘리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부록 5. 포살(Uposatha)

(194)세키야 49. 혀를 내밌(지와닛차라까, Jivhānicchāraka-sikkhāpadam)

na jivhānicchārakaū bhujjissāmā ti, sikkhā karaḍḍāyā.  
나 지와-닛차-라깡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혀를 밖으로 내밀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95)세키야 50. 껌껌 소리(짜뿌짜뿌 까라까, Capucapukāraka-sikkhāpadam)

na capucapukārakaū bhujjissāmā ti, sikkhā karaḍḍāyā.  
나 짜뿌짜뿌까-라깡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입술로 껌껌 입맛을 다시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Kabaēvaggo paṅcama  
까발라왓고- 뽀짜모-  
다섯 번째 음식 품

(196)세키야 51. 후룩후룩 소리 냐(수루수루 까라까, Surusurukāraka-sikkhāpadam)

na surusurukārakaū bhujjissāmā ti, sikkhā karaḍḍāyā.  
나 수루수루까-라깡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후룩후룩 소리를 내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97)세키야 52. 손을 활음(햏타닐레하까디, Hatthanillehakādi-sikkhāpadam)

na hatthanillehakaū bhujjissāmā ti, sikkhā karaḍḍāyā.  
나 햏타닐레-하깡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손을 활으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98)세키야 53. 발우를 굵음(뽀따닐레하까, Pattanillehaka-sikkhāpadam)

na pattanillehakaū bhujjissāmā ti, sikkhā karaḍḍāyā.  
나 뽀따닐레-하깡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발우를 박박 굵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99)세키야 54. 입술을 활음(웃타닐레하까, Oṭṭhanillehaka-sikkhāpadam)

na oṭṭhanillehakaū bhujjissāmā ti, sikkhā karaḍḍāyā.  
나 웃타닐레-하깡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입술을 활아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00)세키야 55. 음식이 묻은(사미사, Sāmisa-sikkhāpadam)**

na sāmisenā hatthena pānāyathālakau  
 나 사-미세-나 핫테-나 빠-니-야탈-라깡  
 pañiggahe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빠뜨가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음식이 묻은 손으로 물 잔을 잡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01)세키야 56. 밥알이 있는(사싯타까, Sasitthaka-sikkhāpadam)**

na sasitthakau pattadhovanaū antaraghare chaóóe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사싯타깡 빠따도-와낭 안따라가레- 찻뎃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밥알이 있는 발우 씻은 물을 마을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02)세키야 57.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챗따빠니, Chattapāṇi-sikkhāpadam)**

na chattapāḍissa agilānassa dhammaū des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챗따빠-닛사 아길라-닛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손에 우산을 들고 있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03)세키야 58. 지팡이를 쥔 사람(단다빠니, Daṇḍapāṇi-sikkhāpadam)**

na daḍāpāḍissa agilānassa dhammaū des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단다빠-닛사 아길라-닛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손에 지팡이를 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04)세키야 59. 칼을 든 사람(삿타빠니, Satthapāṇi-sikkhāpadam)**

na satthapāḍissa agilānassa dhammaū des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삿타빠-닛사 아길라-닛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손에 칼을 든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05)세키야 60. 무기를 든 사람(아유다빠니, Āyudhapāṇi-sikkhāpadam)**

na āyudhapāḍissa agilānassa dhammaū des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아-유다빠-닛사 아길라-닛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손에 무기를 든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부록 5. 포살(Uposatha)

Surusuruvaggo chañño  
수루수루왓고- 찻토-  
여섯 번째 후룩후룩 품

(206)세키야 61. 신발(빠두까, Pāduka-sikkhāpadam)

na pādukārāhassa agilānassa dhammaü des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빠-두까-를-햏사 아길라-낫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신발을 신고 있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  
게 공부짓는다.

(207)세키야 62. 가죽신(우빠하나, Upāhana-sikkhāpadam)

na upāhanārāhassa agilānassa dhammaü des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우빠-하나-를-햏사 아길라-낫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가죽 신발을 신고 있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08)세키야 63. 탈것(야나, Yāna-sikkhāpadam)

na yānatatassa agilānassa dhammaü des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야-나가땃사 아길라-낫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탈것에 타고 있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  
게 공부짓는다.

(209)세키야 64. 누워있는 사람(사야나, Sayana-sikkhāpadam)

na sayanatatassa agilānassa dhammaü des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사야나가땃사 아길라-낫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누워있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10)세키야 65. 옹크리고 앉음(팔랏티까, Pallatthika-sikkhāpadam)

na pallatthikāya nisinnassa agilānassa dhammaü

나 빨랏티까-야 니신닛사 아길라-닛사 담망  
des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데-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무릎을 감싸고 앉아 있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1)세키야 66. 머리카락을 감싼(웻티따, Vethita-sikkhāpadam)**

na veñhitasāsassa agilānassa dhammā des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웨-티따시-삿사 아길라-닛사 담망 데-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모자나 터번으로) 머리카락을 감싼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2)세키야 67. 머리를 감싼(오군티따, Oguṇṭhita-sikkhāpadam)**

na uguñhitasāsassa agilānassa dhammā des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오-군티따시-삿사 아길라-닛사 담망 데-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옷이나 천으로) 머리를 감싼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3)세키야 68. 바닥(차마, Chamā-sikkhāpadam)**

na chamāya nisāditvā āsane nisinnassa agilānassa dhammā  
나 차마-야 니시-디뜨와- 아-사네- 니신닛사 아길라-닛사 담망  
desissāmā ti, sikkhākaraḍāyā.

데-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비구는) 바닥에 앉아 있는데, 좌석에 앉아 있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4)세키야 69. 낮은 자리(니짜사나, Nīcāsana-sikkhāpadam)**

na nāce āsane nisāditvā ucce āsane nisinnassa agilānassa  
나 니-째- 아-사네- 니시-디뜨와- 웃째- 아-사네- 니신닛사 아길라-닛사  
dhammā desissāmā ti, sikkhākaraḍāyā.

담망 데-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비구는)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아프지 않

## 부록 5. 포살(Uposatha)

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 (215)세키야 70. 서있는(티따, Ṭhita-sikkhāpadam)

na ñhito nisinnassa agilānassa dhammaü des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나 티또- 니신닛사 아길라-닛사 담망 데-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비구는) 서있는데, 앉아 있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 (216)세키야 71. 뒤에 걸어감(뺏차또가마나, Pacchatogamana-sikkhāpadam)

na pacchato gacchanto purato gacchantassa agilānassa

나 뺏차또- 갓찬또- 뿌라또- 갓찬땃사 아길라-닛사

dhammaü des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담망 데-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비구가) 뒤에 걸어가면서, 앞에 걸어나가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 (217)세키야 72. 길가에 걸어감(웁빠테나가마나, Uppathenagamana-sikkhāpadam)

na uppathena gacchanto pathena gacchantassa agilānassa

나 웁빠테-나 갓찬또- 빠테-나 갓찬땃사 아길라-닛사

dhammaü des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담망 데-닛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비구는) 길가로 걸어나가는데, 길 위에 걸어나가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 (218)세키야 73. 서서 변을 봄(티또 옷짜라, Ṭhito-uccāra-sikkhāpadam)

na ñhito agilāno uccāraü vā passāvaü vā

나 티또- 아길라-노- 옷짜-랑 와- 뺏사-왕 와-

karissāmā ti, sikkhākaraḍāyā.

까릿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아프지 않으면’ 서서 대소변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 (219)세키야 74. 작물에 변을 봄(하리떼 옷짜라, Harite-uccāra-sikkhāpadam)

na harite agilāno uccāraū vā passāvaū vā kheēaū vā  
 나 하리떼- 아길라-노- 옷짜-랑 와- 뺏사-왕 와- 켈-랑 와-  
 kar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까릿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아프지 않으면’ 작물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20)세키야 75. 물에 변을 볼**(우다께 옷짜라, Udake-uccāra-sikkhāpadam)

na udake agilāno uccāraū vā passāvaū vā kheēaū vā  
 나 우다께- 아길라-노- 옷짜-랑 와- 뺏사-왕 와- 켈-랑 와-  
 karissāmā ti, sikkhā karaḍāyā.  
 까릿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아프지 않으면’ (사용하는)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지 않을 것  
 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Pādukavaggo sattamo  
 뺏-두까약고- 샷따모-  
 일곱 번째 신발 품

uddiññhā kho āyasmanto sekhiyā dhammā.  
 우딤타- 코- 아-야스만또- 세-키야- 담마-

스님들이시여, (75가지) ‘세키야’ 제목을 낭송했습니다.

tatthāyasmante pucchāmi: kaccittha parisuddhā?  
 땃타-야스만떼- 뺏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āmi: kaccittha parisuddhā?  
 두띠얌뺏 뺏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iyam-pi pucchāmi: kaccittha parisuddhā?  
 따띠얌뺏 뺏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물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 부록 5. 포살(Uposatha)

parisuddhetthàyasmanto, tasmà tuõhã, evam-etaü dhàrayàmi.  
빠리숫뎃타-야스만또-, 따스마- 둔히-, 에-와메-땅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Sekhiyà niññhità  
세-키야- 닛티따-  
세키야를 마쳤습니다.

## 8. 아디까라나 사마타 (Adhikaraṇa samathā)

ime kho paṇāyasmanto satta adhikaraḍasamathā dhammā uddesaū  
이메- 코 빠나-야스만토- 샷따 아디까라나사마타- 담마- 웃데-상  
āgacchanti. uppannuppannānaū adhikaraḍānaū samathāya vāpasamāya:  
아-갓찬띠. 읍빠눅빠나-낭 아디까라나-낭 사마타-야 우-빠사마-야:

스님들이시여, 7가지 적법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아디까라나 사마타’ 계목을 암송하겠습니다.

(221) 1. sammukhāvinayo dātabbo.

삼무카-위나요- 다-땃보-.

‘대면’에 의해서 판결을 내린다.

(222) 2. sativinayo dātabbo.

사띠위나요- 다-땃보-.

‘알아차림(사띠)’ 여부로 판결을 내린다.

(223) 3. amāēhavinayo dātabbo.

아물-하위나요- 다-땃보-.

‘과거의 정신이상’ 여부로 판결을 내린다.

(224) 4. pañiḍḍāya kàretabbaū.

빠띤냐-야 까-레-땃방.

‘자백’에 의해 해결한다.

(225) 5. yebhuyyasikā.

예-부이야시까-.

‘다수결’에 의해 해결한다.

(226) 6. tassapāpiyyasikā.

땃사빠-삐이야시까-.

‘부가징제’에 의해 해결한다.

(227) 7. tiḍavattḥarako-ti.

띠나왓타-라꼬-띠.

‘플로 덩듯이’ 해결한다.

## 부록 5. 포살(Uposatha)

uddiññhà kho àyasmanto satta adhikaraḍasamathà dhammà.

우딛타- 코- 아-야스만또- 샷따 아디까라나사마타- 담마-.

스님들이시여, 7가지 ‘아디까라나 사마타’ 계목을 낭송했습니다.

tatthàyasmante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따타-야스만떼- 뵗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스님들께 물었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두띠얌삐 뵗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께 물었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따띠얌삐 뵗차-미: 갓짚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물었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parisuddhetthàyasmanto, tasmà tuḍhã, evam-etaü dhàrayàmi.

빠리숫뎨타-야스만또-, 따스마- 툄히-, 에-와메-땡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Adhikaraḍasamathà Niññhità

아디까라나사마타- 닛티따-

아디까라나사마타를 마쳤습니다.

uddiññhaü kho àyasmanto nidànaü.

우딛탕- 코- 아-야스만또- 니다-낭.

스님들이시여, 이제 도입부를 암송했습니다.

uddiññhà cattàro pàràjika dhammà.

우딛타- 짚따-로- 빠-라-지까- 담마-.

4가지 빠라지까를 암송했습니다.

uddiññhà terasa saïghàdisesà dhammà.

우딛타- 떼-라사 상가-디세-사 담마-.

13가지 상가디세사를 암송했습니다.

uddiññhà dve aniyatà dhammà.  
웃딛타- 드웨- 아니야따- 담마-.

2가지 아니야따를 암송했습니다.

uddiññhà tiüsa nissaggiyà pàcittiyà dhammà.  
웃딛타- 락사 닛삭기야- 뵘-짚띠야- 담마-.

30가지 닛삭기야 뵘띠야를 암송했습니다.

uddiññhà dvenavuti pàcittiyà dhammà.  
웃딛타- 드웨-나웃띠 뵘-짚띠야- 담마-.

92가지 뵘띠야를 암송했습니다.

uddiññhà cattàro pàñidesanāyà dhammà.  
웃딛타- 짚띠-로- 뵘-띠데-사니-야- 담마-.

4가지 뵘띠데사니야를 암송했습니다.

uddiññhà sekhiyà dhammà.  
웃딛타- 세-키야- 담마-.

(75가지) 세키야를 암송했습니다.

uddiññhà satta adhikaraṇasamathà dhammà.  
웃딛타- 샷따 아디까라나사마타- 담마-.

7가지 아디까라나 사마타를 암송했습니다.

ettakaü tassa bhagavato suttàgataü suttapariyàpannaü  
엇-따깁 깃사 바가와또- 숯따-가땡 숯따빠리아-뵘낭  
anvaddhamàsau uddeasü àgacchati.  
안왓다마-상 웃데-상 아-갓차띠.

여기까지가 그분 세존의 말씀으로 전해졌고,  
세존의 말씀에 들어있고, 반달마다 낭송되어온 것입니다.

tattha sabbeheva samaggehi sammodamànehi  
땃타 삼베-헤-와 사막게-히 삼모-다마-네-히  
avivadamànehi sikkhitabbau.  
아위와다마-네-히 식키땃방.

여기계신 모든 분들은 화합하고 성심을 다해  
다툼 없이 공부하여야 합니다.

Bhikkhu pàtimokkhaü niññhitaü  
빅쿠 뵘-띠목깁 닛띠땃  
비구 뵘띠목카를 마쳤습니다.